본보고서

서울 도시공간 권역별(서북권) 기록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주택공급기획관	이진형
도시공간기획과장	김동구
건축문화시설운영팀장	박소정
담당자	정영래, 정다은

과업수행

연구책임	이상구	경기대학교 교수 /공학박사
연구진	신나리	동네연구소 대표 /공학박사
	정춘환	건축문화연구소 건축도감대표 /공학박사
자문위원	송인호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교수
	정 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장옥연	온: 도시공간연구소 대표

편집 및 디자인 신나리 · 이상구 · 하춘

본보고서

서울 도시공간
권역별(서북권) 기록화

제출문

서울특별시 귀하

본 보고서를 [서울 도시공간 권역별(서북권) 기록화 사업] 용역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1년 11월

동네연구소

CONTENTS /

Ⅰ. 서울 도시공간의 기록 009

1 서울 도시공간에 대한 기본시각 010
2 서울 도시공간기록화, 무엇을 왜 012
3 서울 도시공간기록화, 정체성과 차별성 014
4 서울 도시공간기록화 전체 구조 속의 서북권역 016

Ⅱ. 서북권역 도시공간 형성의 구조 019

1 지형공간구조 020
2 옛 마을공간 024
3 서울 도시공간 확장의 4시간 층위들 044
4 주요간선도로 050
5 개발의 단위들 052

Ⅲ. 서북권역 도시형태분석 073

1 도시형태분석도 074
2 도시형태분석도 확대부분도 082
3 74개 도시공간들 110
4 영역별 상세도 118

Ⅳ. 서북권역 도시공간 현장조사 133

1 현장조사 자료집 읽기 134
2 상세조사분석도 136
A 은평구 138
B 마포구 218
C 서대문구 314

I

서울 도시공간의 기록

1 서울 도시공간에 대한 기본시각
2 서울 도시공간기록화, 무엇을 왜
3 서울 도시공간기록화, 정체성과 차별성
4 서울 도시공간기록화 전체 구조 속의 서북권역

1

서울 도시공간에 대한 기본시각

- **연속되는 시간 _ 현재 우리의 도시공간은 과거 도시공간 형성 • 조성에 대한 결정들의 총체적 결과물이다.** 과거의 결정들이 현재를 결정해 왔고, 현재의 결정들이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현재는 과거 안에 있었고, 미래의 가능성 또한 현재 안에 있다. 미래는 현재로부터 현재의 연속체로서 만들어질 것이다. 지금 어떠한 결정을 하는가가 미래를 결정해간다. 과거와 현재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바탕 위에 미래를 가져올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 **연속되는 공간 _ 고립된 개별 공간, 장소가 아닌 연속된 도시공간의 부분으로서의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도시공간 속 개별 장소나 건축을 점적인 독립적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전체 도시공간의 연속체 속에서, 형성과 변화를 같이 해온 집합체 속에서 인식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 **공간과 삶의 관계 _ 서울은 서울시민의 삶의 공간, 서울시민들의 삶이 만들어온 공간이다.** 서울이 갖는 도시 전체의 역사적 정체성, 도시 전체 차원에서 의미 있는 역사문화 자산들 모두 중요하지만 서울시민의 삶이 담기고 삶이 형상을 만들어온 동네 동네들의 시점에서 바라보고 그 정체성과 장소성을 이어가는 노력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서울을 총체적 의미와 가치 그리고 정체성의 위로부터의 시각만이 아닌, 서울시민들의 삶을 담아 서울 도시공간을 형성하여온 동네 동네의 아래로부터의 시점에서 서울 도시공간을 세밀하게 또한 모든 동네들을 빠짐없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도시공간의 연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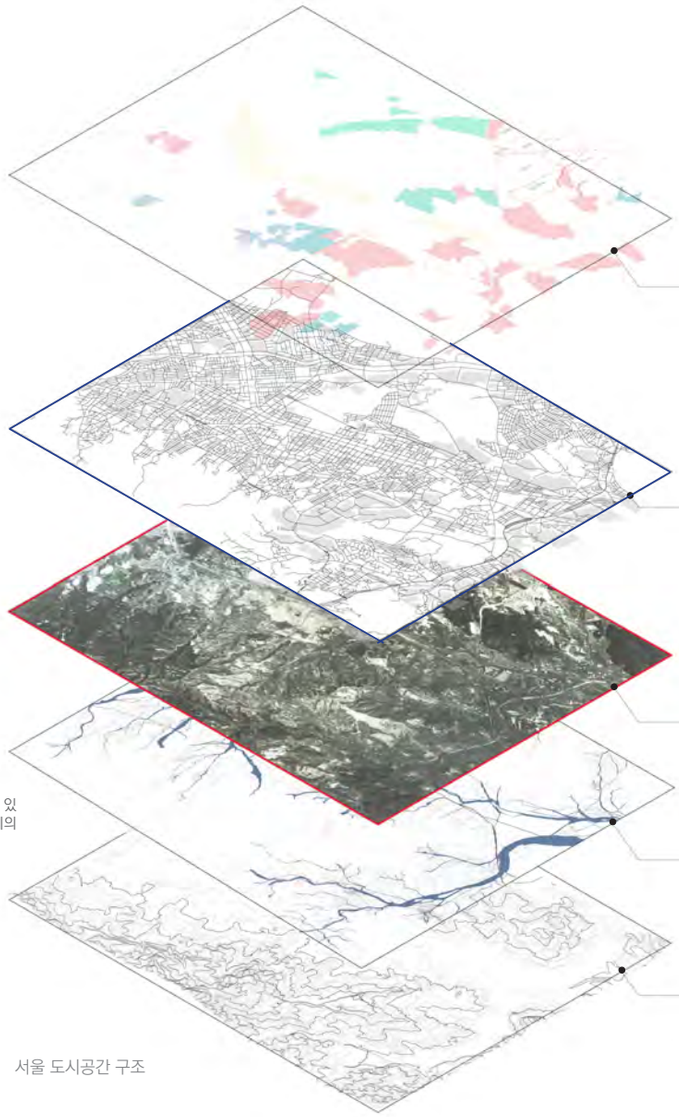
미래에도 서울시민의 삶이 만들어온
서울 도시공간의 장소적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현재 서울 도시공간
이 가지고 있는 시간 층위들에 대한
의미와 가치 부여

비교

현재 도시공간과 시가지 형성기
도시공간을 비교하여
현재 도시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시간 층위들 발견하여
장소적 의미 드러내기

도시공간 공간기반 이해

현재 도시공간의 공간기반을 형성하고 있
는 원지형 공간, 시가지 형성 이전 단계의
옛길, 마을 공간 이해



서울 도시공간 구조

미래 도시공간

미래 도시공간은 현재
도시공간으로부터
변화해감

현재 도시공간

현재 도시공간은
시가지형성기 도시공간으로부터
시민들의 삶이 더해지는
변화를 통해 형성됨

시가지 형성기 도시공간

옛길, 옛물길, 마을공간

시가지 형성 이전 단계

원지형공간

현재 도시공간의 공간기반

2 서울 도시공간기록화 왜 무엇을

서울시민들의 삶을 담아온 소박한 근린의 일상 공간들을 들여다본다.

- 국가적 차원에서 또는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대상을 선별해내는 서울 도시공간 조사기록은 이미 다수 있어왔다. 서울도시공간기록화는 서울시민들이 살고 있는 일상의 삶의 공간 어느 곳에나 있는 장소의 의미, 공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조사이고 기록작업이다.
- 모든 공간들은 나름의 삶의 이야기와 역사와 장소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무형의 공간의 가치는 1차적으로 그 공간에 삶을 담아오고, 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일 것이고, 또 2차적으로도, 또 앞으로 그 공간을 공유하며 그러할 사람들에게 다가갈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러한 의미와 가치가 이어져 시간을 통해 더욱 풍부하고 성숙한 것이 된다면, 그로서 작은 부분이겠으나 서울도시공간의 정체성이 확립될 것이다. 서울 도시공간의 다양성과 의미와 가치의 깊이는 그런 여러 소소한 일상의 공간들이 존재함으로 실현 가능해진다.

그 일상의 도시공간 속에 살아있는 시간의 층위들을 밝혀내어 조사하고 기록한다.

- 모든 동네들의 역사와 장소의 의미들의 소소한 부분들까지 밝혀내고 기록으로 담아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담고 있는 물리적 공간의 시간 층위는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다. 육백 년이 넘는 한양도성 안의 시간 층위의 가장 깊은 곳은 땅 아래 4미터가 넘는 지점에서 찾아내야 하지만, 서울 도시공간 기록화의 주 대상인 1936년 이후 형성된 서울 도시공간은 많은 경우 형성 전후의 상황을 어느 정도 지도와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49년, 1963년 시역 확장 이후 형성된 변두리 지역의 모습은 형성 시점 이후 현재까지의 모습이 항공사진에 담겨 있다. 그 비교를 통해 현재 도시공간을 만들어낸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현재 도시공간 속에 남아있는 형성기 이후 주요한 시간 층위들을 밝혀낼 수 있다.
- 서울시민들이 만들어온 물리적 결과물인 서울 도시공간 속에 잘 드러나지 않게 남아있는 시간의 층위들은 그것을 만들어낸 시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잊혀진 또는 숨어있어 모르고 있었던 공간의 시간 층위들이 드러나며 그것을 통해 거기에 담겨온 삶의 존재들을 드러낼 것이다. 그로서 동네마다 일상의 주변 공간들이 다양한 시간 층위의 다채로운 의미들을 갖는 풍요로운 장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립된 개별 대상이 아닌 지형 등의 공간기반과 형성과정과 형성 단위 등 전체 맥락 속에서 파악한다.

- 중요한 건축과 장소들을 주변의 공간적 맥락을 지워버리고 마치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존재인 듯 파악하는 조사들이 오히려 보편적이다. 현실의 계획과 사업들도 계획구역, 사업구역의 범위 안에서 조사하고 파악하여 주변 도시공간의 전체적 맥락으로부터 계획과 사업을 고립시켜 바라보는 접근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런 경향은 대상구역 주변부 내지 서울 도시공간 전반에 걸친 어느 정도 수준의 일관된 정보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화재, 여러 이름의 자산들 등이 지정되고 그에 대한 정보들은 많이 정리되어 제공되는 듯하지만 아직 일상의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은 부동산적 가치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시되고 있음이 현실이다. 개별 계획과 사업에서 일상의 도시공간의 의미와 장소성 그리고 그로부터 형성되는 정체성을 주변부까지 확대하여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서울 도시공간기록화 조사기록의 중요한 역할은 개별 도시공간의 시간 층위를 드러내어 일상의 도시공간 속에 숨어 있는 의미와 가치, 정체성을 드러냄과 함께 그러한 개별 도시공간들이 모여 지역의 도시공간, 서울 전체 도시공간으로 확대되며 만들어내는 좀 더 넓은 범위의 맥락을 파악해가는 것이다. 자연지형을 삶을 담을 수 있는 공간기반으로 이해하고, 시간적으로 선행된 옛길과 마을들의 구조의 공간적 연속성, 그리고 다양한 형성과 개발방식으로 만들어져 가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서울 도시공간을 이해하고 그러한 시선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서울 도시공간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여 미래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어가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 문제를 인식해야 문제를 풀 수 있고, 존재를 인지하고 있어야 대처를 하여 살려나갈 수 있다. 서울 도시공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드러내어 자료화함으로 서울에 대한 이해와 사고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에 그리하여 모른 채로 많은 도시공간들을 지워왔다. 어떠한 가치판단을 하고 또 대처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인지와 이해의 범위를 넓혀 현실의 서울 도시공간을 가꾸며 고쳐가야 할 것이다.

3

서울 도시공간기록화 정체성과 차별성

주요 서울 도시조사기록 작업들

1960년대까지 사적 중심 역사적 관점에서의 조사기록은 가회동 등 한옥과 한옥 밀집지역으로, 한양도성 내 역사도시의 도시조직 등 도시적 관심으로 차츰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까지 관심의 공간적 범위는 한양도성 내에 머무르고 있었다. 2010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르러 한양도성 내의 역사도심에 대한 조사연구와 이해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게 되었고 2015년에는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한양도성 내 지역의 역사도시로서의 인식이 고조된 반면 한양도성 외곽지역은 아직도 관심과 조사연구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다.

뉴타운 건설로 철거되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계기로 한양도성 밖으로 조사대상이 확대되었고, 1960~1970년대 서울의 외곽 끝자락에 집단적으로 형성된 이주정착지, 1960~1970년대 가로변 건물 입면 등 조사대상 시대가 1970년대까지 확장되었고 조사 주제도 다양화되는 경향에 있다.

서울 도시조사는 서울역사박물관, 서울기록원,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연구원, 서울학연구소 등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생활문화자료조사로 재개발·재건축으로 사라지거나 변화될 지역에 대한 도시 민속조사로 시작되어 서울시민의 삶을 담아온 다양한 공간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성격의 지역들을 부각시키는 큰 성과가 있었다. 그밖에 서울역사편찬원은 서울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구술집을 연속 발행하고 있으며, 서울 기록원은 공공기록물을 수집 및 정리, 관리하는 동시에 다양한 컬렉션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서울 도시공간기록화 사업의 정체성과 차별성

도시공간기록화를 통해 현재 서울 도시공간의 장소성과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렇게 재발견된 가치는 시민과 공유된다. 구체적 동네와 장소의 장소성은 시민의 삶이 만들어온 공간으로 가치 평가될 것이며 도시건축 아카이브, 상설전시를 기획할 수 있다. 서울의 도시계획 및 건축 변화상에 대한 기록사진 및 영상전시, 사라져 가는 도시공간에 대한 시각화 기록 전시, 서울 도시개발 역사 중 중요 프로젝트 전시와 공공건축 및 도시재생사업 통합자료 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도시건축 정책연구 자문 협업 및 공공건축가 네트워크 구축·지원, 도시건축문화와 시민을 아우르는 다양한 강연 및 포럼을 개최할 수 있다.

서울 도시공간

서울 도시공간 형성변화 '공간-시간'구조의 이해

가치의 재발견

권역별 현재 서울 도시공간의 장소성·정체성 발견

재발견한 가치의 공유

시민과의 공유

구체적 동네, 장소의 장소성 및 정체성을 조사를 통해 드러내어 공유

서울시민의 삶이 만들어온 서울 도시공간의 가치를 조사와 기록, 전시를 통한 공유로 재발견 해간다.

도시공간개선

공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시민의 삶 속으로 다시 돌려주는 시도와 재생의 과정

공공공간, 공공건축물들이 시민들의 삶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개선, 이를 통해 공공공간을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 목표



도시공간기획과

Urban Space Planning Division

서울도시건축센터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도시공간 기록화사업

- 도시·건축 등 아카이브, 교육프로그램 운영
- 도시·건축 관련 기획/상설전시
- 공공건축 및 도시·건축사업 통합자료 수집, 관리, 시스템 구축
- 도시건축 정책연구 자문·협업 및 공공건축가 네트워크 구축·지원
- 서울의 도시계획 및 건축변화상에 대한 기록사진 및 영상전시
- 사라져가는 도시공간에 대한 시각화 기록 전시
- 서울 도시개발 역사 중 중요 프로젝트 전시 및 아카이빙
- 도시건축문화와 시민을 아우르는 다양한 강연 및 포럼

4

서울 도시공간기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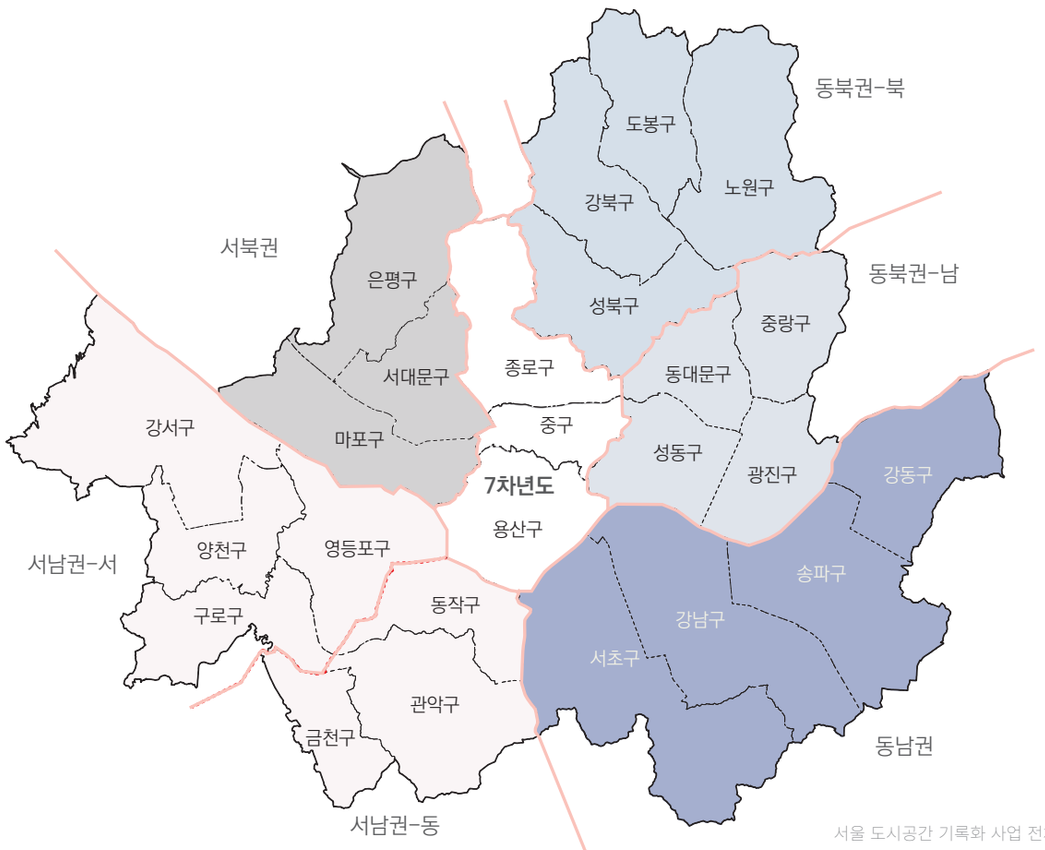
전체 구조속의 서북권역

서울 도시공간기록화는 역사도심을 넘어 서울의 다양한 도시공간을 드러내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시민의 공간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서울 전역을 단계적으로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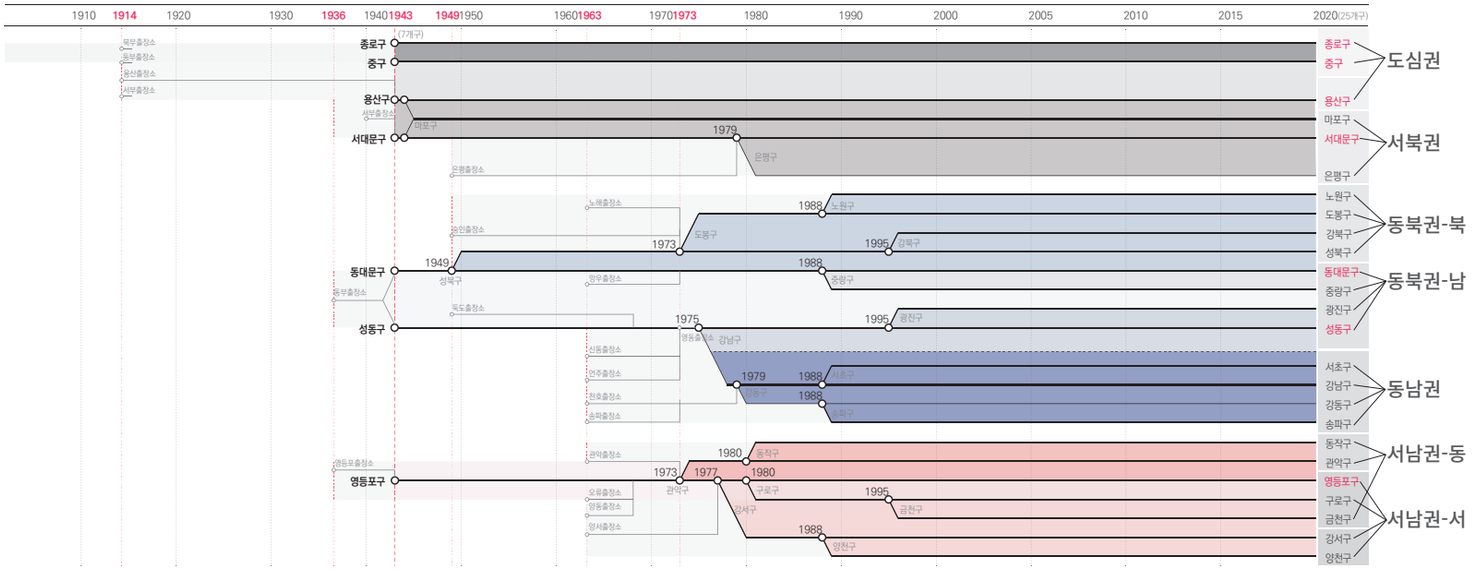
서울 도시공간기록화 권역구분의 기준

서울 도시공간기록화 사업은 한양도성으로부터 땅의 형태와 도시 확산 과정에서 중요한 길을 따라 한강 북쪽은 크게 혜화문 밖, 동대문 밖, 서대문 밖 3개 권역으로 나뉘고, 한강 남쪽은 영등포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 성동구를 시작으로 하는 동남으로 총 5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행정구역인 구의 변천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시공간의 확장과 이에 따른 인구와 면적의 확대가 분구로 이어진 결과다.

또한 이 경계는 서울시 생활권계획과 일치하므로, 생활권계획의 권역을 기준으로 명칭을 정하고 조사 및 작업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범위가 넓어 한꺼번에 조사하기 어려운 동북권과 서남권의 경우 각각 2차년에 걸쳐 조사한다. 동북권에서는 동대문밖과 혜화문밖으로 구분하여 동북권-북, 동북권-남으로 구분하고, 서남권에서는 서남권-서, 서남권-동으로 구분한다.



서울 도시공간 기록화 사업 전체범위



구변천과정으로 보는 서울도시공간 확장의 연대기

서울 도시공간 기록화 사업 연차별 조사계획

1차년도 동북권-북 → **2차년도** 서북권 → **3차년도** 서남권-서 → **4차년도** 서남권-동

→ **5차년도** 동북권-남 → **6차년도** 동남권 → **7차년도** 도심권

서울도시건축센터의 서울 도시공간기록화 사업은 2020년 '서울 도시공간 기록화 사업 조사대상 목록화 가이드라인 제작 및 시범조사' 를 시작으로 1차년도 동북권역-북, 2차년도 서북권역이 조사되었다.

II

서북권역 도시공간 형성의 구조

1 지형공간구조
2 옛 마을공간
3 서울도시공간
확장의 4시간 층위들
4 주요간선도로
5 개발의 단위들

1 지형공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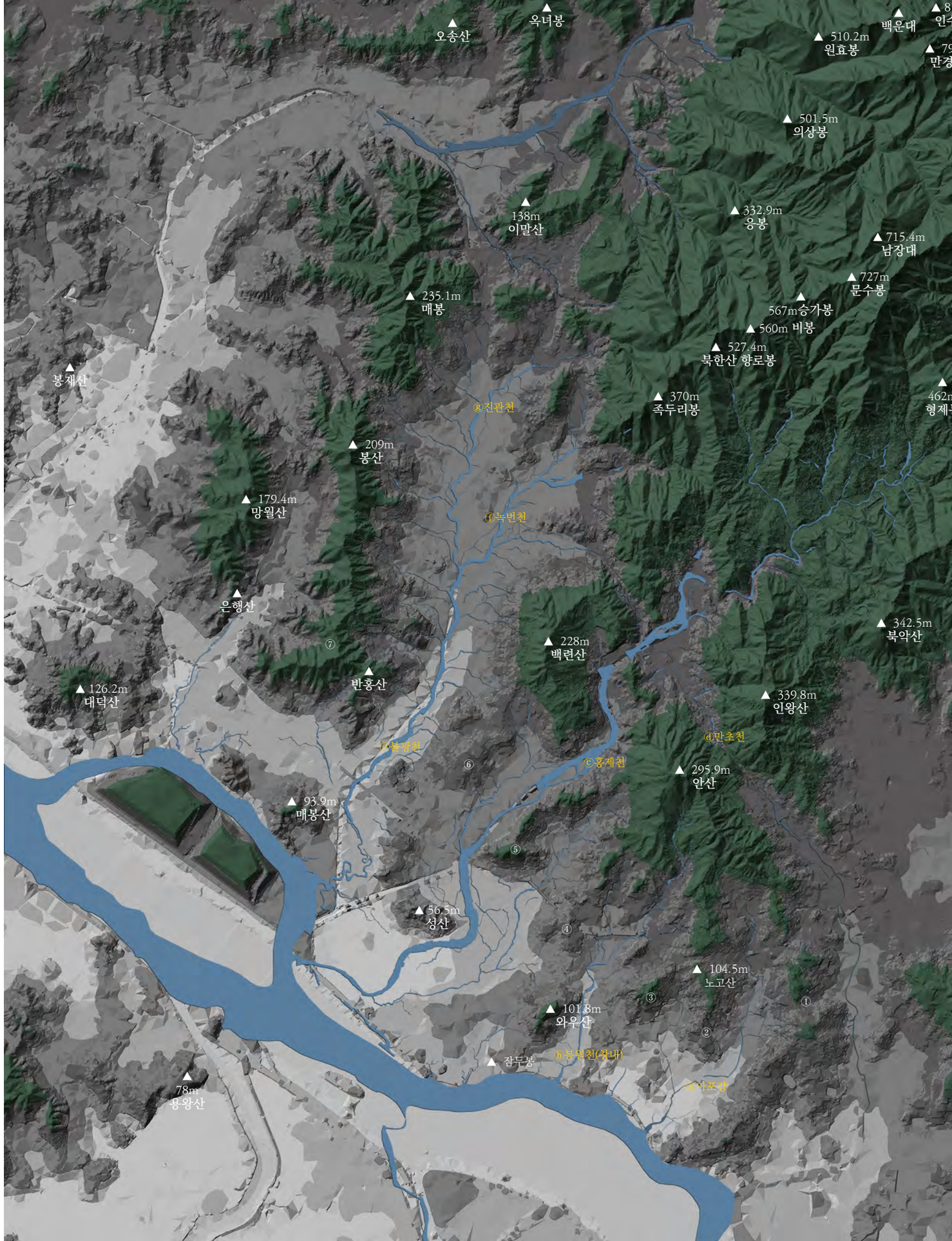
산과 구릉

서북권역은 한북산맥의 서쪽 변두리에 위치한 북한산에서 갈라진 높고 낮은 산들이 남쪽의 한강연안까지 뻗어나가며 다양한 땅의 굴곡을 만든다.
북한산 줄기는 서남으로 뻗어 인왕산과 안산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안산은 다시 다섯 갈래로 갈라지고 백련산줄기와 이말산 ~ 반홍산줄기까지 총 일곱개의 산줄기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 갈래는 가장 동측의 용산구와 경계를 이루는 용산구릉산맥으로 안산에서 아현고개, 만리재, 마포까지 이어져 한강과 맞닿는다. 두 번째는 안산에서 이화여대 동쪽의 구릉산지로 아현동에서 염리동, 용강동까지 연결된다. 세 번째는 이화여대 동쪽의 구릉산지이고, 네 번째는 연세대 서쪽의 구릉으로 아현시장에서 신촌으로 넘어가는 고개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모래내 즉, 사천의 동측과 서측의 구릉으로 백련산과 안산줄기가 만들어내는 좁은 협곡을 사이에 둔다. 이 여섯 번째 구릉은 서대문구의 경계가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는 서울특별시의 가장 서쪽 끝 경계이자, 은평구의 경계이기도 한 북한산에서 노고산, 매봉, 봉산, 반홍산을 잇는 구릉산지다.

① 용산구와의 경계를 이루는 아현고개, 만리재, 공덕 언덕, 마포동 동쪽 언덕의 용산구릉산맥
② 안산 ~ 이화여대 동쪽 구릉산지 ~ 아현2동 ~ 염리동 ~ 용강동에 이르는 용강구릉지
③ 이화여대 동부 구릉산지
④ 연세대 서쪽 구릉산지(아현시장에서 신촌으로 넘어가는 고개)
⑤ 백련산 ~ 사천(모래내) ~ 성산 ~ 망원정 언덕에 연속되는 구릉산지
⑥ 백련산 ~ 사천 서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산지
⑦ 서울특별시의 경계이자 은평구의 서쪽 경계인 북한산 ~ 이말산 ~ 매봉~ 봉산 ~ 반홍산을 잇는 구릉산지

물길

서북권역의 대표적 하천으로 홍제천과 불광천이 있고, 그밖에 상당 부분 복개되어 사라졌거나 일부 구간만 남은 만초천, 마포강, 봉원천, 녹번천이 있다. 천은 기본적으로 지형이 만들어내는 공간 중 가장 낮은 부분을 흐른다. 따라서 천을 중심으로 평탄지가 형성되며, 주로 그 주변부를 기점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간다.


오송산
옥녀봉
백운대
510.2m
원효봉
501.5m
의상봉
138m
이말산
332.9m
응봉
715.4m
남장대
727m
문수봉
235.1m
매봉
567m승가봉
560m 비봉
527.4m
북한산 향로봉
봉재산
370m
족두리봉
ⓑ진관천
209m
봉산
179.4m
망월산
ⓕ녹번천
은행산
342.5m
북악산
228m
백련산
반홍산
126.2m
대덕산
339.8m
인왕산
ⓓ만초천
ⓔ불광천
ⓒ홍제천
295.9m
안산
93.9m
매봉산
56.5m
성산
104.5m
노고산
101.8m
와우산
잠두봉
ⓐ봉원천(창내)
78m
용왕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홍제천은 북한산에서 발원하여 홍제동과 홍은동을 굽이쳐 흘러 내려오다가 백련산을 끼고돌아 성산을 넘어 한강으로 유입된다. 홍제천은 성산 일대에서 사천이라고 불리며 성산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불광천 역시 북한산에서부터 발원하여 은평구를 가로질러 흐르다가 은평구 수색동과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경계를 이룬다.

ⓐ 마포강_용산구릉산맥과 용강구릉 사이

마포강은 마포동, 토정동 연안을 흐르는 한강을 마포강이라 불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안산의 동남쪽 산록(중앙여고 북쪽) 150m 산지 계곡에서 발원하여 ~ 한성중·고교(50m) ~ 아현재(30m) ~ 공덕동(20m) ~ 용강동(15m)에서 토정천을 합류하고 ~ 마포동 하구에서 한강 본류와 합류한다.[1] 전체 길이는 약 3,500m다.

ⓑ 봉원천_노고산 구릉산지와 와우산 구릉산맥 사이

봉원천은 안산 남쪽 고도 120m의 봉원사 계곡에서 시류하여 신촌로터리를 거쳐 창전동을 지나 신정동에서 한강과 합류하는 약 4,000m 길이의 작은 하천이다. 강 이름은 창내, 찬천, 녹계천이라고 불렀으나 봉원사 뒷계곡에서 발전한다고 하여 봉원천으로 강 이름이 바뀐 것이다.

ⓒ 홍제천(모래내)_와우산 구릉산맥과 백련산~성산 구릉산지 사이

홍제천은 북한산 남쪽 남장대(716m)의 계곡에서 발원하여 평창동 ~ 홍지동 ~ 홍제동 ~ 성산 1,2동 사이를 지나 망원동에서 서류하면서 한강 본류와 합류한다. 길이는 약 13,000m 정도이며 마포구에서는 가장 긴 한강의 지류이다. 은평구 대조동, 역촌동, 신사동을 끼면서 남류하다가 서대문구 북가좌동과 은평구 수색동의 경계를 이룬다. 홍제천은 홍제동과 홍은동을 지나면서 곡류하다가 백련산 동쪽을 감싸 돌면서 남가좌동에 이르러 한강의 하중도에 해당되는 난지도 형성에 일조하면서 난지도 동쪽에서 한강으로 유입된다. 본래의 지명은 모래내라고 불렀으나, 근년에 와서 홍제동 계곡에서 흐른다 하여 홍제천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홍제천 본류의 복개공사는 1970년대 초반에 하천의 중류부에 해당하는 현재 유진상가 부근을 처음으로 복개하였고, 1977년부터 197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사천교 하류의 복개공사가 이루

1 서울특별시 마포구(1992), 『마포: 어제와 오늘, 내일』, 57쪽.

어졌다. 본래 홍제천은 자연적인 둑의 형성과 함께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에 따라 흘러내려가는 물길로 뱀이 기어가는 형태를 띤다 하여 사행천이라 했다. 하지만 홍수가 발생할 경우 물의 흐름이 빨라져 한강으로 합류가 급속히 이루어짐에 따라 복개 및 직간공사가 실시되어 오늘의 형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 만초천(욱천)_안산과 인왕산 사이

만초천은 1967년부터 모두 복개되어 현재는 하천의 기능을 모두 상실했다. 서대문구 현저동 무악재 부근에서부터 남쪽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하여 서대문 사거리를 거쳐 서울역, 청파로, 원효로를 따라 원효대교 지점에서 한강과 합류하던 물줄기로 옛날 천 주변에 만초가 무성하였다 하여 붙여진 것이다.[2] 이 하천은 욱천이라고도 부르는데,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며, 『동국여지비고』에는 만초천으로 기록되어있다.[3]

ⓔ 불광천_백련산~성산 구릉산지와 봉산 구릉산지 사이

북한산 서부에서 발원하여 박석고개 ~ 불광동 ~ 역촌동 ~ 신사동 ~ 북가좌동 ~ 중동을 거쳐 남으로 흐르다가 하류에서 곡류하면서 난지도 샛강에 합류하는 총길이 약 9,000m의 지류다. 불광천은 1953년판 시세일람에 의하면 이미 64.5%가 개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1955년판 시세일람에는 78.5%에 이르는 구간이 개수되는 등 일찍부터 다양하고 활발한 공사가 시행되었다.

ⓕ 녹번천

녹번천은 불광천의 제1지류이자 홍제천의 제2지류로 은평구 역촌동 신사오거리에서 불광천과 합류한다. 1980년대 대부분 복개된 녹번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 진관천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서쪽에서 발원하여 은평 뉴타운을 관통한다. 진관천은 1979년 복개되었다가 2006년 복개공사에 착수하여 은평 뉴타운의 완공과 함께 복원된 상태다.

---

2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지명사전, https://history.seoul.go.kr/nuri/etc/sub_page.php?pidx=146579435936

3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2000), 『서울의 하천』, 275쪽.

서울특별시 마포구(1992), 『마포: 어제와 오늘, 내일』, 243쪽.

2 옛 마을공간

조선시대 한성부는 5부(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와 52방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었고, 그중 서북권역은 서부 반송방, 반석방과 북부 성외의 상평방 ,연은방, 연희방 지역에 해당되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되어 10월 1일 한성부의 명칭을 경성부로 개칭하고 다음 해인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경성부를 5부 8면제로 정하면서[1] 서부의 반석방과 반송방, 연희방을 편제한 연희면과 연은방과 상평방을 합한 은평면이 되었다. 1914년 4월 1일 3년 만에 5부 8면제는 폐지되고, 경성부의 행정구역을 축소하여 확정하면서 성외 지역에 있던 대부분은 경기도 고양군이 된다.

서대문역 일대 의주로(현 통일로)를 중심으로 좌측의 서대문구의 경계선이 되는 구역은 경성부 서부 냉동, 천연동, 미근동에 속했고, 현재 마포구의 도화동 일대인 마포대로의 남동쪽의 구릉일대는 경성부 용산면 도화동, 마포동이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앞선 행정구역 편제에 따라 모두 경기도에 속했는데,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중 현재 여의도에 속하는 여율리를 제외한 전부와 고양군 연희면 전부, 종로구에 속한 평창리, 신영리, 홍지리, 부암리, 구기리를 제외한 은평면의 나머지, 고양군 신도면 일부인 진관내리와 진관외리가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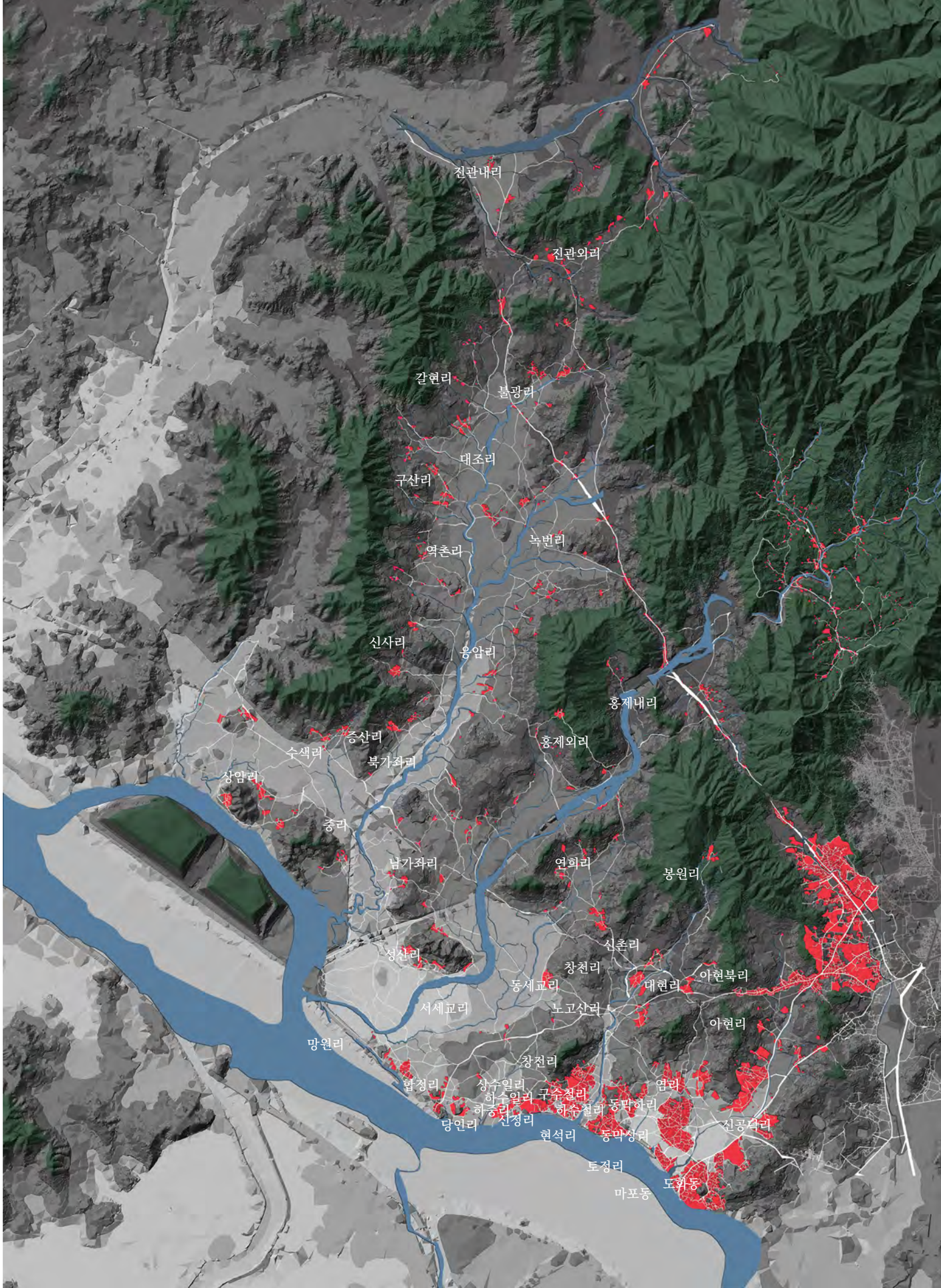
〈표〉 20세기 초 서북권역의 범위 및 규모

	군	부/면	동/리	대지	논	밭	총 필지수
1	경성부	서부	미근동/냉동/천연동				
2		용산면	도화동/마포동				
3	고양군	연희면	남가좌리	27	82	157	214
4			노고산리	27	1	85	124
5			대현리	14	3	127	145
6			동세교리	26	47	57	135
7			망원리	48	70	179	304
8			봉원리	7	3	37	53
9			북가좌리	25	65	110	203
10			상암리	63	186	223	477
11			서세교리	16	116	148	324
12			성산리	65	174	303	571
13			신촌리	17	10	115	147
14			아현북리	221	2	74	301
15			중리	4	51	44	99
16			증산리	26	46	84	156
17			창천리	18	2	88	108
18			합정리	82	29	207	352
19			수색리	47	151	186	394
20			연희리	68	188	265	531

1 이때 성내를 동, 서, 남, 북, 중의 5부로 성외를 용강, 서강, 숭인, 두모, 인창, 은평, 연희, 한지의 8면으로 구획하였다.

서북권역 20세기 초 옛길과 물길, 마을공간

- 물길
- 옛길
- 대지



21	고양군	용강면	공덕리	320	5	125	451
22			구수철리	51	-	49	103
23			당인리	31	8	33	77
24			동막상리	446	-	39	496
25			동막하리	634	2	150	801
26			상수일리	199	3	90	307
27			신공덕리	104	-	44	150
28			신수철리	264	17	157	450
29			신정리	97	-	47	148
30			아현리	409	2	166	593
31			염리	82	1	88	180
32			창전리	308	2	119	436
33			토정리	125	-	8	134
34			하수일리	103	6	48	162
35			하중리	67	-	31	98
36			현석리	191	-	22	215
37		은평면	갈현리	65	118	218	408
38			구기리	87	-	169	265
39			구산리	38	41	130	212
40			녹번리	36	37	107	188
41			대조리	24	35	113	191
42			부암리	141	-	227	376
43			불광리	88	114	294	504
44			신사리	52	83	170	308
45			신영리	97	-	128	250
46			역촌리	35	55	140	241
47			응암리	66	202	282	567
48			평창리	78	14	290	396
49			홍제내리	98	39	190	335
50			홍제외리	59	33	253	392
51			홍지리	47	-	86	136
52		신도면 (신혈면)	진관내리	73	224	264	572
53			진관외리	58	157	256	489

20세기 초 서북권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하고 또 규모가 컸던 지역은 서대문 밖 의주로변의 교남동과 천연동 일대와 마포로 향하는 길목인 아현 일대였다. 도성과 가깝고, 또 지방으로 통하는 주요한 길과 통해 일찍부터 시가지가 형성되기에 자연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으로 시가지가 크게 형성된 곳은 한강변에 인접한 도화 ~ 마포(토정) ~ 서강 ~ 당인리까지 연결되는 일대다. 이 지역은 상당히 일찍부터 시가지가 발달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서강은 서해안 방면에서 들어오는 조운의 종착점으로 황해도·평안도의 양서 지방과 한강 하류의 호남·호서 지방인 전라도와 충청도는 물론 경기도 하류 지방의 조운이 모이는 곳이었다. 한강의 여러 나루터 중 하나였던 마포에는 늘 객주들이 즐비했다. 또 마포는 서해와 뱃길이 연결되어 소금배가 자주 왕래하였는데, 마포나루에 들어온 소금은 대흥동 동막역 부근의 소금창고에 보관되었다고 한다.[2]

조선 후기로 갈수록 마포나루를 드나드는 사공이나 행객들이 늘어나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또 물화들을 위탁 판매하는 객주가 점차 성업을 이루게 되었다. 선박은 물론 창고와 객주까지 보유하게 되어 대표적인 상

2 서울특별시 마포구(1992), 『마포: 어제와 오늘, 내일』, 243쪽.

업 시가지였다.[3] 지적원도의 대지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동막하리 634필지, 동막상리 446필지로 현재 대흥동일대가 가장 가옥이 밀집해있었으며, 아현리 409필지와 공덕리 320필지, 창전리 308필지, 신수철리 264필지 순으로 마을이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표〉 일제강점기 연희, 용강, 은평면 인구수 추이 1916~1930(단위 명)

		1916	1918	1920	1921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연희면	노고산리	431	419	429	434	435	463	452	497	537	475	560	543
	대현리	572	603	603	595	592	496	499	542	785	854	859	1,010
	봉원리	135	147	139	134	128	144	107	108	141	170	153	140
	아현북리	1,222	1,236	1,218	1,307	1,318	1,344	1,488	1,682	2,137	2,582	2,592	2,808
	창천리	548	565	558	525	519	515	554	636	740	841	684	745
	신촌리*	702	385	367	346	325	353	328	364	517	611	543	539
용강면	공덕리	3,216	3,193	3,250	3,320	3,415	4,272	4,311	4,794	5,273	6,784	7,246	7,921
	구수철리	210	219	213	188	199	201	198	198	229	207	274	207
	당인리	427	447	450	406	324	362	359	365	365	339	396	339
	동막상리	2,980	3,052	3,079	3,043	2,994	1,906	1,902	1,894	1,951	2,437	2,249	2,440
	동막하리	2,934	2,966	2,988	2,892	3,223	3,301	3,267	3,301	3,403	4,092	3,954	4,092
	상수일리	838	843	844	846	740	777						
	신공덕리	1,200	1,203	1,199	1,159	1166	1,332	1,368	1,612	1,713	2,974	3,396	2,968
	신수철리	1,473	1,518	1,525	1,546	1487	1,361	1,360	1,373	1,443	1,671	1,697	1,672
	신정리	456	478	480	441	459	321	322	333	342	274	288	274
	아현리	2,398	2,499	2,544	2,487	2,585	2,893	2,903	3,575	3,791	5,862	6,442	6,946
	염리	1,078	1,097	1,093	1,079	1,059	1,022	1,019	1,019	1,019	1,299	1,094	1,294
	창전리	1,460	1,495	1,503	1,424	1,464	1,292	1,275	1,275	1,333	1,460	1,521	1,474
	토정리	717	725	722	744	775	647	655	660	704	603	500	503
	하수일리	635	656	661	643	400	613	609	622	646	1,077	698	1,077
	하중리	386	480	485	420	332	332	295	329	356	297	200	294
	현석리	1,270	1,345	1,347	1,383	1,385	976	982	984	1,022	1,318	996	1,291
은평면	부암리	680	732	705	654	689	734	956	815	546	824	783	854
	홍제내리	439	447	454	481	464	468	515	650	754	864	852	911
	홍지리	273	296	280	247	269	273	251	262	281	299	290	307
	신영리*	430	444	419	390	387	393	452	487	531	514	514	481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2016), 서울사료총서 13『경성도시계획조사서』, 32쪽.

(은평면은 홍제내리, 부암리, 홍지리, 신영리 4개 리만 조사되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1992),『마포: 어제와 오늘, 내일』, 2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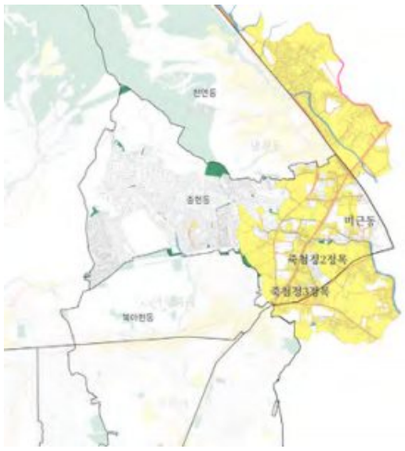
1947


홍제천 (모래내)
모래내)
동세교리
신촌
창천
대현
노고산
노고산
와우산
창전리
봉원천 (창천)
염리
쌍룡산
상수일리
하수일리
동막하리
신수철리
구수철리
공덕
하중리
신정리
현석리
하수철리
신공덕리
효창원
동막상리
토정리
도화동
마포동

· 경성부 서부

서대문구 충현동

충현동은 서대문구의 행정동으로서 법정동인 충정로 2가, 3가와 합동, 미근동, 북아현동 일부가 속한다.



· 죽첨정2정목竹添町2町目 _충정로2가

죽첨정2정목은 현 서대문구 충정로2가의 일제강점기 명칭이다. 충정로는 가로명으로서 서대문로터리에서 아현삼거리까지를 뜻하는데, 구역을 나눠 동명이 붙여진 것은 일제강점기 때의 일이다. 죽첨정은 1884년 갑신정변 때 일본공사의 성을 따서 붙인 것이었으나, 광복 직후 1946년 10월 1일 조선 말 민영환의 시호인 충정공을 붙여 충정로 1, 2, 3가로 개명하였다. 조선시대에도 이 지역은 서대문을 나서서 의주로를 통해 중국으로 가거나 양화진으로 가기 위해 통해야 했던 곳으로 교통의 요지 중 하나였다. 특히 서대문로터리는 현 적십자병원이 조선시대 경기감영이었고, 그 옆에 여행자를 위한 역마를 빌려주는 6개의 우관이 있었다.

· 죽첨정3정목竹添町3町目 _충정로3가

죽첨정3정목은 현 서대문구 충정로3가의 일제강점기 명칭이다. 이곳의 옛 지명에도 미나리골이 포함되어 있어 충정로2가와 같이 미나리를 기르던 곳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1] 충정로 2가와 3가에 걸쳐있던 애오개(아현阿峴)라는 고개가 있는데, 아현은 고개가 매우 높아서 '애고 애고' 하면서 넘었다 하여 애고개라 부르던 것이 애오개가 되었다는 설이 있다. 이것은 어미산 아래 아이고개라는 풍수와도 연관되기도 한다. 이 동에 있는 또 다른 자연촌락 명칭인 차자리車子里는 애오개 마루턱에 있는데, 이 명칭은 조선 중기 선조 때 문장가인 오산五山 차천계車天啓가 살았기 때문에 붙여졌다 한다. 충정로3가 남쪽의 서소문로에는 지하철2호선의 충정로역이 있고, 충정로와 서소문로가 만나 신촌과 마포로 뻗어 나가는 아현교차로와 연결된다.

· 미근동漢芹洞 _미근동

미근동은 미동尾洞 또는 미정동尾井洞이라는 마을 이름의 '미尾'자와 미나리 밭이 있던 근동芹洞이라는 마을 이름의 '근芹'자를 합한 것인데, 일제가 '미尾'를 물결무늬 '미渼'로 바꿔서 제정하여 오늘에 이른다. 이곳은 한성부 서부의 반송방에 속했다가, 1914년 한성부 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경성부동이라고 정하고, 경기도 고시 제32호에 의해 1936년 4월 1일 미근정으로 고쳤다. 1943년 6월 10일 구제도가 실시되면서 서대문구 미근정이 되고, 서대문구역소가 설치되면서 이곳에 소속되었다.

조선시대 미근동을 구성했던 초리우물골 미동과 미나리골 근동은 현재 경찰청 건물 뒤쪽에 물이 많이 나와 넘쳐흘러 우물의 꼬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초리우물, 한자명으로 미정이라 한데서 유래된 것이다. 이곳의 물은 질이 좋고 물맛이 달아서 물들이기에 적합함으로 우물 부근에 물들이는 집이 많이 있었다고 전한다. 그래서 이 우물의 주변마을을 초리우물골, 미정동이라 하였다. 미나리골 근동은 이 일대가 미나리밭이었기 때문에 생겨난 이름이다. 미나리밭은 굉장히 넓게 퍼져 있어 충정로 2, 3가에서부터 미근동, 의주로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미근동은 인가가 많고 사람의 왕래가 잦아 소의문 밖 장시가 이곳까지 뻗쳐 시장이 생겨났다고 전해진다.

서대문구 천연동

천연동은 서대문구의 행정동으로서 법정동인 냉천동, 천연동, 옥천동, 영천동, 현저동이 여기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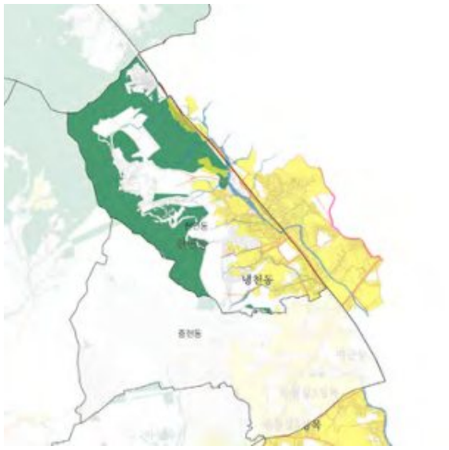
· 천연동天然洞 _천연동

천연동은 동명여자고등학교 자리에 예부터 내려오던 천연정이란 정자가 있던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이곳에는 조선시대 이판당골, 돌다리골의 마을이 있었는데, 금화초등학교 북동쪽 의주로변에 돌다리가 있었던 데서 불린 마을 이름이다. 현 금화초등학교가 자리한 천연동 13번지는 서지라는 큰 연못이 있었다. 서지西池는 천연지라고도 하는데, 조선시대 대표적인 연지蓮池중 하나다. 『한경지략』에 따르면 '서지西池는 돈의문 밖 모화관 옆에 있다. 『여지승람』에 "가뭄이 들었을때 비를 빌면 비가 내렸다."고 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으며[2] 김

1 서울특별시 마포구(1992), 『마포: 어제와 오늘, 내일』, 243쪽.

2 유본예 지음, 박현욱 옮김(2020), 『역주 한경지략: 조선시대 서울의 역사 지리지』, 민속원, 220쪽.

정희의 『완당집』에는 천연정은 무악재를 오가는 관원들을 맞고 전송하던 연회장이었다고 한다. 천연동은 조선시대 한성부 서부 반송방이었고, 갑오개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반송방 지하계 석교동·이판동이라 하였다. 1911년 경성부 서부 이판동·석교동이라 하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경성부 천연동이 되었다.



· 냉동冷洞 _냉천동

냉동은 현 서대문구 냉천동의 대한제국시대 명칭으로 경기대학교 북쪽 지역 부근에 찬 우물이 있어서 냉동 또는 냉정동이라고 했던 것을 일제강점기 때 냉천정으로 하였다가 현재 냉천동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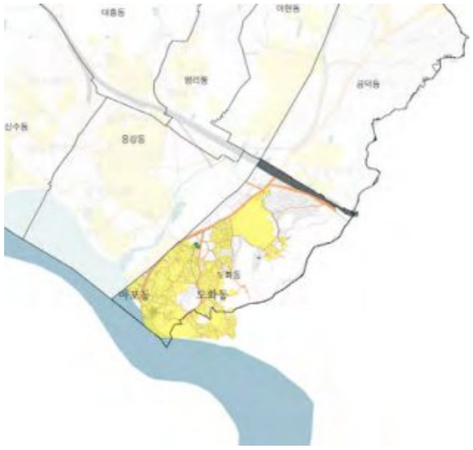
· **경성부 용산면**

마포구 도화동

도화동은 마포구의 행정동 및 법정동이다.

· 도화동桃花洞_도화동

도화동은 이곳에 복숭아나무가 많고 봄철이 되면 복사꽃이 피어 밤섬에서 보면 한강물과 붉은 분홍색의 복숭아꽃이 어우러져 무릉도원처럼 느낄 만큼 경치가 좋으므로 '복사골'이라고 부르던 것을 한자명으로 표기한 데서 유래되었다. 도화동은 지대가 높아 크고 작은 고개가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용산구 새창로로 넘어가는 새창고개와 용산에서 마포로 넘어오는 용산고개가 있다. 도화동은 1751년 만든 『도성삼군분계총록』에 의하면 한성부 서부 용산방 성외 마포계 · 도화동계로 성저십리에 속했고, 1894년 갑오개혁 때 한성부 서서 용산방 성외 도화동계 외동·내동, 마포계였다. 1911년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경성부 용산면 도화내동과 마포로 되었으며, 1914년 용산면 도화동내계, 도화동외계 및 마포계로 경성부 서부로 편입되었고, 1914년 도화내동과 마포 일부를 합해 경성부 도화동이 되었다.



· 마포동麻浦洞_도화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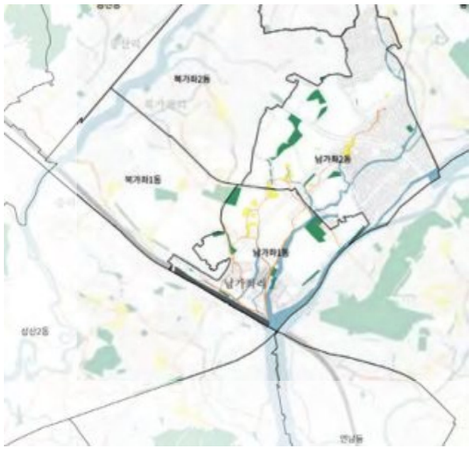
마포동은 우리말인 '삼개'라는 포구 이름을 한자명으로 '마포'라고 한데서 유래되었다. 조선 후기 삼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배가 몰려들었던 최대 항구였는데, 이 삼개라는 말은 서호, 마포, 용호를 삼개(3개의 포구)라고 부르던 것으로 현재는 지금의 마포를 일컫는 말로 통한다. 포구가 남아있을 때 마포 강변은 그 풍치가 아름다웠다고 알려져 있으며 『동국여지승람』에서 표현한 마포 8경은 용산 호수의 안개 속에 비치는 달빛, 마포로 돌아오는 배, 날아오르는 학과 어부의 고기잡이, 율도(밤섬)의 깨끗한 모래, 농암의 저녁연기, 와우산의 피리 소리, 양화진의 낙조, 관악산의 맑은 선비와 문인들이 마포 강변에 정자를 짓고 시를 읊거나 배를 타고 시로 화답하는 것을 이야기한다.[3]

3 마포구청, 마포구지 전자간행물, https://www.mapo.go.kr/site/main/content/mapo04050405, 683쪽

· **고양군 연희면**

서대문구 남가좌제1· 남가좌제2동

남가좌동은 법정동으로 행정동은 남가좌1동과 남가좌2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가좌리南加佐里_남가좌동

남가좌동은 가재울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남가좌동이라 하였다. 이곳에는 가재가 있고 산이 둘러쌌으므로 가재울이라고 하던 것이 한자음으로 가좌리라고 칭해진 것이다. 이곳에는 망원정계의 장막이 있어서 군사들의 무예 시험을 하던 곳이 있었다고 전한다.
조선시대 한성부 북부 연희방 가좌동1계 가좌동·망원정계 월사동에 속하였다가 1911년 경성부 연희면 가좌동 1계 월사동이라고 하였다. 1914년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남가좌리로 변경되었고, 1936년 남가좌리의 홍제천 좌측 지역만 경성부에 편입되었다가 1949년 나머지 부분이 서울에 편입되어 서대문구 남가좌동이 되었다.

서대문구 북가좌제1· 북가좌제2동

북가좌동은 행정동인 북가좌제1동과 북가좌제2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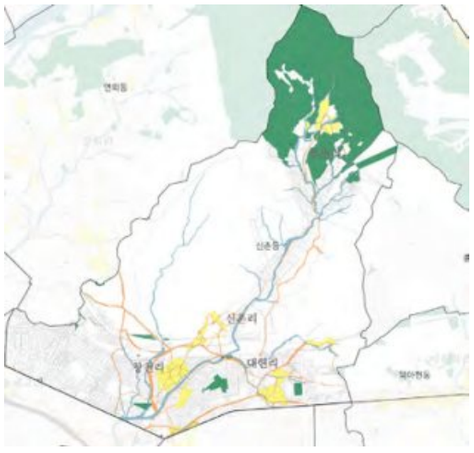
·북가좌리北加佐里_북가좌동

북가좌동은 가재울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제정된 명칭으로 가재울이란 마을은 이계말이라고도 불렸다.



서대문구 신촌동

신촌동은 대현동, 대신동, 신촌동, 봉원동, 창천동 5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된 행정동이다.



·대현리大峴里_대현동

대현동은 아현동에서 신촌으로 넘어가는 큰 고개라는 뜻으로 대현大峴이라 하던 것이 동명이 되었다. 대현동은 1936년 경성부 행정구역 확장 때 경성부로 편입되었다. 이곳에는 망건당굴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옛날 망건, 당줄, 감투를 만드는 집이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신촌리新村里_신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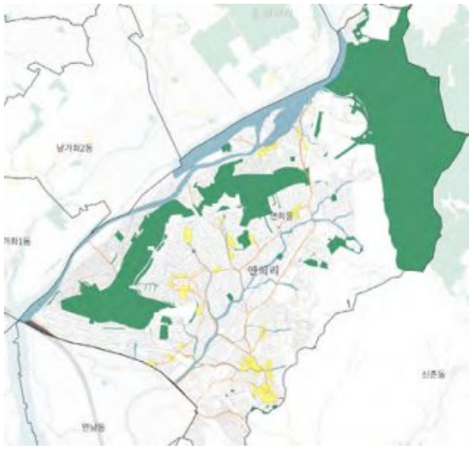
신촌동은 이곳을 새터말, 신촌리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다. 조선시대 이곳은 한성부 연희방 성외 아현 2계 신촌지역이었던 것이 1911년 경성부 연희면 신촌리가 되었다가 1914년 경성부 관할구역의 축소로 경기도 고양

군 연희면 신촌리가 되었다.
신촌동은 조선왕조를 세운 태종 이방원이 개경 대신 도읍터를 새로 정하려고 물색할 때 명당이라 하여 답사까지 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1918년 연세대학교가 들어서기 전에 이곳은 대꿀, 대얏굴이라 하였는데 이곳은 원래 조선 초 연희궁이 있던 곳으로 설명되고 있다.[4]

·봉원리奉元里_봉원동
봉원동은 봉원사라는 명칭에서 연유되어 제정된 명칭이다. 봉원사(봉원동 23번지)는 새절이라고 하는데, 신라 말기 진성여왕 3년인 889년에 처음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지금의 연세대학교 자리인 연희궁 터에 있었는데 영조 24년인 1748년에 지금의 터로 이전하였다고 한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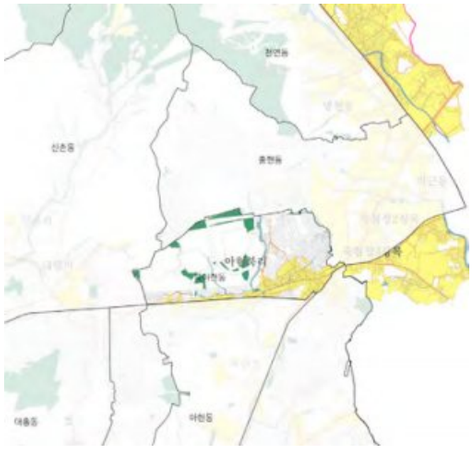
·창천리滄川里_창천동
창천동은 안산 서남쪽에서 흐르는 개울이 이곳을 거쳐 광흥창 앞을 지나 서강으로 흘러가는 창내, 즉 창천의 명칭을 따라 동명이 정해진 것이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신촌로터리를 잔돌백이라고 했는데, 아현 고개를 넘어오면 이곳에 자잘한 돌이 많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며, 길손들이 왕래하는 거리로 주막이 많아 주막거리라고도 불렸다.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동은 서대문구의 행정동 및 법정동이다.



·연희리延禧里_연희동
연희동은 현재 연세대학교가 있는 연희궁터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곳에는 정자말, 정자동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궁뜰이라고도 불렸다. 그외에도 염동, 염미, 염비, 응달말이라고 불리는 마을들이 있었다. 연희동은 1973년 마포구 동교동, 서교동 일부가 연희동에 편입되었고, 연희동 일부가 마포구에 편입되었으며, 1975년 구·동의 관할구역 조정이 있을 때 경의선 남쪽 일대가 마포구 연남동지역, 성산동 일부에 편입됨으로써 지역이 축소되었다. 이후 1977년 남가좌동 일부가 홍제천을 경계로 이 동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른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북아현동은 서대문구의 행정동 및 법정동이다.



·아현북리阿峴北里_북아현동
북아현동은 일제강점기 아현북리라고 불렸다. 조선시대 한성부 반송방 아현계와 연희방 아현1계 지역이었던 것이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경성부 연희면 아현북리가 되었다. 1914년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아현북리, 1936년 경성부 북아현정, 1943년 서대문구 북아현정이 되었다. 북아현동은 애오개, 아현의 북쪽에 위치한다 하여 구분 지어진 명칭으로, 이곳에는 추계예술고등학교 자리에 애기릉이 있어 그 안쪽 마을을 일컫는 능안(능동陵洞), 걸바위골, 굴레방다리굴, 복주산골, 너븐바위골 등의 마을이 있었다.[6]

마포구 서교동
서교동은 서교동, 동교동, 노고산동의 3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된 행정동이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1992), 『서대문구지』, 710~712쪽.
5 위키백과, 봉원사, https://ko.wikipedia.org/wiki/%EB%B4%89%EC%9B%90%EC%82%AC
6 서울특별시 마포구(1992), 『마포: 어제와 오늘, 내일』, 702~707쪽.



·서세교리西細橋里_서교동

서교동은 서쪽 잔다리를 줄여 부른 데서 유래한다. 잔다리는 지금의 서교동사무소 일대를 일컫는데, 한강으로 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작은 다리가 있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이를 한자로 고친 것이 세교가 되는데, 동서 두 군데 있던 것 중 서쪽의 잔다리라 해서 서교동인 것이다. 이곳에는 도당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곳을 흐르는 개천의 물이 맑고 깨끗해서 사람들이 모여 빨래를 하거나 김장철에는 무나 배추를 씻는 등 허드렛물로 이용했다. 서교동은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한적하고 넓은 들판이어서 각종 채소밭이 펼쳐져 있었고, 양화나루로 가는 길목이었다. 대한제국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비숍 여사가 이 길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올 때 묘사하기를 "길이라고는 하나 가마 두 대가 교행하여도 서로 부딪침이 없을 만큼 넓어서 평원 같았다. 나중에 도성으로 들어간 후 조선의 길이 얼마나 좁은 가를 깨달았지만 양화나루에서 얼마 되지 않은 곳 잔다리라는 곳은 길보다 오히려 광장이라는 표현이 더욱 적합한 곳이었는데…"라고 하였다.

아랫 잔다리 안쪽마을을 안말이라고 하고, 이곳에 밤나무가 많이 자라는 밤동산이 있었으며, 동산이 시루처럼 생겨 시루기봉·시리미, 혹은 증산, 그 아래 동네를 증산마을이라 하였다. 증산마을에는 마을 수호신을 제사 지내던 부군당과 도당에서 사용하던 도당우물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도시화되며 사라졌다.

·동세교리東細橋里_동교동

동교동은 조선시대부터 세교, 즉 잔다리라고 불리던 다리가 있었는데, 잔다리의 동쪽이 좀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윗잔다리라고 불렀고, 이것이 동교동이 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지형이 조금 낮은 곳에 위치한 아래 잔다리는 서교동이 되었다. 조선 후기 이 지역은 세교리·세교동 지역이었는데 1914년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동세교리가 되었고, 1936년 경성부에 편입돼 경성부 동교정이 되었다. 1943년 서대문구 동교정, 1944년 마포구 동교정이 되었으며 1946년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마포구 동교동이 되었다.

·노고산리老姑山里_노고산동

노고산동은 노고산 북쪽 기슭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는 잔돌배기, 주막거리라는 명칭이 일부 남아있는데, 잔돌배기는 한자로 세석리라고도 한다. 서대문쪽에서 아현고개를 넘어오면 평탄하던 길이 갑자기 자갈이 많은 곳으로 변해 자잘한 돌이 많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7] 또한 논 우물, 밭 우물, 약물터, 웃우물 등 물맛이 좋고 찬 우물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마포구 망원제1· 망원제2동

망원동은 마포구에 속한 법정동으로 행정동은 망원제1동과 망원제2동으로 분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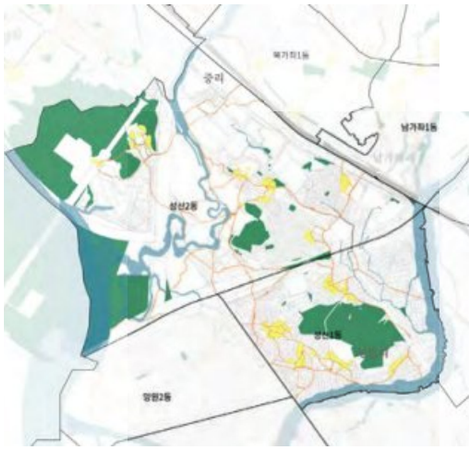
·망원리望遠里_망원동

망원동은 망원정에서 유래된 동명이다. 망원정은 망원동 137번지, 207-1번지 일대 양화나루 서쪽에 있었는데, 효령대군의 별장으로 세종 6년인 1424년 건립된 것이다. 조선 후기 망원정계·월사동·정자동·망원동 등으로 불렸는데, 1914년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망원리가 되었다가 1936년 경성부의 행정구역이 확장될 때 경성부에 속하면서 경성부 망원정이 되었다.

7 마포구청, 마포구지 전자간행물, https://www.mapo.go.kr/site/main/content/mapo04050405, 678쪽

마포구 성산제1· 성산제2동

성산동은 마포구에 속한 법정동으로 행정동은 성산제1동과 성산제2동으로 나뉘며, 중동도 포함되어 있다.



·성산리城山里_성산동

성산동은 부근의 산들이 성처럼 둘러 쌓여있어 우리말로 '성메', '성미'로 부르던 것이 한자로 옮겨진 것이라는 설과 성산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이곳에는 묘꼴 또는 미꿀이라는 마을과 무리울 또는 무이동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골짜기가 깊어서 도둑이 많아 인가가 살지 않았고, 무리를 지지 않으면 행동하기 힘들 만큼 으슥한 곳이어서 언제나 떼를 지어 지나는 곳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전한다. 또한 성산동에는 원마을 끝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해서 새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다.

성산동은 일제강점기 홍제천의 직강공사를 시작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굽어있던 홍제천을 깎아내면서 토지가 정리되었고, 이후 성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택지 정리됨에 따라 현재에 이른다.

·중리中里_중동

중동은 '가운데 마을', '간데말'이라고 부르던 것을 한자로 고친 것이다. 1911년 경성부 연희면 중리동이 되었다가, 1914년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중리가 되었다. 이후 1936년에는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중리가 되었고, 1950년 남가좌동 일부가 편입되면서 중동이 되었으며 한양 조씨가 여기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유리된 것으로 전한다.

마포구 합정동

합정동은 마포구의 행정동 및 법정동이다.



·합정리合井里_합정동

합정동은 '조개우물'로 불리는 우물이 있어 합정동蛤井洞이라는 이름이 생겼는데, 뒤에 합정合井으로 변하였다고 전한다. 조개우물은 지금의 절두산 근방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물바닥에는 조개껍질이 많아서 조개우물로 불렸다.

조선시대에는 한강진에서 시작된 뱃놀이의 마지막 지점이 이곳의 잠두봉 아래 양화나루였다. 그 경치가 수려했으나 조선 후기에 천주교인의 대량 처형 장소로 바뀌며 오늘날 절두산 천주교성지라고 불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처형당하면서 잠두봉은 절두산으로 불리기 시작했다.[8]

마포구 상암동

상암동은 마포구의 행정동 및 법정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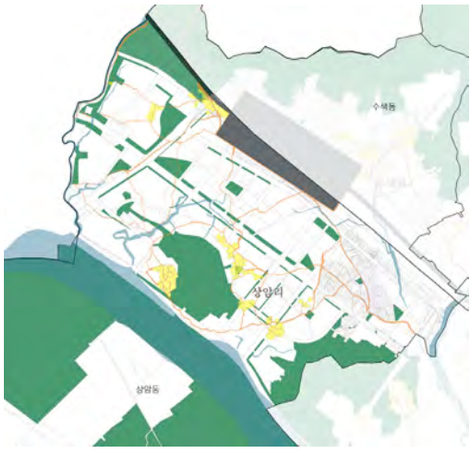
·상암리上岩里_상암동

상암동은 수상리와 휴암리에서 각각 한 글자씩 합쳐서 만든 것이다. 수상리는 154~163번지 일대로, 물치·물위치·수색·수생리라고 하였는데 수색동 앞의 넓은 들 건너 마을을 뜻하던 것이다. 장마 때면 한강물이 이곳까지 불어나 붙여진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휴암리는 부엉 바위골로, 부엉 바위는 부엉이가 울면 밤이 된다는 뜻의 구석말로 가는 걸음도 멈추게 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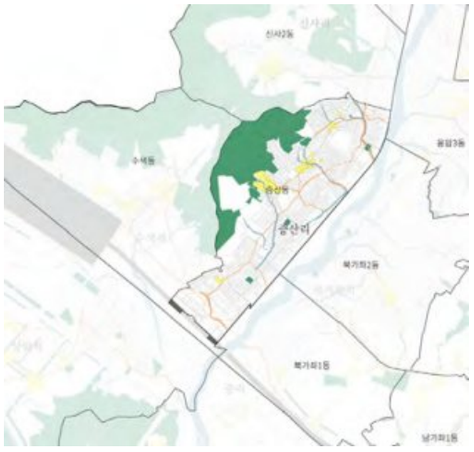
부엉 바위 뒷산은 매봉산이고, 압도·중초도라고 불리는 곳은 난지도인데, 난초와 지초로 이루어진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었다. 갈대숲이 형성되어 있었고, 한강 하류의 충적 평야가 형성되어 전답으로 이용되다가 1977년 제

8 마포구청, 마포구지 전자간행물, https://www.mapo.go.kr/site/main/content/mapo04050405, 702쪽

방을 축조하고 이곳을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들어 서울 시내 쓰레기를 매립하였다.[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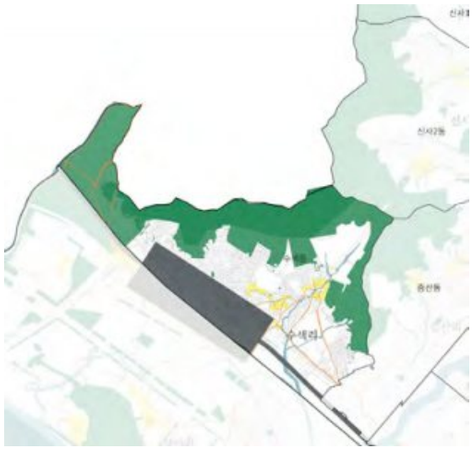
은평구 증산동
증산동은 은평구의 행정동 및 법정동이다.



·증산리甑山里_증산동
증산리는 증산동이 1911년부터 1950년까지 불리던 명칭이다. 증산甑山은 원래 뒷산 반홍산 모양이 시루를 엎어 놓은 모양 같다 하여 '시루 증甑'을 썼던 것이라 한다. 또 한편으로는 옛날 한강 하류에 제방둑이 없어서 장마철만 되면 마을이 물에 잠겼는데, 비가 그치면 물이 일시에 빠져나가 마치 시루를 닮은 듯하다고 해서 '시루메'라고 불리던 것에서 동명이 유래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비단 증繒'으로 바뀐 연유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으나 이 마을 사람들이 시루는 밑이 뚫려 있어 재물이 모이지 않고 항상 가난하게 살게 된다 하여 나라에 이름을 고쳐달라 하여 갑오개혁 당시 바꾼 것으로 전해 내려 오고만 있다.[10]

은평구 수색동
수색동은 은평구의 행정동 및 법정동이다.



·수색리水色里_수색동
수색리는 수색동의 1914년부터 1950년까지의 명칭이다. 수색水色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지만, 실제 이 지역이 한강 하류에 위치해 장마철마다 물에 잠겨 물이 차오른다는 의미를 가진 '물치', '무르치'라는 우리말이 생겼고, 온 동네가 물빛으로 변한다 하여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수색리 또는 수생리라는 유래가 있다. 옛 마을로는 서남쪽의 구룡곶이, 달반재, 동막굴, 벌말, 새말, 안양굴, 피란굴, 자월말 등이 있다.

· 고양군 용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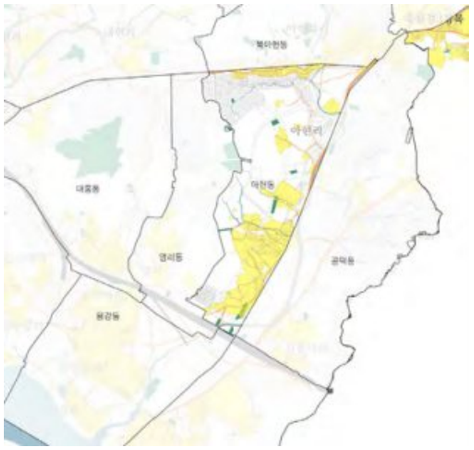
마포구 아현동
아현동은 마포구의 행정동 및 법정동이다. 1955년에는 1, 2, 3, 4개의 행정동으로 분리되었으나 1970년 아현4동이 폐지되고 2007년 2, 3동이 아현2동으로 통합되었으며, 2008년 아현2동과 공덕2동을 통합하였다.

·아현리阿峴里_아현동
아현동은 아이고개 또는 애고개라 부르던 고개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조선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성

9 마포구청, 마포구지 전자간행물, https://www.mapo.go.kr/site/main/content/mapo04050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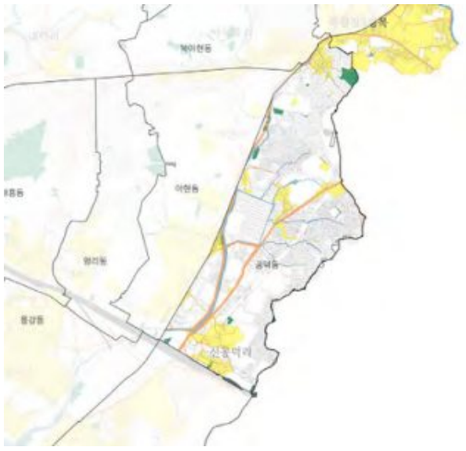
10 서울역사편찬원(2021), 『서울 동의 역사(은평구)』4, 177~181쪽.

밖으로 갖다 버리는 데 사용하던 2개의 문이 있었는데 서소문과 광희문이었다. 서소문은 서북쪽 지역의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던 시구문으로 시체는 주로 만래재와 애고개·와우산등에 매장하였다. 아현동에는 우물도 많았는데, 말똥우물, 삼태우물, 파마우물, 쌍우물, 까치물, 너럭바우샘, 호박밭 약물터, 회나무우물 등 다양했다. 아현동에는 활인서가 있었는데, 현 아현중·고등학교, 아현직업고등학교, 아현초등학교 자리다.



마포구 공덕동

공덕동은 마포구의 행정동 및 법정동이다.



·공덕리孔德里_공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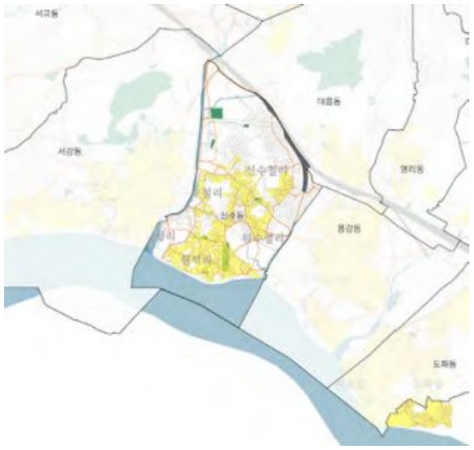
공덕동이라는 동리명의 유래는 우리말의 큰 언덕이 옮겨진 것으로 보는 설이 있는데, 만리현·아현·대현 고갯마루에서 서남쪽으로 펼쳐진 언덕길 지대를 큰 언덕, 큰 더기, 큰덕으로 칭하던 것을 한자음이 비슷한 공덕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지만 확실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11] 공덕동에는 한정이라는 큰 우물이 있어 인근 사람들이 다 마실 수 있을 만큼 수량이 풍부했고, 마을제사나 행사때는 물론 이웃지역에서도 사용했다. 또한 이곳에는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아소정我笑亭이라는 별장이 있었으나 현재는 표석만 남아있다.

·신공덕리新孔德里_공덕동

신공덕동은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야산으로 과실나무와 채소 재배지로 사람이 살던 지역은 아니었다고 한다. 이곳에 사람들이 밀집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로 추정하는데 일본군인이 횡행하는 도성 안의 분위기를 피해 정착한 곳이라 하여 이때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고 마을이 형성되어 신촌 또는 새말이라고 불렀다. 이곳은 1936년 경성부의 관할구역이 확장됨에 따라 경성부에 편입되었다.

마포구 신수동

신수동은 마포구의 행정동 및 법정동이다. 신수동에는 신수동, 현석동, 구수동 3개의 법정동이 있었으나 2007년 대흥동 일부와 신정동이 편입되었다.



·신수철리新水鐵里

신수동의 원래 지명은 신수철리라는 마을이다. 신수철리는 '새 수철리'라는 뜻인데 원래 수철은 무쇠를 뜻한다. 조선시대 이곳 일대에 무쇠솥과 농기구를 제조하던 공장이 많았다고 한다. 비슷한 명칭으로 솥이나 농기구를 만드는 주물 틀의 우리말로 바탕이라는 지명을 사용해 바탕 거리가 있었다.

11 마포구청, 마포구지 전자간행물, https://www.mapo.go.kr/site/main/content/mapo04050405, 675쪽

·구수철리舊水鐵里_구수동

구수동은 조선시대부터 경성부에 편입되던 1936년까지 구수철리라고 불리던 것을 구수정이라고 하고, 광복 후 구수동으로 개정한 것이다. 구수동은 신수동과 인접해 있는데 그 경계는 붉은 고개, 홍현紅峴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현석리玄石里_현석동

현석동은 이곳에 검은 돌이 많이 생산된다 하여 현석리라고 불리던 것에서 유래한다. 현석리는 1895년에서부터 1936년까지 명칭으로 1936년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현석정이 되었고, 서대문구 현석정이 되었다가 마포구 현석정에서 지금의 마포구 현석동이 된 것이다.

·신정리新井里_신정동

신정동은 이곳에 새 우물이 있어 신정리라 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곳에는 서강나루를 통해 들어오는 선박의 세금을 받던 관청인 공세供稅가 있었으나 강변도로 개설로 사라졌고, 신정동 77-1번지에는 사도세자의 사당이 있었는데 이 또한 강변도로 건설로 사라졌다.

마포구 용강동

용강동은 마포구의 행정동 및 법정동이다. 용강동, 토정동과 마포동, 도화동, 대흥동, 염리동의 법정동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



·토정리土亭里_토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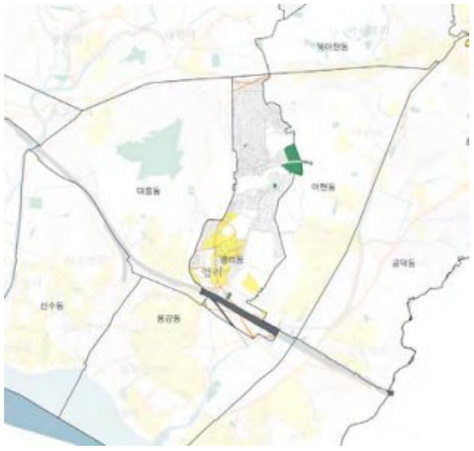
토정동은 『토정비결』로 유명한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이 흙으로 정자를 짓고 살았다 하여 동명이 유래되었다. 하지만 그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고 마포유수지 근방이었다는 것만 전해지고 있으며 문헌상 웃토정과 마포동의 아랫토정이라는 지명을 통해 유추할 뿐이다. 이곳은 한성부 서부 용산방 성외 토정리계였는데, 갑오개혁 때 한성부 서서 용산방 성외 토정리계가 되었다. 1911년 고양군 용강면 토정리가 되었다가, 1936년 경성부에 편입되었으며 용산출장소 관할구역이 되었다. 1943년 용산구 토정동이 되었다가 1944년 신설된 마포구 관할이 되었다.

·동막상리東幕上里

동막상리는 현 마포구 용강동이 1914년에서 1936년까지 경기도 고양군에 속했을 때 명칭이다. 용강은 마포강이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 곳이라 한 데서 연유한다고 전하는데, 이 용강동을 이루고 있는 마을인 동막리는 옹기를 제조하던 곳이 많았기 때문에 옹리라 하던 것을 동이를 만드는 곳이라는 뜻에서 동막으로 바뀐 것이라 한다. 옹이는 젓갈이나 김장을 위한 그릇뿐 아니라 술그릇으로도 사용되던 것이다. 1936년 경성부에 편입되면서 경성부 용강정이 되었고, 1943년 서대문구 용강정이 되었다가 1944년 마포구가 신설되면서 마포구 용강정이 되었다.

마포구 염리동

염리동은 마포구의 행정동 및 법정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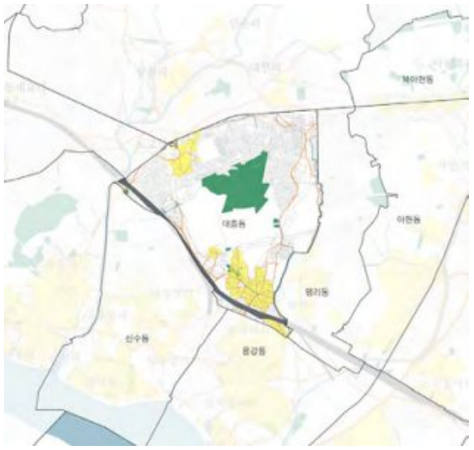


·염리 / 염동鹽洞

염리동은 소금과 관련된 곳이다. 동막역 부근에 소금창고가 있어 이와 가까운 곳에 소금장수들이 많이 살았다 해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소금장수들은 옹이항아리에 소금을 담고 나루에서 생선과 서로 맞바꾸었다고 한다. 염리동에는 느티나무배기·쌍룡대·개바위·공기바위·마루보시사택·고추밭머리 마을 등이 있었다. 또한 흥선대원군의 별장인 아소정이 있었는데, 아소정은 규모가 99간으로 1893년부터 대원군이 거주하였으며 1902년 대원군이 세상을 떠나자 산소로 쓰고 국태 공원이라 하였다.

마포구 대흥동

대흥동은 마포구의 행정동으로 대흥동과 노고산동 일부, 신수동 일부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막하리東幕下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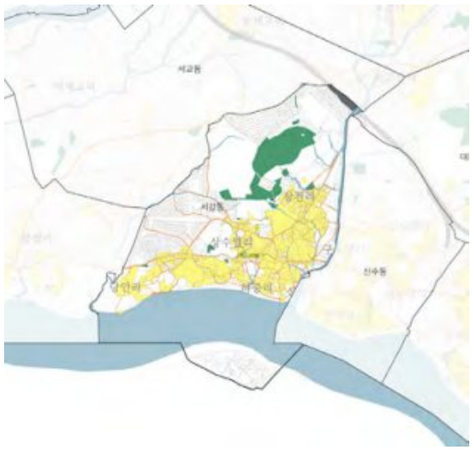
동막하리는 현 마포구 대흥동의 1914년에서 1936년까지 경기도 고양군에 속하였을 때의 명칭이다. 동막 지명은 옹기를 제조하던 곳이 많아서 옹리라 하던 곳을 한자명으로 동막하리로 잘못 표기한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1914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동막하리가 되었다가 1936년 경성부의 구역확장시 경성부 대흥정이 되었다.

마포구 서강동

서강동은 마포구의 행정동이다. 서강동에는 창전동, 당인동, 하중동, 상수동의 법정동이 포함되어 있다.

·상수일리上水溢里_상수동

상수동은 조선시대 상수일리라고 불렸는데, 강가 위쪽 마을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강가 아래쪽 마을은 하수동이라 불렸다. 상수동은 1910년 이전 도성민의 시체 처리 장소였다가, 일본인이 거류하면서 일본인 공동묘지로 바뀌었으며 1957년 서교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현재의 주거지가 조성된 것이다. 또 상수동에는 당우물 또는 활터께 우물이라고 불리는 공동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서강의 3대 우물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하고, 수량이 풍부하며 물맛도 좋았다고 전해진다. 상수동은 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자와 별장이 있었으나 6.25 전쟁과 도시화로 거의 소실된 상태다.



·창전리倉前里_창전동

창전동의 명칭은 '창고 앞'이라는 데서 유래되었다. 즉 광흥창의 앞 동네라는 뜻으로 『대동지지』에 따르면 창천滄川은 무악 서남쪽에 근원을 두고 남쪽으로 흘러서 와우산 광흥창 앞을 지나 한강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이때 창천이 마포나루까지 운반한 삼남지방의 세공을 창고까지 운반할 수 있는 운하 역할을 해주었다. 광흥창은 경기와 삼남지방에서 바친 공미를 쌓아두었다가 여러 관리들의 녹봉을 관장하던 관아인데, 조선초에 설치한 것이다. 광흥창 주변에는 대창이라고 불리던 마을이 있었는데, 녹봉 관리를 위한 광흥창 관리들과 호조의 파견 관리는 물론 가족까지 함께 살던 곳이었다.[12]

·하수일리下水溢里_하수동

하수일리는 마포구 하수동의 1895년에서 1936년까지 명칭이었다. 1936년 경성부에 편입되어 경성부 하수일정이 되었다가, 1943년 서대문구 하수일정, 1944년 마포구 하수일정이 되었다.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의 우리말 개정 원칙에 따라 마포구 상수동·하수동으로 되었다. 1989년 6월 1일 마포구 조례 제84호로 동명칭 개정 및 구역조정에 의해 하수동을 상수동으로 편입·변경시킴에 따라 상수동은 하수동까지 포함하게 된다.

·당인리唐人里_당인동

당인동은 조선시대부터 당인리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것은 원래 '댕말'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댕말은 댕기마을, 혹은 당인마을이라는 뜻인데, 당은 중국의 당唐과 한자가 같고, 중국사람이 거주하던

12 마포구청, 마포구지 전자간행물, https://www.mapo.go.kr/site/main/content/mapo04050405, 698쪽

마을이라는 뜻으로 보인다.[13] 당인동은 1751년 만들어진 『도성삼군문분계총록』에서 한성부 영역 안에 들어가 있으며, 한성부 서부 서강방의 당인리계였다. 이후 갑오개혁 때 한성부 서서 서강방 당인리계가 되었다가 1911년 경성부 서강면 당인리계가 되었다. 1914년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당인리가 되고, 1936년 경성부의 관할구역이 확장될 때 경성부 당인정이 되었다.[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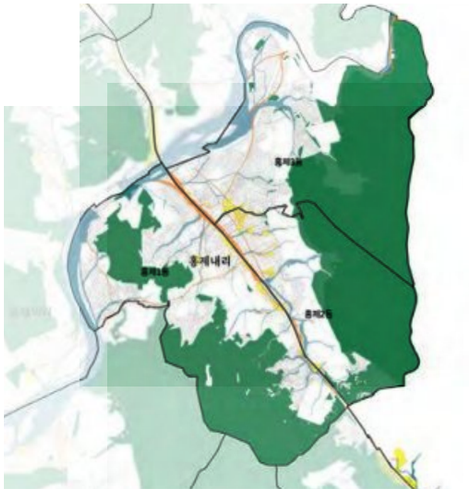
·하중리賀中里_하중동

하중동은 고종 3년(1866) 병인박해 이후 프랑스 함대가 마포강 앞까지 들어와 수심을 측량하며 주변 정세를 파악해 간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중동은 오래도록 발전되기 어려운 취약한 지형환경을 갖고 있었는데, 한강이 이곳에 오면 비교적 물살이 세고 급하게 흘렀고, 또 수심도 깊어 어류가 서식하지 못하였으며, 강물 범람이 잦아 그 피해가 심하던 곳이기도 했다.

고양군 은평면

서대문구 홍제1,2,3동

홍제동은 서대문의 법정동으로, 홍제1,2,3동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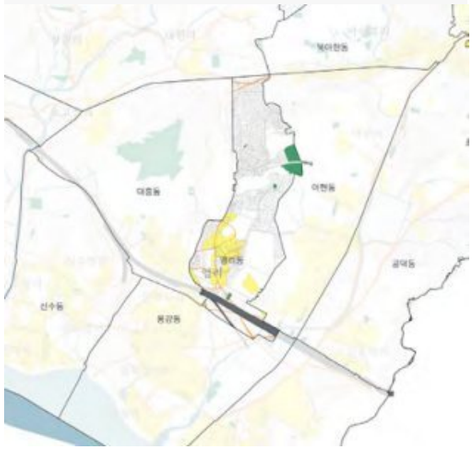


·홍제내리弘濟內里_홍제동

홍제동은 조선시대 이곳에 홍제원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홍제원은 『동국여지승람』에 '무악재 북쪽에 있었는데 고려 성종 3년(984)에 중정현이 지은 것이다. 누각이 있어서 중국 사신이 서울로 올 때 예복을 갈아입던 곳이었는데, 폐지되고 조선 중기 청나라 사신이 유숙하는 곳으로 삼았다'라고 적혀있다. 홍제원弘濟院은 지금의 클 홍弘이아닌 넓을 홍洪을 써서 홍제원洪濟院이라고 적었으며, 여행자들에게 침소를 제공해주고 병자에게는 약을 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조선 초에는 도성 안에 색주가를 허가하지 않았으나 세종 때 처음으로 홍제원에 색주가촌을 두게 했다고 전해진다. 홍제원에 색주가가 생긴 뒤로 술을 못 마시는 행인에게 떡을 팔려는 떡집이 생겨나면서 인절미가 유명해졌다.

서대문구 홍은1,2동

홍은동은 서대문구의 법정동이다. 홍은동은 홍은 1,2,3,4동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80년에 홍은4동이 홍은2동에 편입되었으며, 2008년 홍은2동과 홍은1동이 합해져 홍은1동이 되었고, 홍은3동이었던 지역이 홍은2동이 되었다.



·홍제외리弘濟外里_홍은동

홍제외리는 1936년 경성부 관할구역 확장 때 홍제외리 중 홍제천 좌측만 경성부에 편입되었다가, 그 나머지가 1949년 편입되면서, 이때 홍제외리가 홍은동으로 개칭된 것이다. 이곳에는 논굴, 백련삿굴 등의 마을이 있었다.

은평구 응암1,2,3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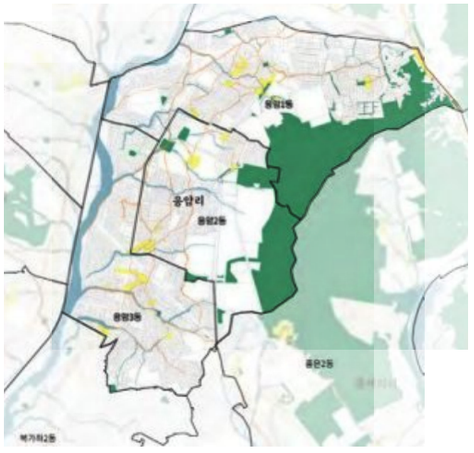
응암동은 서대문구의 법정동이다. 응암동은 응암 1,2, 3동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13 마포구청, 마포구지 전자간행물, https://www.mapo.go.kr/site/main/content/mapo04050405, 679쪽

14 서울특별시 마포구(1992), 『마포: 어제와 오늘, 내일』, 68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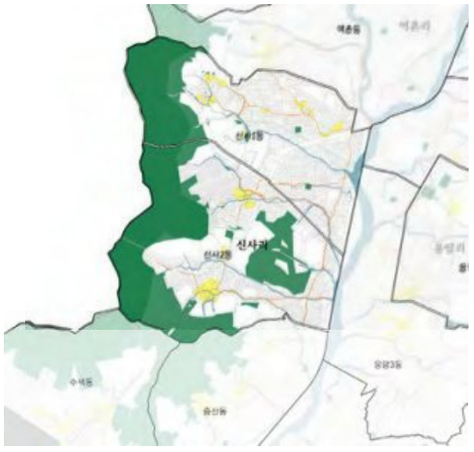
·응암리鷹岩里_응암동

응암리는 현 은평구 응암동의 1914년에서 1950년까지 명칭이다. 1914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경성부 은평면 와산동·응암동·포반동이 합쳐져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응암리가 되었다. 1949년 8월 13일에 공포한 대통령령 제159호에 의한 서울시의 행정구역 확장에 따라 서울시에 편입되어 서대문구 응암리가 되었다가, 서대문구 응암동이 되었다.



은평구 신사1,2동

신사동은 서대문구의 법정동이다. 신사동은 신사 1,2동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사리新寺里_신사동

신사동의 '신사'라는 명칭은 17세기 문헌에 등장한 것이 최초 기록으로 전해진다. '신사'는 이 지역에 '새로 생긴 절'이 있다고 해서 유래된 지명으로 지금의 신사동 200번지에 절터가 있었다고 한다. 신사동의 옛 지명으로는 새절·신사동·신사동계·신사리·풋나무골·새력굴·중신사동·상신사동·능굴·배나뭇골·불당굴·왜꿀·고태골·고택골·고직굴·하신사동 등이 있다.[15]

은평구 역촌동

역촌동은 은평구의 법정동이자 행정동이다.



·역촌리驛村里_역촌동

역촌동은 1914년 경기도 고양군에 편입되면서 상정동과 역촌동이 합쳐져 은평면 역촌리가 되었다. 1949년 서울시 행정구역 확장에 따라 서울시로 편입되었고, 1979년 서대문구에서 은평구가 분구되면서 은평구 역촌동이 되었다. 역촌동의 동명은 현재 예일여고 동쪽 너머에 있던 마을의 옛 지명인 역말(역마을)에서 비롯되었다. 역촌동 인근에는 조선시대 관료들이 장거리 여행 시 말이 쉬어갈 수 있는 연서역이 있었고, 그 주변에 역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16]

은평구 녹번동

녹번동은 은평구의 법정동이자 행정동이다.

·녹번리碌磻里_녹번동

녹번동의 '녹번'은 조선시대 청렴한 조정 관리들이 명절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받은 녹의 일부를 이

15 서울역사편찬원(2021), 『서울 동의 역사(은평구)』4, 12~17쪽.

16 서울역사편찬원(2021), 『서울 동의 역사(은평구)』3, 168~169쪽.

곳에 있던 고개에 놓아두었다는 것에서 이를 보고 당시 사람들이 고개 이름을 '녹이 버린 고개'라고 하여 '녹번이 고개'라고 불렀다는 유래가 있다. 또 녹번동의 고개는 서대문구 홍은동 사거리에서 넘어오는 고개로 푸른빛을 띠는 광물인 황산제일철(녹반)이 나오기 때문에 녹반고개라고 불렀던 것이 녹번으로 읽은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 녹번동의 옛 지명으로 녹번고개, 산골고개, 여현, 도깨비고개, 말흘산계, 산골굴, 안장바윗골, 양철리고개, 양철리계, 양철평, 파일재, 패일재, 푸석굴, 부들마을 등이 있다.



은평구 대조동

대조동은 은평구의 법정동이다. 원래 서대문구 은평출장소에서 관리하다가 1970년 행정동 대조동을 신설하고 1979년 은평구로 이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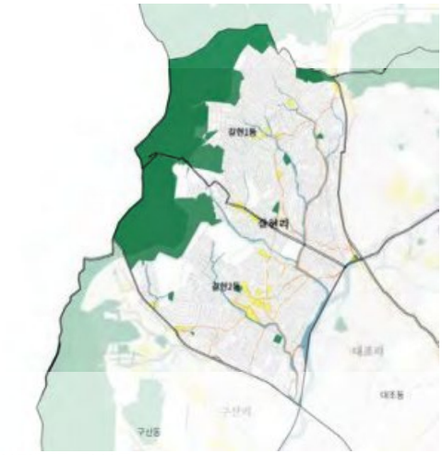


·대조리大棗里_대조동

대조의 '대조'는 '큰 대추나무골'이 구전되었다는 설과 대조동을 부르던 옛 지명이 '대춘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추나무가 아니라 대촌大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 대조동에는 연신내와 대춘말 사이사이 마을이라는 새말이 있었다.

은평구 갈현1,2동

갈현동은 은평구의 법정동으로 효경길(연서로 29길과 갈현로 33길)을 경계로 행정동 갈현1동과 갈현2동으로 구분된다.



·갈현리葛峴里_갈현동

갈현리는 현 은평구 갈현동의 1914년에서 1950년까지 명칭이다. 이 일대는 서울과 의주 방면을 잇는 길 가운데에 있는 고갯길로 칡고개라 불린다. 이 칡뿌리는 갓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었으며 '칡고개', '갈고개', '가루개', '가루게'라고 불렀다는 데서 명칭이 유래되었다는 설과 가루개가 '가른다'라는 순수한 우리말로 못골과 효경골, 가루개 등 세 마을의 경계에 위치한 고개이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라는 설 두 가지가 있다. 가루개가 한자명으로 옮겨진 것이 갈현葛峴이다. 갈현동에 있던 마을로는 온수골, 못골, 좌월, 효경골 등이 있다.[17]

은평구 구산동

구산동은 은평구의 법정동이자 행정동이다

·구산리龜山里_구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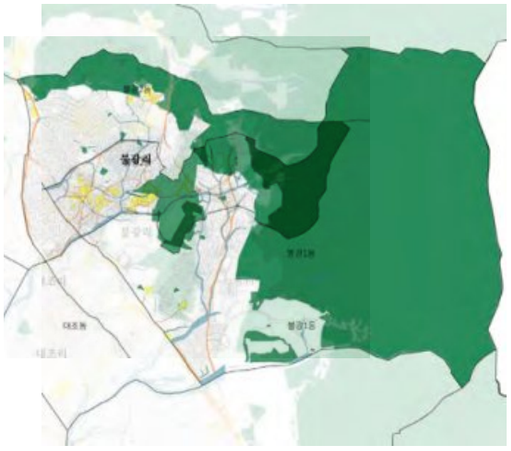
17 서울역사편찬원(2021), 『서울 동의 역사(은평구)』4, 194~198쪽.

구산동은 북쪽으로는 갈현동과 동남쪽으로는 역촌동과 접해있다. 역촌동 방향의 산이 거북이 형상을 하고 있다는 데서 동명이 유래되었다. 구산동은 1914년 노지동과 구산동을 합하여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구산리가 되었다가 1949년 서울시에 편입되어 서대문구 구산리가 되고, 1979년 은평구가 서대문구에서 분구되면서 은평구 구산동이 되었다.



은평구 불광1,2동

불광동은 은평구의 법정동으로 행정동 불광1동, 불광2동으로 구분된다.



·불광리佛光里_불광동

불광동은 이 근처에 바위와 대소 사찰이 많아 불광사 등의 서광이 서려있다고 하는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곳은 1911년 경성부 은평면 불광리·박석동·사정동·관동, 갈현계 박석동이라 하였던 것이 1914년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불광리가 되었다.

· **고양군 신도면(신혈면)**

은평구 진관동

진관동은 은평구의 법정동이자 행정동이다. 원래 법정동 진관외동과 진관내동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2007년 진관동으로 합쳐졌다.



·진관내리津寬內里/진관외리津寬外里_진관동

진관동은 북한산의 진관사津寬寺에서 유래한 동명이다. 1911년 고양군 신혈면 진관내리·구파발리였던 것이 1914년 고양군 신혈면과 하도면을 합쳐 신도면을 만들면서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진관내리가 되었다. 진관내리는 진관외동과 함께 1979년 서울시로 편입되었다. 이곳에는 구파발이라고 하는 고려시대 파발 제도에 의한 역참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평안도 의주 방면으로 향하는 서북대로의 서울 도성 밖 첫 기착점이었으며, 경기도 고양의 벽제관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다. 진관동에는 삼천사三千寺라는 절에서 유래한 삼천리골이라는 마을이 있었고, 검바윗골, 애기소 등이 있었다.

진관외동에는 1969년 기자들의 집단 주거지용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어진 기자촌이 있었다. 무주택 기자 335명이 주택조합을 만들어 문화재관리국 소속의 부지를 불하받고 공동주택을 만들어 1974년 420가구가 입주하였다. 기자촌은 2006년 은평 뉴타운 개발사업 권역에 포함되며 재개발되어 사라졌다.[18]

18 서울역사편찬원(2021), 『서울 동의 역사(은평구)』1, 97~102쪽.

3 서울도시공간 확장의 4시간층위들

①1914~1936

1911년 5부 8면제가 실시되면서 도성 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의 5부部와 도성 밖은 용산방을 용산면으로, 서강방을 서강면으로 하는 등 8면面으로 정하였다.[1] 이후 1914년에 지방행정제도가 다시 개편되었는데, 이때 도성 밖 8면을 분할하여 경성부와 경기도 고양군으로 나누고 경성부를 경기도에 포함시키면서 5부 8면제가 폐지되었다.[2] 경성부는 한양도성에서 각각 동대문과 서대문, 남대문밖과 용산까지의 범위였으며, 1936년 새롭게 관할 구역이 확장되기 전까지 유지되었다.



1914년 경성부의 범위

*1921년 1만지형도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②1936~1949

1936년 2월 14일 조선총독부령 제8호로서 계획구역사항이 총독자문기관인 시가지계획위원회를 통과하여, 1936년 3월 26일 부역확장에 관련된 계획 전체가 총독부 고시 제180호로 발표되고, 4월 1일 시행되었다.

〈표〉 1936년 경성부 편입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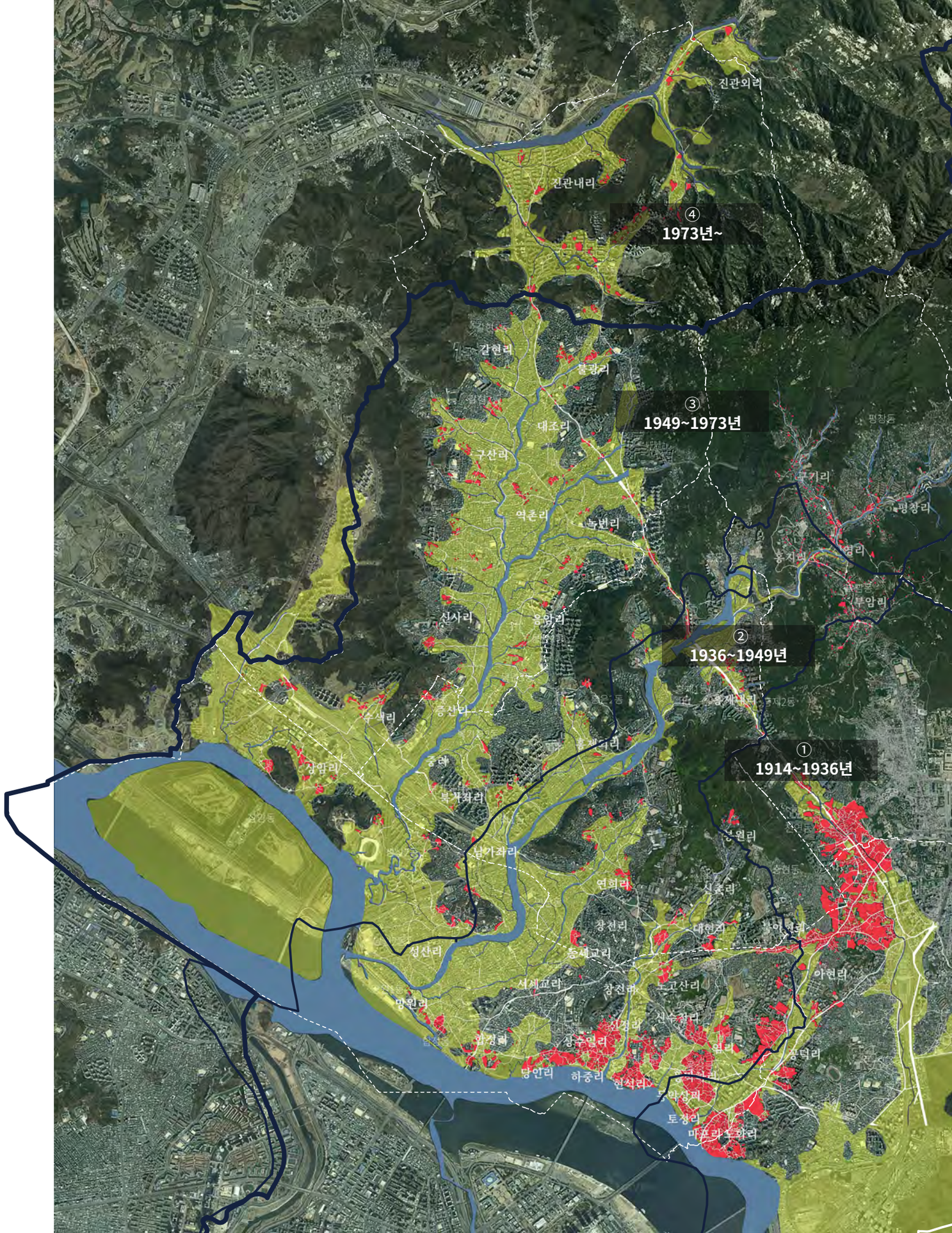
고양군	연희면	동세교리, 아현북리, 서세교리, 합정리, 망원리, 노고산리
	용강면	아현리, 신공덕리, 공덕리, 염리, 토정리, 동막상리, 동막하리, 신수철리, 구수철리, 창전리, 당인리, 하중리, 현석리, 상수일리, 하수일리, 신정리
김포군	양동면	양화리, 염창리

경성부는 종전 면적에 고양군 연희면 일부와 은평면 일부, 숭인면 일부, 용강면, 한지면, 시흥군 영등포읍 및 북면 일부와 김포군 양동면 양화리와 은평면이 포함되어 경성시가지계획구역은 총 135,355,032㎡이 되었다. 그중 서북권에 포함되는 연희면과 은평면에서 제외된 곳은 연희면의 성산리, 남가좌리 중 홍제천 우안의 지역, 남가좌리, 중리, 증산리, 수색리, 상암리와 은평면에서는 홍제외리 중에서 홍제천 우안의 지역, 녹번리, 안암리, 신사리, 구산리, 역촌리, 대조리, 갈현리, 불광리, 구기리, 평창리다.

이 구역 확장에 의해 경성부는 조례 제6호로 용산, 동부, 영등포에 3개의 출장소를 설치하고, 구역을 관할하도록 하였는데, 지방행정의 업무가 점차 과중되자 1940년 7월 1일 자로 서부출장소를 신설하여 연희, 은평지

1 서울특별시사편찬원(1997), 『서울행정사』, 서울특별시, 39~44쪽.

2 전국은 12부로 나뉘었으며 경기도에 경성부와 인천부가 속하였다. 또한 1914년 3월 13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하여 5부 8면제가 폐지되었다.



서북권역 4개의 도시공간의 시간층위

역을 관할하게 한다.

하지만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기존 출장소제도를 폐지하고 1943년 6월 9일자 총독부령 제163호로 구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이로서 서부출장소를 포함한 기존 4개 출장소가 폐지되고, 동부출장소 관내는 동대문과 성동구로, 용산출장소 관내는 용산구, 서부출장소 관내는 서대문구, 영등포 출장소 관내는 영등포구가 되었으며 도성 내 신설된 종로구와 중구를 포함하여 모두 7개 구가 되었다.
하지만 서대문구는 특히 관할구역이 넓었고, 이에 처리해야 하는 사무량이 폭주하자 1944년 10월 23일자 총독부령 제250호로 서대문구를 분구하여 마포구를 신설하였다.[3]

③1949~1963

해방 다음 해인 1946년 8월 15일 경기도 경성부는 서울시로 개칭되었다. 또 같은해 9월 28일 서울시가 경기도 관할에서 분리되어 서울특별자유시로 승격되었으며, 이에 따라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고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 후 일년 뒤인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59호로 「시의 관할구역 및 구, 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변경의 건」이 공포·시행되었다. 이때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의 9개 리, 둑도면 15개 리, 은평면 16개 리, 시흥군 동면의 일부 중 3개 리 등 45개 리의 134.449㎢가 서울시에 편입되면서 총 268.353㎢가 되었다. 이때 1936년 경성부 부역확장시 제외되었던 경성부 은평면의 18개 동리가 서대문구로 편입되었으며, 이를 관할하기 위한 은평출장소가 현재의 녹번동에 새로 설치되었다.

1963년 1월 1일에는 서울의 인접 5개군 84리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었다. 이때 지금의 강남인 광주군 등이 대대적으로 편입되어 613.04㎢가 되었으며, 기존의 은평출장소 등 3개 출장소와 함께 10개의 구 출장소가 추가로 신설되었다. 하지만 1963년 시역 확장에 서북권역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내용은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1992), 『서대문구지』, 138~14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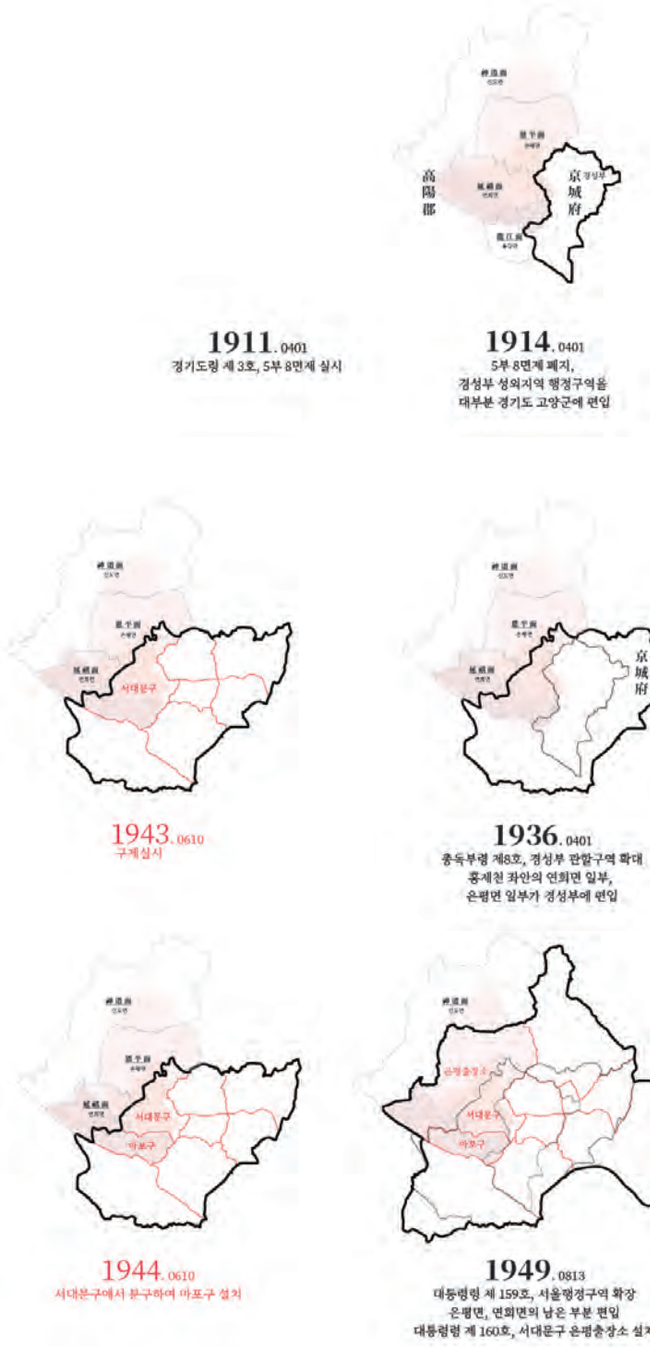
〈표〉 1949년 은평면 편입지역 및 면적

동명		면적(㎡)	주거가능면적(㎡)	비율(%)
녹신동	녹반동	1,865,498	1,148,833	61.58
	부암동	2,781,855	2,300,190	82.69
	역촌동	1,069,177	1,002,512	93.76
	신사동	2,015,895	1,537,565	76.27
수색동		2,100,060	1,860,060	88.57
대광동	대조동	874,738	874,738	100
	불광동	3,866,985	1,302,320	33.68
	갈현동	2,431,662	1,713,332	70.46
	용산동	1,050,000	830,000	79.05
홍은동		3,985,490	1,892,160	47.48
회가동	회산동	960,000	834,500	97.34
	북가좌동	1,148,082	1,148,082	100
	남가좌동	1,626,221	1,507,891	92.72
성암동	상암동	8,064,726	6,749,731	83.69
	성산동	3,024,130	2,996,257	99.08
	중동	395,000	395,000	100
구평동	구기동	3,738,034	129,704	3.47
	평창동	5,242,726	491,061	9.37

④ 1973~

1973년 7월 1일에는 지금의 은평구 진관동에 해당하는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관내 구파발리와 진관내리, 진관외리가 서울시로 편입되었다. 1975년 10월 1일에는 대통령령 제7813호에 의한 대폭적인 구 관할구역 변경이 있었는데, 이는 모든 경계를 지리적 여건에 맞추어 조성하되 도로, 하천, 철도, 능선의 순서에 따라 분계하고 구역 주민의 일상생활권을 크게 참작하여 설정된 것이었다. 종래의 구 경계 중 불합리한 일부 경계에 대해 불가피하게 조정한다는 원칙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때 서대문구 관할구역이었던 평창동, 구기동, 부암동, 홍지동, 신영동, 행천동, 송월동, 홍제동, 평동 전역과 교남동, 교북동, 현저동, 충정로1가 각 일부가 종로구로 편입되었으며 충정로1가 일부는 평동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서소문동, 정동, 순화동, 의주로2가, 중림동과 의주로1가, 충정로1가, 합동, 충정로3가, 만리동1가, 만리동2가는 중구에 편입되었다.[4] 또한 1979년 10월 1일 서대문구 은평출장소 관할구역에 수색동 일원을 포함하여 은평구가 신설되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1992), 『서대문구지』, 231~239쪽.



년도	위치	현재행정구역
1949~	서대문구 녹번동	녹번리, 응암리, 홍제외리, 북가좌리, 남가좌리, 성산리, 증리, 수색리, 상암리, 신사리, 구산리, 역촌리, 대조리, 불광리, 갈현리, 평창리, 구기리
1955~		홍은동, 성암동, 수색동, 녹번동, 대광동, 증가동
1964~		홍은1동, 홍은2동, 성암동, 수색동, 녹번1동, 녹번2동, 대광1동, 대광2동, 증가동, 구평동
1970~		홍은1·2동, 성산동, 상암동, 갈현동, 대조동, 북가좌동, 남가좌2동, 수색동, 녹번동, 응암1·2동, 역촌동, 불광1·2동
1973~		홍은1·2동, 성산동, 상암동, 갈현동, 대조동, 북가좌동, 남가좌2동, 수색동, 녹번동, 응암1·2동, 역촌동, 불광1·2동, 구파발리, 진관내·외리
1974~ 1979		녹번동, 불광1·2동, 갈현동, 구산동, 대조동, 응암1·2·3동, 역촌동, 신사동, 진관내·외동

은평출장소 관할구역의 변천

서울특별시 은평구(2001), 『은평구지』, 56~57쪽.



1963. 0101
서울의 인접지역 일부가 서울특별시로 편입,서울행정구역 확장
10개의 구출장소가 신설



1973. 0701
법률 제 2596호,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의 초비검리, 진관내리,
진관외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편입, 서울행정구역 확장
은평출장소에서 관할



1975. 1001
대통령령 제 7816호, 대폭적인 구 관할구역 변경
서대문구 관할구역 중 평창동, 구기동, 부암동등 일부를 종로구와 중구에 편입
상암동, 성산동, 수색동, 중동, 남가좌동, 연희동 각 일부를 마포구에 편입
만리동1가,2가 각 일부를 용산구에 편입
마포구 동교동 일부를 서대문구에 편입



19791001
대통령령 제 9630호,
은평출장소가 은평구로 승격
시조례 제 1350호, 은평출장소 폐지

서북권역 행정구역변천

4 주요간선도로

서북권역에 도시화가 시작된 것은 개항 무렵부터였다.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장으로 하는 조약이 1876년 체결되고 수상 교통로로 한강이 개방되면서 한강의 나루들이 발달했다. 특히 도성과 가까운 곳이었던 마포 일대는 무역항으로서 점차 발전되기 시작했으며, 1900년 7월 한강철교의 가설과 경인선 개통, 1906년 신용산역의 준공 등 인근의 발전은 마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07년 성 안팎을 연결해주는 전차가 가설되고 서대문~청량리 간 전차가 개통되었다. 이와 동시에 서대문 주변과 만리재, 아현 일대의 도로도 함께 확장되기 시작했다.[1]

· 주요 간선도로와 경인선

서북권역은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의주로를 비롯하여 서대문 밖 아현~마포에 이르는 길 이외에는 그렇다 할 큰 도로가 없었다. 지금의 서대문을 동서로 관통하는 신촌로 역시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에 걸친 대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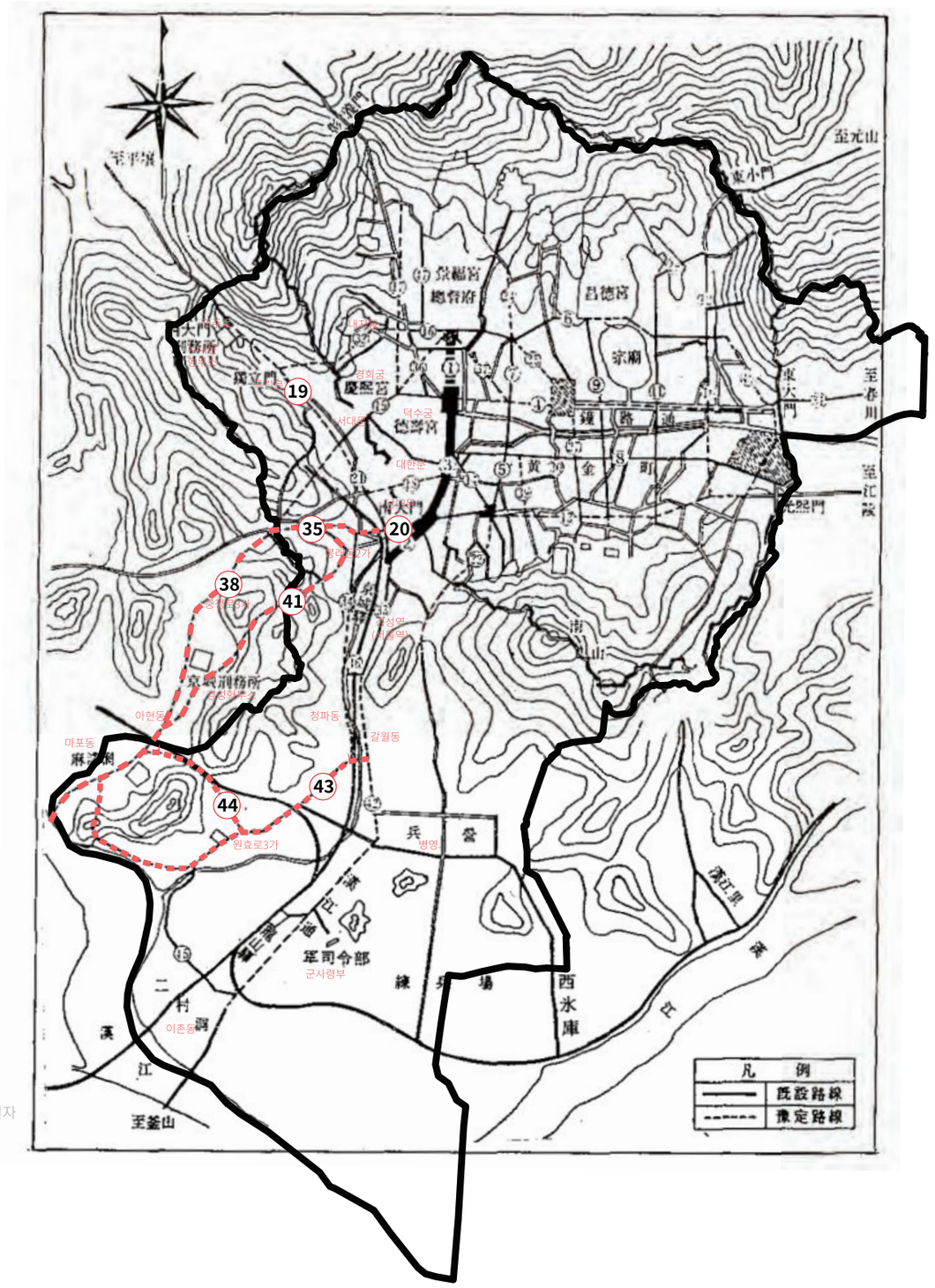
본격적인 도로확장은 1912년 11월 경성 내 29개의 도로개수 예정노선의 고시를 시작으로 하는데, 이 노선은 1917년 일부 변경, 1919년 대대적인 수정을 하며 도성 밖 마포지역까지 계획구간에 들어가게 된다.

1922년과 1925년에 이어 1928년 경성 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 47개가 확정되었다. 이 중 서북권역에 관련 있는 도로는 7개 노선에 이르는데 이 개수 계획은 1936년까지 지속되었다.

〈표〉 1928년 경성시구개수노선 중 서북권역 범위

	노선路線	폭원幅員 / 간間
제 19	교북동橋北洞에서 의주로義州路를 거쳐 마포가도麻浦街道에 이르는 노선路線	폭원 8칸
제 20	남대문南大門에서 마포麻浦를 향하여 철도鐵道건널목을 거쳐 봉래동蓬萊洞2가에 이르는 노선	폭원 8칸
제 35	봉래동蓬萊洞2가에서 아현동阿峴洞에 이르는 노선路線	폭원 8칸
제 38	충정로忠正路2가에서 마포동麻浦洞에 이르는 노선路線	폭원 6칸
제 41	봉래동蓬萊洞2 가에서 신공덕동新孔德洞에 이르는 노선路線 (현 만리로萬里路의 전신)	폭원 8칸
제 43	갈월동葛月洞에서 원효로3가를 거쳐 마포동麻浦洞에 이르는 노선	폭원 6칸
제 44	원효로3 가에서 마포가로麻浦街路에 이르는 노선	폭원 6칸

1 서울특별시 마포구(1992), 『마포: 어제와 오늘, 내일』, 270쪽.



경성시구개수예정노선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11월 6일자

5 개발의 단위들

일제강점기 조선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시가지 개발사업으로는 건축부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거지 경영,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중 경성시가지 개발 수법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주거지 경영사업 두 가지였다.[1] 광복 후 1949년, 1963년 두 차례의 대대적인 행정구역 확장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 서울시는 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펼쳐나갔다. 1961년부터 1980년까지 서울시에서 실시한 27개 지구와 민간이 실시한 3개 지구, 주택공사가 실시한 3개 지구까지 더해 총 33개 지구 106,300,000㎡(3,321만 평)에 달하는 여의도 면적의 38개분을 구획정리로 신규택지가 조성되었다.

1980년대부터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조성이 주축을 이룬다. 이에 따라 강남구의 개포지구, 강동구의 고덕지구, 양천구 목동지구 등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서북권역에서는 이미 1970년대 말까지 가용할 수 있는 평탄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다가 2000년 이후 난지도 생활쓰레기 매립지의 안정화 사업과 함께 월드컵 경기장 주변의 상암지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되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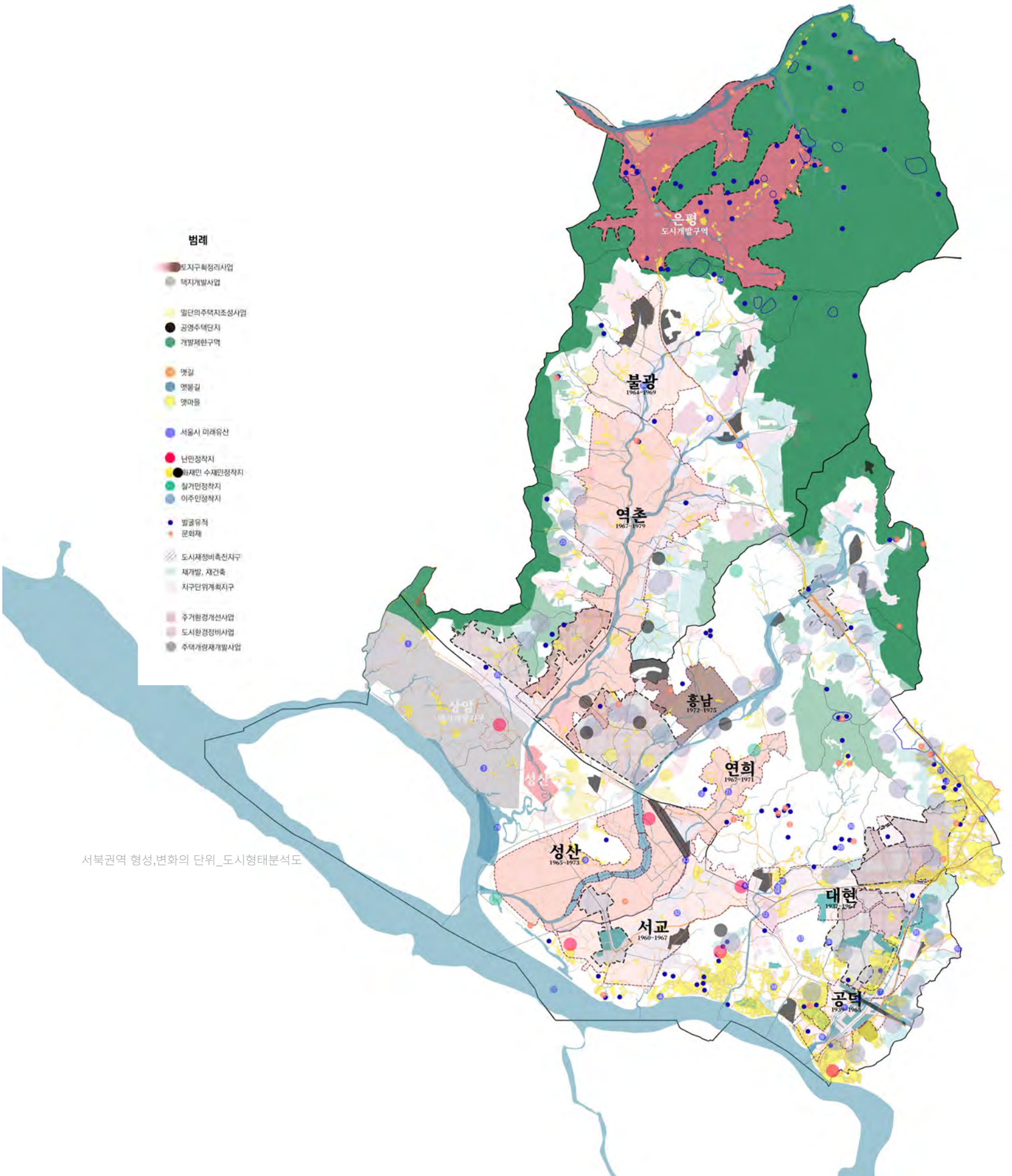
· 일제강점기

[대현지구] 1937. 2. 2. ~ 1964. 7. 3.

대현 토지구획사업은 일제 말기 서대문 지역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이 사업은 8.15 광복 때까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 사업으로 오늘날 신촌로 즉, 아현에서 이대입구, 신촌 네거리를 지나 동교동 삼거리에 이르는 간선가로와 그 양변 일대에 시가지가 조성되었다.

대현지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1937년 2월 조선총독부고시 제96호에 의해서다. 경성시가지 계획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지구 중 토지소유자의 토지구획정리 시행인가신청을 하여야 할 기한 지정이 영등포와 돈암은 1937년 3월 20일까지였던 반면 대현지구는 그보다 늦은 9월 30일까지였고, 1937년 11월 10일자 총독부고시 제787호로 대현지구 사업시행명령이 떨어졌다. 당시의 총독부고시를 원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1992), 『마포: 어제와 오늘, 내일』, 276쪽.



서북권역 형성,변화의 단위_도시형태분석도

「조선총독부 고시」 제787호
경성시가지 계획 토지구획정리지구 중 아래의 구역을 1937년 11월 6일 시가지 계획사업으로서 경성부윤이 이를 맡아 시행하고 1941년 3월 31일까지에 공사 완료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 구역을 표시한 도면은 경성부청에 비치하여 종람에 고한다.
1937년 11월 10일[2]

하지만 실시계획은 1년이 더 경과한 1938년 11월 18일자 총독부고시 제903호로 인가되었다. 그 이유는 1937년 7월 7일 발발한 중일전쟁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이후 1939년 3월 30일자 경성부고시 제17호로 1차 환지 지정, 5월 31일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환지 지정되었다.
그러나 1939년에서 1942년 사이 경성부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사정이었는데, 이른바 각종 통제령의 제정 및 시행과 태평양전쟁의 발발이었다.[3]
이러한 정세로 토지거래 등이 사실상 정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1941년 설립한 조선주택영단에서 같은 해 8월 전국의 주요 도로 유휴토지조사 결과에 의한 돈암, 대현, 번대방, 신촌 등 72만 평의 용지를 매입하기에 이른다.
8.15 해방 전 주택영단이 매입한 용지 중 서북권역에 해당하는 곳만 살펴보면, 경성 전체 334,830.03평 중 신촌 일대 27,625평, 북아현 6,691평, 창천 8,322.49평, 홍제 3,267평으로 총 45,905.49평에 이른다.[4]
이 공지들은 광복 후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관리되지 않는 틈을 타 피난민과 일본, 만주 등지에서 귀국한 동포들이 불법 점거하여 무허가 주택이 지어졌고, 기존 대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같이 이미 사업이 진척된 경우 공원 및 제척지 등으로 계획된 곳에 무허가 주택이 밀집하며 주거지화 되었다.
대현 구획지구가 실제 환지 처분된 것은 예정된 1941년보다 23년이 경과한 1964년 7월 8일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360호에 의하였으며 그해 12월 31일자로 풍탁 등기가 이루어졌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1992), 『서대문구지』, 275쪽에서 재인용.
3 1939년 10월 18일 칙령 제703호 물가통제령, 칙령 제704호 지대가화통제령, 칙령 705호 화금임시묘치령, 칙령 제706호 회사직원급여임시묘치령, 1940년 11월 20일 칙령 제781호 택지건물 등 가격통제령, 1941년 12월 8일 일본 진주만 기습공격, 태평양전쟁 발발
4 「주택영단용지매입실태」, 1945년 8월 15일,(대한주택공사(1979), 『대한주택공사20년사』, 193쪽).



대현지구 토지구획정리계획 평면도(1940)

서울역사박물관(2017),『신촌: 청년문화를 품은 개척지』, 261쪽.

대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오늘날 아현에서 신촌로터리를 거쳐 동교동로터리에 이르는 신촌로 양편 일대의 조직으로 이 일대의 도시구조를 만드는 결정적인 사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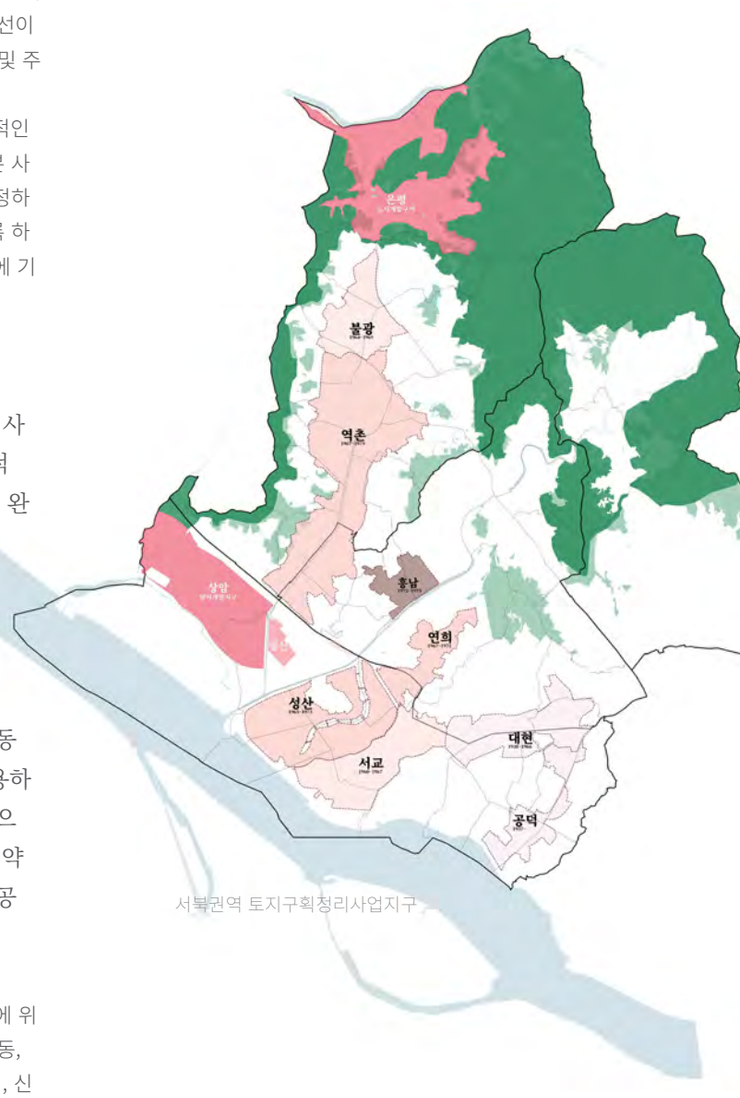
[공덕지구] 1939. 1. 19. ~ 1965. 12. 30.

공덕지구는 1939년 1월 19일 지정되었다. 조선총독부고시 제22호로 한남, 용두, 사근, 번대, 청량리, 신당지구와 함께 지구가 지정되었고 같은 해 3월 22일 시행명령이 내려졌다. 공덕지구의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본 지구는 서울의 도심부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공덕, 신공덕, 아현, 도화, 마포, 용강, 상정, 염리동 지내로서, 북부는 대현 토지구획정리지구계를 경계로 하고, 남부는 한강 및 마포를, 동서부는 산악 급 기성부락을 경계로 하는 일원으로서 표고는 대체로 75m 이하를 구역으로 하는 차 면적은 149 정보여의 구역임.
> 그 대부분은 답, 전, 임야로서 상세는 별지 지구 및 인접지의 현황도와 토지원부에 기재된 것과 여실하며 지구의 동서 양측은 산악으로 분수계로 하고 그 유역 면적은 약 300ha의 분지로서 이 유역 일부 약 170ha는 아현 배수 간선에 유입되고, 기타는 상당한 경사를 가지고 있어 주택지 등으로서 최양호한 구역이다.

표고는 최저 6 미, 최고 75 미, 중앙 지반은 대체로 10 미다. 본 지역은 지구의 중앙선을 동서로 시가지 계획 가로 제3류 제19호선 및 동 23호선이 관통하고 이 양측 및 마포선은 노선식의 상업지역, 기타는 중소공업 및 주택지역으로서 이용하기 양호한 지대다.
현재 현저하게 건축물이 증가하고 날로 발전을 보이고 있으나, 계통적인 도로가 없고 대부분 건축부지로서 이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본 사업에 의하여 시가지 계획 가로를 기준으로 세도로 및 배수간지선을 정하고 부정형한 토지를 정리하여 여하한 토지에도 각각 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따라서 이상적인 상점가 및 주택지로서 가능케 하여 장래의 발전에 기여코자 한다.[5]

공덕지구 사업의 총면적은 1,498,380.2㎡ 였고, 그중 1942년부터 1944년까지 그 절반에 가까운 710,948.8㎡의 면적이 시행되었다. 사업완료 구역에 대하여는 환지 예정지로 지정 고시되었지만 잔여면적 787,431.4㎡에 대하여는 광복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민간에 의해 완전히 주택화 되어 1965년 사업지구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서북권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1950년 이후

[서교지구] 1960. 7. 13. ~ 1967. 1. 18.
서교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서대문구 창천동 및 마포구 서교동, 동교동, 합정동, 망원동, 당인리동, 상수일동, 하수일동 각 일부를 포용하는 지역을 정리하는 사업이다. 동쪽으로는 대현토지구획정리, 남쪽으로는 한강제방을 경계로 하며 북쪽은 동교동 산기슭을 경계로 하는 약 500,000평의 면적의 사업지구다. 서교지구는 가로 및 택지, 구거, 공원, 시장, 녹지, 주차장, 학교 대지 등으로 구획 정리되었다.[6]

본 지구는 서울의 도심부(서울역 중심)로부터 서편 약 6,000㎡ 지점에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및 마포구 서교동, 동교동, 합정동, 망원동, 당인리, 철도 경계로 홍익대학 앞 구 도로를 경유하여 강서역, 신촌역 간의 철도와 병행한 대현토지구획정리지구를 지구계로 하고 서는 현재 구거를 경계로 하며, 남은 한강 제방을 경계로 하고, 북은 동교동 산기슭을 경계로 한 약 1,917,355㎡의 구획임.
지세는 대부분이 전, 답 등의 평야지대이고 주위 환경과 지역적인 관계에 비추어 주거지역 또는 혼합지역으로서 적합한 장소이고 일부 지역은 구

5 서울특별시(2017), 『서울 토지구획정리 백서』 상, 193쪽에서 재인용.
6 서울시사편찬위원회(1969), 『66 시정연사』, 86쪽.



서교지구 도로공사
1960. 11. 30. 촬영, 서울특별시 소장

릉의 고저가 심하여 도로, 배수 등의 시설이 전무한 처녀지인 것으로 현재 상태로서는 도저히 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희박한 것이므로, 차 지역에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다면 계통적이고 질서 정연한 도로 및 배수 시설, 또는 학교, 공원 등을 설치하고 부정형의 토지 각 필에 대한 구획 형상을 구축함으로써 택지로서의 이용 가치가 증진하게 될 것인 바, 현하 긴박한 주택난의 완화는 물론이고, 기타 부분에 기여되는 점이 지대할 것으로, 점차 건물 등의 축조가 활발하게 될 것이니, 발전적인 도시 확대의 용태를 구현함으로써, 시민의 행복과 이익을 도모할 것인바, 특히 본 지구는 기성 대현토지구획정리 시행지구 내 노고산 로터리로부터 영등포 방면에 달하는 폭원 30m의 간선도로를 개발하게(한강 양화진 간의 교량 가설 공사도 불원 실현 예상)되므로, 이에 수반하여 필수적으로 이하 각 장에 의거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코자 함.

[불광지구] 1964. 10. 8. ~ 1969. 3. 21.
불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364,035평에 달하는 토지를 구획 정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61년 5월 26일 내무부고시 제582호로 시행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오늘날 불광동 지역이 주거지로 변모하는 계기가 되었던 사업이다. 1964년도에 착공하여 1969년까지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1966년도는 91,000,724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210,000평의 대지를 정리했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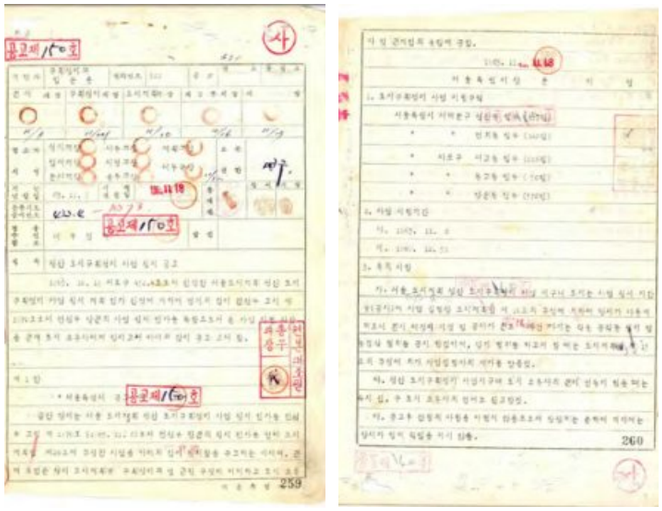
본 지구는 도심으로부터 북서방 약 9km 상거되어 있으며, 북단은 경기도와 접하고 서남방에 있는 수색역과도 상거 불과 5km 정도로서 교통이 지편할 뿐만 아니라, 동부에는 국도 서울-신의주 간의 주간선이 관통하여 일부 연도와 인접된 대조동 일부는 기존 건축물의 밀접과 근래에 건립된 갈현동의 I.C.A 주택들이 아담하게 한 촌락을 구성하고 있는 외에는, 대부분이 전답인 본 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수도 서울의 증가되는 인구에 대비하여 건전한 주택지의 공급과 아울러 현재 무질서하게 진전하고 있는 시가지를 사전에 합리적인 계획에 의한 발전을 기도하고 도심에 집중된 주택가를 교외로 분산하려는 시도에서 본 사업을 실시코자 함.

[성산지구] 1965. 11. 8. ~ 1973. 7. 2.
마포구 망원동·서교동·동교동과 서대문구 연희동·마포구 성산동 각 일부를 시행면적으로 하는 지역으로 계획 이전 주로 논밭이 대부분인 지

7 공사는 공공용지 87,266평과 주택지 276,769평이 조성되어 주택 5,535동을 건립, 27,7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서울시사편찬위원회(1969), 『66 시정연사』, 87쪽.

역이었다. 이 계획은 1952년 3월 25일 내무부 고시 제23호로 결정되었고 1963년 2월 26일 토지구획정리실시지구로 내신됨과 동시에 이듬해 7월 시행명령을 신청하여 동년 9월 10일 건설부고시 제1079호로 성산동·망원동·서교동·창천동 각 일부 661,157㎡에 대하여 준공업지구 조성을 위한 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이 내려졌고, 5차년 계획으로 실시되었다.[8]

> 본 지구는 도심지로부터 서방 7km 지점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동북은 서강 ~ 수색철도 이북, 서남은 한강 이북, 서북은 사천, 이동, 동남은 서교지구와 경계로 한 평야지대로서 그 면적은 약 2,082,644㎡다. 지세는 서북에서 동남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룬 지대로서 전답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으며 제2한강 인도교가 개통되면 교통은 가일층 편리하게 되며 아울러 지구대 안 지대인 영등포 공업지대와 대치하고 있음으로써 주위 환경 및 입지적 조건으로 보아 구획정리 후 준공업지대로서 적합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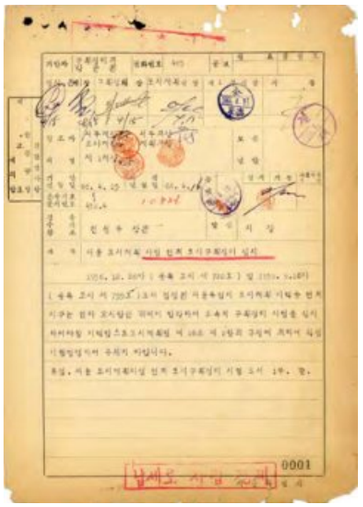


성산토지구획정리사업실시공고
서울기록원 소장

[연희지구] 1967. 1. 21. ~ 1971. 4. 12.
연희지구는 서대문구 연희동을 중심으로 홍은동과 홍제동, 남가좌동 일부를 포함한다. 연희지구는 1936년 12월 26일자 조선총독부 고시 제722호 및 1939년 9월 18일자 조선총독부 고시 제 755호로서 결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지역 중 하나였으나 사업이 전면 중단되었다가

8 서울특별시 마포구(1992), 『마포: 어제와 오늘, 내일』, 278쪽.

1966년 4월 서울시장이 건설부장관에게 시행명령을 요청한 지역이다.[9] 이 지구는 동 시기 시행 중이던 서교지구와 성산지구와 인접한 주거지역으로 제2한강 인도교의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고지대는 고급주택이 건립되고 있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산발적인 발전이 염려됨으로 긴급한 주택난과 중심가의 교통량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10] 연희지구는 주거지역으로서 최적지로 평가되었으며, 1971년 4월 12일 완료 신고서가 접수되었다.



서울 도시계획 사업 연희토지구획정리 실시
서울기록원 소장

본 지구는 도심지로부터 서방 약 6km 지점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동북은 연세대 및 외인학교 영역에 접하여 안산록을 따라 홍제천에 접하며 양측은 안산 낙맥록을 따라 사천교에 이르고 남단은 용산~수색 간 철도선으로 위요되어 그 면적은 약 42만 평이다.
지세는 동·서·북의 3면이 안산 낙맥에 접하고 남쪽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주위 지세는 임상이 수려하고 외국인 등의 고급 주택이 산재하고 있어 거주지로서 최적지이며 수색행 현재 도로 남측은 저지대로 대부분이 농경지로서 지구 내 배수상태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으며 서강~수색 간 철도선을 횡단하여 현재 시행 중인 성산지구 내 수로에 연결하고 있음.
본 지구 인접지는 기존 주택가를 이르고 있고 성산지구 공업지와 연속되고 있어 주위 환경 및 입지적 조건으로 보아 구획정리 시행 후 주택지 및 준공업지대에 적합한 곳으로, 무질서하게 급증하는 건축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근대 도시화를 위한 교외 주택지 및 공업지 조성을 위하여 본 사업을 실시코자 함.

[역촌지구] 1967. 1. 21. ~ 1979. 12. 27.
역촌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66년 11월 24일 건설부공고 제227호로 시행 명령이 내려지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 것은 1967년부터다. 역촌지구는 역촌동, 녹번동, 구산동, 갈현동 등 80만 평을 1차 지구로 하고, 증산동, 응암동, 남북가좌동 등을 포함한 2차 지구 50만 평 등 모두 133만여 평에 대해 대부분 전답지였던 것을 깎고 메워 택지로 조성하는 방대한 사업이었다.[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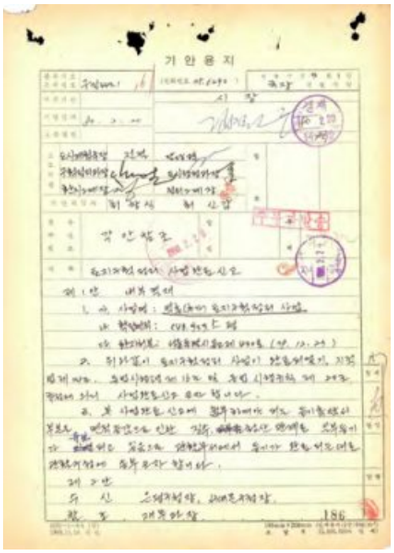


역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녹번동 도로포장공사,
서울역사박물관(2013),『돌격 건설! 김현옥 시장의 서울 II : 1968-1970』, 162-163쪽

본 지구는 도심지로부터 서북방 약 8km 지점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동북측에 접한 불광 토지구획정리지구는 이미 정리 공사가 완성단계에 있으며 남서로 통하는 도심지에서 수색 간의 간선도로 및 남북으로 박석고개(문

9「서울 도시계획 사업 연희 토지구획정리 실시」, 서울기록원 소장.
10 서울특별시(2017),『서울 토지구획정리 백서』상, 363~368쪽.
「서울도시계획사업 연희토지구획정리 시행조서」, 서울기록원 소장.
11 서울역사편찬원(2021),『서울 동의 역사(은평구)』1, 202쪽.

산)에서 제2한강교, 김포 등지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과 성산, 서교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서부 서울(부도심지)의 일각을 점한 지극히 평탄한 지대(약 4,429,752㎡)다.
그 지세는 완만한 경사지를 이룬 산림지대가 서북측에 접하였고 지구 내 대부분의 지역이 전답지이며 교통은 상기한 바와 같이 편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동시, 인접 불광지구와 더불어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주위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기 안 용 지

역촌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신고서
서울기록원 소장

[홍남지구] 1972. 2. 9. ~ 1975. 2. 14.
홍남지구는 서대문구 홍은동, 남가좌동, 북가좌동 일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본 지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남가좌동, 북가좌동 각 일부에 해당하며 1967년 이미 시행한 바 있는 역촌 추가(수색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의 서측과 남측의 기존 부락으로 둘러싸여 산발적으로 무질서하게 건축되어가고 있어 불량 지구화되기 쉬운 지역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구획사업을 시행하여 건전한 주택지역으로 조성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이며 교통 보안등 경제적으로 시민 생활의 향상을 도모코자 함.

계획단지

서북권역에는 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계획단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문화주택지부터 주거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표준설계에 의한 영단의 공영주택단지 및 주택건설 촉진에 의해 건립되는 다양한 주체에 의한 계획단지들이 있다.

· 일제강점기 문화주택

[금화장]

금화장金華莊 주택지인 죽첨정 3정목(현 충정로 3가) 3번지는 1936년 경성부가 확대되기 이전 경성부의 서쪽 끝자락으로서 연희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은 경의선의 서소문역과 아현리역의 중간에 위치하고 종로와 마포를 연결하는 전차선 죽첨정 2정목역에서 가까우며 버스가 이미 지나가고 있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었다.[12]

금화장 주택지는 당시 경성의 3대 주택지로 손꼽히던 곳으로써 1차 분양지는 서대문에 이르는 도로의 서쪽에서 시작하여 3700평을 약 50필지 정도로 구획하여 분양하였다. 1차 분양지는 서대문에 이르는 도로에서 북서방향으로 주도로를 만들고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어 각각의 블록을 형성했다. 중앙의 비정형 격자형의 2개의 블록은 100x30m, 80x30m의 약간 일그러진 형태의 격자형 주거지였다. 당시 남쪽에 이미 형성되어있던 촌락과 북쪽의 암벽산으로 인하여 비정형적의 대지를 격자형 주택지로 형성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2차 분양지는 1차 분양지의 주도로와 연결하면서 남쪽의 암벽산을 피해 사선으로 연결하였고 도로의 북쪽 블록은 동쪽의 암벽산으로 인해 규모는 작아졌으나 격자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13]

금화장 주택지는 1차 분양지가 50필지, 2차 분양지가 48필지 정도로 2차 분양지의 크기가 약간 작다.



금화장 주택지 배치도

「광고, 문화주택의 주택지 금화장 주택지」, 『경성일보 』, 1930년 3월 26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연희장]

연희장延禧莊 주택지는 금화장이 조성되던 비슷한 시기 금화장의 서쪽에 대규모 주택지가 개발된 것으로 여기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였다고 알려져있다. 연희장 주택지인 금화산 남쪽 북아현동 일대는 원래 왕

12 김주야,석전윤일랑(石田潤一郎)(2008),「1920~30년대에 개발된 금화장주택지의 형성과 근대주택에 관한 연구」,『서울학연구』32, 149~169쪽.

13 박철수(2021),『한국주택유전자』1, 마티, 151쪽.



대경성부대관(大京城府大觀)
서울역사박물관(2015), 『대경성부대관』

가의 어소가 있던 곳으로 서민들의 출입이 금지된 소위 '봉산'에 속하는 유서깊은 곳이었으나[14] 일제강점기 어떤 연유에서인지 공원이 되었다가, 민간자본회사인 토지회사로 넘어가 주택지로 개발된 것이다.

· 관사

[상암동 육군관사]

상암동 군 관사단지의 조성 주체와 목적 등을 밝힐 수 있는 문헌자료는 현재로서는 확보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상암2 택지개발사업으로 사라지기 전 조사된 2006~2010년 조사보고서가 남아있을 뿐이다.[15]



「원리왕가소유의 유서, 사경, 조망절가가격저렴, 연희장주택 분양」, 『조선신문』, 1934년 11월 14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4 「특전부토지분양, 연희장 토지회사」, 『조선신문』, 1938년 5월 21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5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 +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2006), 「상암2 택지개발지구 내 일본군관사 관련 이전 복원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



상암동 육군관사단지 배치도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 +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2006), 「상암2 택지개발지구 내 일본군관사 관련 이전 복원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

관사단지는 낮은 산지를 중심으로 북동-남서 방향으로 나란하게 구획을 정리하고, 건물은 4줄로 배치되었으며 건물은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형의 경사와 방위의 불일치로 인해 전체 배치에서 길과 관사의 관계가 사선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지역의 중심부 가장 높은 지대는 주변 도로에서 살펴보면 동쪽은 약 15.2m, 북쪽은 8.3m, 서쪽은 11.7m, 남쪽은 13.7m의 높이 편차를 가지고 있다. 도로망은 동쪽, 서쪽이 8m 정도의 차도가 나있고, 가운데 골목길은 2.5~3m 폭으로 나란한 선형이면서 골목길이 방형으로 순환되는 체계로 형성되어 있다.

[수색역 철도관사]

경의선은 1906년부터 서울에서 신의주간 전선에 걸쳐 열차가 운행되었고, 1908년 그 중간역으로서 수색역의 영업이 개시되었다. 1938년부터 경성~신의주, 신촌~수색역, 수색~용산간의 복선공사가 시작되고 수송력이 높아지자 배차관계의 원활을 위해 수색에 대규모의 조차장 건설공사를 시행하였다. 수색조차장은 1939년 1월에 착공되었다.[16]
수색역 앞에는 1940년 즈음 철도관사가 조성되었고, 기관사와 기관조수 등 철도 관련 노동자가 이곳에 거주했다. 관사는 약 70호 규모로 구성되었다.[17]

· 정착지

서북권역에는 기록으로 남겨진 것만으로도 최소 29개의 정착지가 존재했다. 면적만 보더라도 6만 7,633.5평이며 정착인구는 37,153명이다. 이 정착지는 현재 대부분 재개발되었으며 기록도 없이 사라진 정착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가장 최초의 기록으로는 1910년 아현리 토막수용지다. 경성과 그 부근

에스에이치공사(2008), 「상암2지구 근대건축물(일본군관사) 정밀실측조사보고서」.
삼부토건(2010), 「상암2지구 일본군관사 이축 복원공사 해체복원 감수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16 경의선은 일제강점기인 1938년부터 중국대륙 침략을 위한 군수물자 및 병력수송을 위해 경의선 복선공사가 시작되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1992), 『은평구지』, 550~551쪽.

17 정확한 조성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확보된 것이 없으며, 1940년 7월 27일 『조선일보』 신문기사를 통해 1940년 관사가 조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재목 운반중에 인부일명익사
수색은 현재물이한길 넘게 벌판에 잠겨 교통도 완전이 두절되었는데 수색읍내다전조에서는 현재관사를 건축중으로 재목을 운반할 도리가 업서 떼를 지어운반하던 중...(하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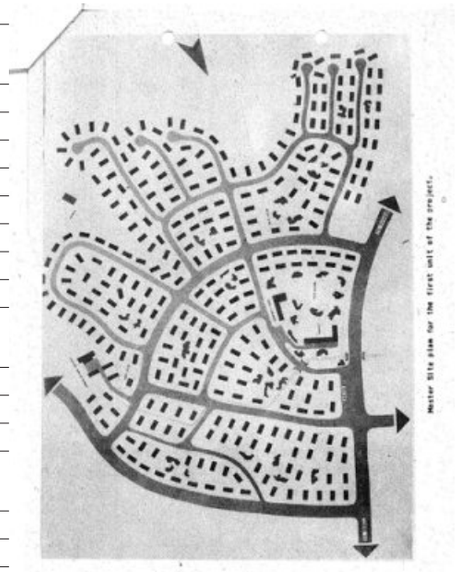
의 토막민을 총독부 사회과에서 아현리, 신당리, 도화리 등 7개소의 정착지를 마련하여 이주시킨다는 계획이었는데, 그중 경성시내 토막민은 거의 전부 아현리 토막촌으로 이주할 계획이었다. 토막민 1호당 부지면적은 15평의 토막수용지 가옥건축 표준양식이 마련되었다.[18]

서북권역에는 유독 수재민 정착지가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다.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 잦은 홍수와 범람으로 한강과 하천 주변의 무허가 주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었는데, 서울시는 정착지를 통해 시 외곽, 특히 수색, 북가좌 및 남가좌동, 응암동 일대에 수재민주거지를 조성하여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19]

단지명	정착위치	면적(평)	인구수	정착년월일
아현2동	마포구 아현동 산7	15,087	11,870	1910
반공청년 난민주택 (반공포로 청년수용)	상암동 산1	1,700	446	1959.12
		81	91	1959.12
합정동(영세민 이주단지)	망원동 192, 204, 222	5,480	4,784	1966
창전동(여의도개발로 인한 침수가능지 이주)	창전동 산2	3,750	1,165	1968.1
북가좌동 수재민주택	서대문구 북가좌동 31-7	2,160	945	1957.9
북가좌동 수재민주택 (한강변 수재민)	북가좌동 736-144	2,760	1,207	1957.9
북가좌동 수재민주택 (창신동 화재민)	북가좌동 산31	900	472	1957.9
난민촌	남가좌2동 115	1,700	687	1957
난민촌	북가좌동 13,14,34	660	287	1957, 1959
희망촌(서부이촌동 수재민)	연희동 182	1,536	1,487	1960.7
희망촌	연희동182(22동)	1,820	1,355	1960.1967
홍은1동(3,4,5통)	홍은1동 71	590	309	1960.9
난민촌	남가좌2동 79	4,500	765	1961~1962
난민촌	남가좌2동 산12	8,000	3,250	1961
홍은1동(3,4,5통)	홍은1동 71,36,48	405	159	1961.7
수재민정착지 (동대문구 창신동 화재)	북가좌동 산100	768	504	1962.9
북가좌동 수재민정착지	북가좌동 100	1,280	840	1962.9
홍은1통(3,4,5통)	홍은1동 71,48	94.5	317	1962.8
홍은3동(수재민 이주정착)	홍은3동 265	2,040	2,600	1962.7
북가좌동 수재민정착지 (서빙고 수재민)	북가좌동 100	1,280	840	1962.9
모래내(한강수재민)	남가좌동 152	486	760	1963
모래내(한강수재민)	남가좌동 152	846	1,115	1963



아현리 산7번지 토막수용지 배치도
국가기록원 소장



1958년 응암동 프로젝트
Ung Am Dong Han River Flood Victim Area,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소장

18 박철수(2021),『한국주택유전자』1, 마티, 96~99쪽.

19 신나리(2020),「1957~1973년 서울시 정착사업 전개과정과 정착지 도시형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사천교 하천부지(아파트건축 용지내 집단철거)	연희1동 487	520	331	1970.7
사천교 하천부지 (간선도로변 미화단장)	연희2동 산66	280	226	1971.11
		140	57	1972.8
		48	87	1972.8
응암2동 난민주택	은평구응암동 397, 402	-	-	1956~1973
응암2동 수재민주택	응암동 243, 244	-	-	1958~1973
	응암동 244, 250, 260, 261, 283, 288, 290	-	-	1958~1973
수재민 및 난민주택	응암동 419, 427	7,590	-	1967.4
서부간선변 정리	응암동 178	1,132	197	1971
수색천막촌	수색동 산 30	-		1973년 이전

*정착지는 1997년 서울시 각 구에서 조사된 '73년 기존정착지 무허가건물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서북권역에 해당하는 곳만 목록화 한 것이다.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주택지란 조선총독부가 1938년 9월 21일자 총독부령 제193호로 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 제1조 제1호에서 일단지 주택지의 주택경영을 일단의 주택지 경영과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으로 개정함으로써, 기존 시가지의 변두리에 대규모 공업용지, 주택용지 조성과 함께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도시계획적 개발수법 중 하나다.

서북권역에서는 1940년에서 1942년에 걸쳐 연세대학교 입구에서 금화터널에 이르는 양쪽 일대에 걸쳐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이 시행되었다. 이것은 당시 서울에서 실시한 신촌, 상도, 금호의 3개 주택지 개발 중 하나다. 신촌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으로 사업방식이 바뀐 부유지다.

신촌지구 중 27,625평은 주택영단이 매각하여 일제강점기, 광복 후에 걸쳐 문화주택이 들어섰고, 그 나머지는 광복 후 이화여대와 연세대학교에서 매입하여 학교용지가 되었다. 지금의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금화터널에 이르는 도로와 도시조직의 원형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의한 공사에 의해 확보된 것이며, 현재 남아있는 신촌 부유지 안내도의 도면 중 공원구역은 현재 이화여대 부속 중고등학교가 자리한 곳이다.[20]



신촌 부유지 안내도
대한주택공사(1979), 『대한주택공사 20년사』, 182쪽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1992), 『서대문구지』, 283~28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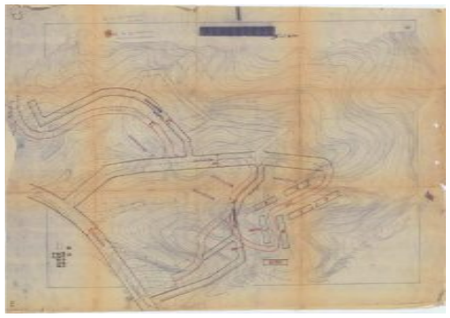
이밖에도 1970년대 민간회사 및 개인에 의한 사택 및 일반주택단지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아래 표와 같다.

단지명	위치	시행면적 (m^2)	시행자	사업시행인가일
홍제단지(태진건설)	홍제동 산33 외 10필지	21,906	태진건설	1972. 5. 31.
연희단지(윤인술)	연희동 산66-16	20,890	태진주택 (윤인술)	1970. 12. 8.
연희단지(백순의)	연희동 산114-7외 1필지	-	-	1973. 10. 30.
신사단지 (철거민정착단지)	신사동 산93	77,891	서울특별시장	1973. 2. 9.
성산단지(서울시장)	성산동 산42-1	76,209	서울특별시장	1977. 2. 3.
통일로변 취락구조	진관외동 472-1	56,530	서울특별시장	1979. 5. 2.
성산단지(한양학원)	성산동 산 11-47	11,785	학교법인 한양학원	1980.2.16.
갈현단지(정연택)	갈현동 산123의 1외 3필지	-	-	1974.04.01.
성산단지(농협중앙회)	성산동 산2번지의 13번지	-	-	1973.06.27.



홍제단지 조성전후, 서울기록원 소장

홍제단지 택지계획 현황 평면도, 서울기록원 소장



홍제단지 택지계획평면도, 서울기록원 소장



· 공영주택단지

서북권역에는 총 25개의 공영주택단지가 있다. 재건주택, 희망주택, 부흥주택, 국민주택 및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공영주택이 지어졌다.



미공개 대한뉴스, 갈현동 지구 국민주택 건설, 1964년 11월 25일, e 영상역사관 소장



1969년 불광동 재건주택,
「[DB를 열다] 1963년 서울 불광동 ICA 주택」, 『서울신문』, 2013년 4월 11일

	주택단지명	위치	건설 년도	총세대수
1	창천동 재건주택, 희망주택	서대문구 창천동 62-13	1954 ,1955	159
2	홍제동 부흥, 국민, 희망주택	서대문구 홍제2동 279	1957, 1958, 1960	188
3	홍제동 희망주택	서대문구 홍제동 312	1955	40
4	홍제동 소형아파트	서대문구 홍제1동 312-35	1965	81
5	홍제동 철우주택	서대문구 홍제동 철우국민주택 334	1968	63
6	홍제동 인왕아파트	서대문구 홍제동 104	1968	132
7	불광동 재건주택	서대문구 불광동 281	1956	171
8	불광동 국민주택	서대문구 불광동 221	1959	102
9	불광동 국민주택	서대문구 불광동 484	1962,1963	158
10	대조동 재건, 국민주택	서대문구 대조동 15	1957,1958	95
11	개명 아파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85	1959	75
12	북가좌동 국민주택	서대문구 북가좌동 5	1959, 1963	242
13	홍은동 국민주택	서대문구 홍은동 8	1963	25
14	갈현동 국민주택	서대문구 갈현동 409	1964, 1965	437
15	연희동 아파트	서대문구 창천동 260	1966	150
16	문화촌 아파트	서대문구 홍은3동 273-195	1967	456
17	연희동 대지조성	서대문구 연희동	1969	
18	서교동 국민주택	마포구 서교동 358-19	1962	76
19	공덕동 국민주택	마포구 공덕동 90-17	1962	28
20	용강동 국민주택	마포구 용강동 149-9	1962	154
21	도화동 아파트	마포구 도화동 산1번지 10통1반	1963	48
22	마포아파트	마포구 마포1동 7	1962, 1964	642
23	중동(남가좌동) 국민주택	마포구 중동 174	1964	85
24	서서울 아파트	마포구 아현1동 85-891	1879	120
25	새마을 아파트	마포구 연남동 244-16	1970	70

무허가주거지

해방과 한국전쟁 후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에 턱없이 부족한 주택수는 서울 곳곳에 무허가주거지를 증가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상경민과 해외동포 및 피난민 등 거주가 불안정한 난민들은 산자락, 하천변, 개발이 멈춰진 공터에 토막, 판잣집과 같은 임시주거지를 지어 촌락을 이루었다. 서북권역에서 대표적인 무허가주거지로 금화산자락, 북아현동, 무악재, 현저동과 같은 구릉지 계단식 주거지와 홍제천, 불광천 등 천변과 철길의 선형을 따라 길게 형성된 주거지가 있다.


1967
1964
남가좌동 국민주택
홍제천의 직간공사와 무허가주거지
연희지구
성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신촌지구 일단의주택지조성
금화산자락
무허가주거지
연희장
금화장
충정아파트
1959
개명아파트
토지구획정리
1954,1955
창천동 재건,희망주택단지
대현지구 토지구획정리
서교지구 토지구획정리
1962
서교동 국민주택단지
1962
공덕동 국민주택단지
공덕지구 토지구획정리
1962
용강동 국민주택단지
1964,5
마포아파트

재개발의 단위

서북권역에서는 2002년 10월 시범 뉴타운 은평지구를 시작으로 5개의 뉴타운지구와 2개의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지정을 통해 정보·환경·문화가 함께 하는 미래형 도시 조성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포로를 비롯한 3개 구역 80개 지구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34개 구역의 주택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건축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37개소(재건축 24, 조합주택 9, 민영주택 3, 리모델링 1)가 사업승인을 통해 진행 중이다.

뉴타운, 택지개발 및 재정비 촉진지구

자치구	지구	시행면적(m^2)	지구지정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	1,079,301.2	2008. 10. 23.
	북아현 뉴타운	899,302.0	2008. 2. 5.
	홍제 촉진	200,492.0	2005. 12. 30.
마포구	아현 뉴타운	1,189,800.0	2007. 12. 6.
	합정 촉진	297,998.2	2010. 1. 21.
은평구	수색·증산 뉴타운	897,090.0	2006. 10. 19.
	은평 뉴타운	3,492,567.8	2002. 10. 23.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자치구	정비구역	정비구역면적(㎡)
마포구	염리5구역 주택재개발	81,426.00
	신수2구역 주택재건축	17,264.50
	공덕제6구역주택재개발	11,326.00
	아현1-3구역 주택재개발	23,405.00
	신수1 주택재건축	47,137.30
	창전1구역 주택재건축	14,770.40
	아현3구역 주택재개발 (뉴타운)	207,508.30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62,245.80
	아현제4 주택재개발	64,357.70
	서강주택재건축	32,069.70
	망원1 주택재건축	20,568.10
	상명삼락주택재건축정	1988.80
	망원동438주택재건축	4737.30
	마포로6 도시환경정비사업	16,857.00
	염리제3구역주택재개발(뉴타운)	87,952.20
	염리2구역 주택재개발(뉴타운)	51,748.30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뉴타운)	65,553.50
	마포로3구역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6,217.32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58,427.00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3,280.50

서대문구	마포로5구역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4,565.81
	가재울뉴타운7구역 주택재개발	79,696.00
	홍제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6,506.00
	홍은제14구역주택재개발	229.34
	연희1주택재건축	19,468.80
	북아현 1-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60,335.50
	북아현 1-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106,645.80
	남가좌동 제1구역주택재건축	63,389.70
	홍제 제2구역 주택재개발	49,382.00
	가재울뉴타운제3구역 주택재개발	240,623.00
	홍은제12구역 주택재개발	26,421.70
	가재울뉴타운제4구역 주택재개발	283,260.70
	가재울뉴타운5구역 주택재개발	52,867.70
	북아현 1-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77,234.20
	가재울뉴타운6구역 주택재개발	48,054.40
	홍은제1주택재건축	19,246.00
	홍은동제2 주택재건축	33,199.00
	홍은동제6 주택재건축	13,020.00
	홍제동 제1주택재건축	38,404.00
	홍제제3구역주택재개발	58,385.00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	36,220.00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13,180.00
	영천구역주택재개발	11,154.20
	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	55,173.00
	북아현 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263,100.00
	북아현 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120,055.80
	홍제3구역주택재건축	27,271.00
	북가좌제6구역 주택재건축	104,656.00
	홍은동 제5주택재건축	34,817.00
	홍제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3,940.00

은평구	수색11재정비촉진구역	3,161.00
	불광제1구역주택재건축	25,928.00
	녹번제1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	66,094.00
	녹번제1구역제1지구주택재개발	39,128.00
	신사동19-190 주택재건축	17,747.20
	녹번제1구역3지구주택재개발	74,820.00
	불광제3구역주택재개발	77,298.00
	불광제7구역주택재개발	61,721.00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	54,729.80
	응암제3구역주택재개발	18,631.70
	불광제4구역 주택재개발	27,645.00
	응암3 주택재건축	30,931.00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61,898.00
	응암제4구역 주택재건축	19,644.00
	수색9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36,458.60
	연희빌라주택재건축	4,838.00
	응암제10구역주택재개발	61,052.60
	응암제11구역 주택재개발	36,242.80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	120,765.20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78,755.20
	수색1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69,727.00
	역촌1구역 주택재건축	32,075.05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66,062.00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31,793.60
	응암제1구역주택재개발	43,938.00
	대조제1구역주택재개발	112,042.70
	신사1 주택재건축	23,174.00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112,573.00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29,884,000.00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	238,850.90
	불광제5 주택재개발	117,919.00
	불광1주택재건축	25,692.00
	수색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4,424.00
	무악연립제2주택재건축	7,868.52
	무악 제2구역 주택재개발	11,058.70

III

서북권역 도시형태분석

1 도시형태분석도
2 도시형태분석도 확대부분도
3 74개 도시공간들
4 영역별 부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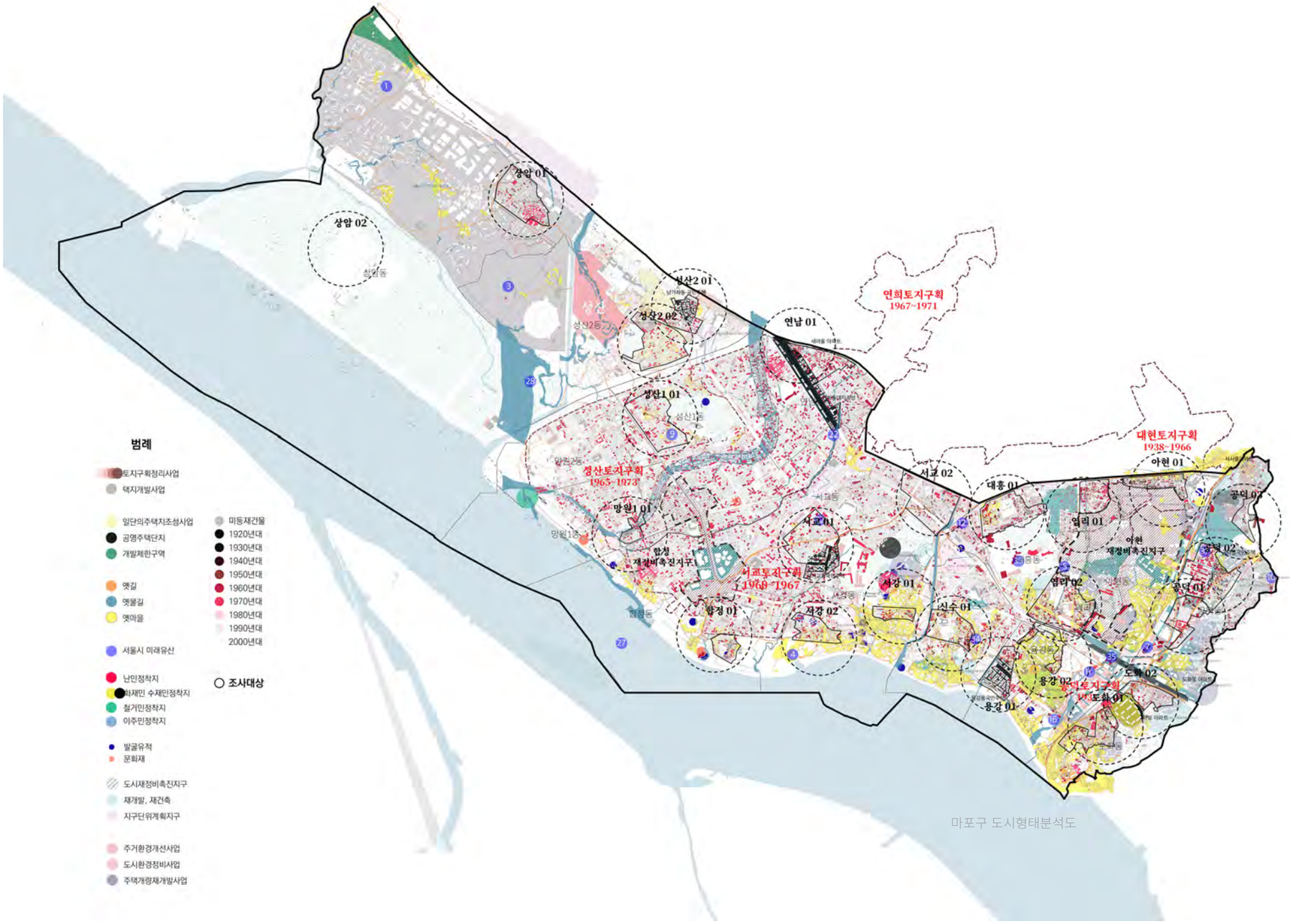
1 도시형태분석도

마포구

마포구의 일부는 조선 후기 용산방과 서강방에 속한다. 이 일대는 한강 하류 연안에 위치하여 주로 삼남지방에서 오는 곡식을 풀어 저장하던 큰 포구가 있었다. 지금의 토정동, 마포동 일대의 마포나루와 신정동, 하중동, 상수동 일대의 서강나루, 절두산 서쪽 부근의 양화진이 대표적이다. 그 일대로 물자를 싣고 나르던 일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크게 형성되어 있었으며, 구한말 개항장으로써도 발전이 있었다.
1910년 서울 도심을 운행하던 전차 노선이 서대문에서 마포까지 연결되었다. 또 일제강점기인 1936년 시역확장 때 지금의 연남동과 망원동 일대가 서울시로 편입되었다. 이때 도심과 가까운 대현지구와 한강과 면해 있으면서도 인근 산자락에 의해 고도가 높고 경사지인 공덕 일대와 신촌 일대가 최적의 주택지로 꼽히면서, 신촌로와 마포대로를 중심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 이후 경성부가 소유하고 있던 신촌지구는 조선주택영단으로 소유권이 바뀌고 해방 후 용지의 대부분은 연희, 이화 재단에 매각되었다.
마포구에는 1902년 기공된 경의선이 관통한다. 경의선은 서울에서 신의주를 잇는 직통열차로 주요 역으로 신촌역과 서강역, 수색역이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철로가 막히고 현재 공원화되었으나 간선은 유지되고 있으며 그 주변으로 철길을 따라 길게 형성된 선형 무허가 주거지 및 수색역 철도관사 등 그 관련 흔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는 다양한 시기의 공간과 건축물이 혼합되어 있다. 도성의 서측으로 바로 접해 있는 서대문구는 서대문밖 조선의 제1대로인 의주로와 마포나루로 통하는 가로 주변에 일찍부터 시가지가 형성되었으며, 또한 1943년 최초의 구제 실시 이후 가장 먼저 생성된 구이기도 하다.
금화산 자락에는 1930년대 말 연희장과 금화장이라는 대규모의 문화주택단지가 조성되었고, 그 아래로는 도시한옥주거지,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이어진다.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아현-대현-신촌으로 이어지는 동서로 긴 형태로 이를 통해 일찍부터 가로가 균질하게 정비되고 주택지가 조성되어 일찍부터 발전되었다.
해방 후에는 안산과 금화산자락의 구릉과 홍제천변에 무허가 주거지가 대규모로 군집을 이루며 형성되었으며, 현재까지 남아있는 대표적인 곳으로는 충현동과 현저동, 홍제동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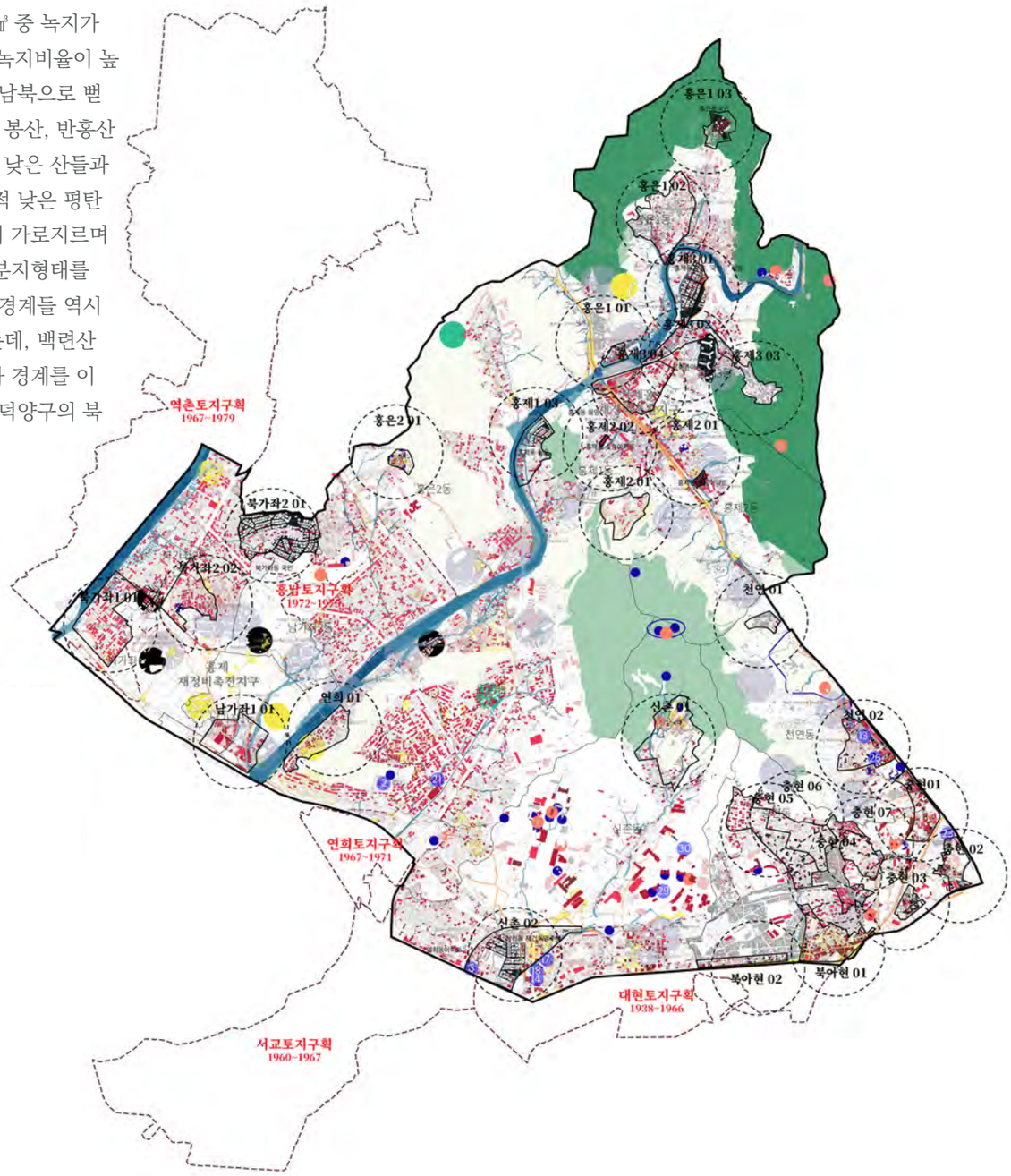

범례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공영주택단지
개발제한구역
옛길
옛물길
옛마을
서울시 미래유산
난민정착지
화재민 수재민정착지
철거민정착지
이주민정착지
발굴유적
문화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재건축
지구단위계획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미등재건물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조사대상
상암 01
상암 02
성산2 01
성산2 02
연남 01
연희토지구획
1967~1971
성산1 01
성산토지구획
1965~1973
망원1 01
합정
재정비촉진지구
서교토지구획
1960~1967
서교 01
서교 02
대흥 01
대현토지구획
1938~1966
아현 01
염리 01
아현
재정비촉진지구
공덕 02
공덕 01
염리 02
서강 01
신수 01
합정 01
서강 02
용강 02
용강 01
도화 02
도화 01
상암동
성산1동
성산2동
망원1동
서교동
합정동
염리동
용강동
도화동

마포구 도시형태분석도

서대문구는 1960년대 서교지구와, 연희지구로 이어지는 대규모 토지구획정리로 질서 정연하고 반듯한 가로와 택지로 정비되어 균질한 주거지와 함께 홍제천 너머 모래내 일대, 남가좌, 북가좌동은 주로 수재민 정착지로 지정되어 시가화되기 시작하였다.

은평구

은평구는 전체면적 33㎢ 중 녹지가 17㎢를 차지할 정도로 녹지비율이 높다. 우측에는 북한산이 남북으로 뻗어있고, 좌측에는 매봉, 봉산, 반홍산이 길게 연결된다. 높고 낮은 산들과 그 가운데 형성된 비교적 낮은 평탄지는 불광천과 녹번천이 가로지르며 남북으로 긴 장방형의 분지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탓에 구경계들 역시 지형을 따라 결정되었는데, 백련산과 불광천이 서대문구와 경계를 이루며, 창릉천이 고양시 덕양구의 북쪽 경계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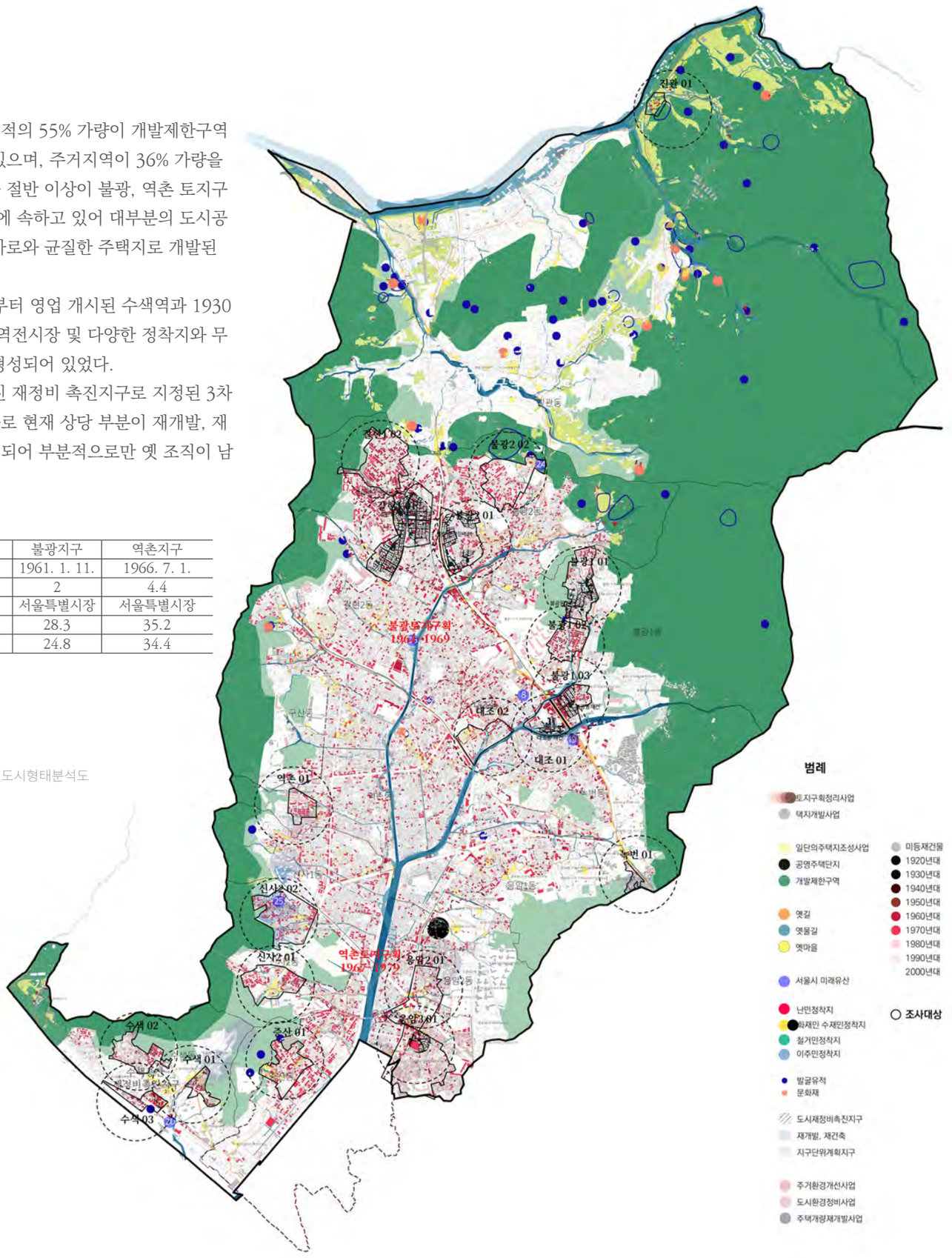
서대문구 도시형태분석도

은평구는 전체면적의 55% 가량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거지역이 36% 가량을 차지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불광, 역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속하고 있어 대부분의 도시공간이 체계적인 가로와 균질한 주택지로 개발된 곳이다.

그밖에 1908년부터 영업 개시된 수색역과 1930년대 철도관사, 역전시장 및 다양한 정착지와 무허가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곳은 수색·증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3차 뉴타운 사업지구로 현재 상당 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진척되어 부분적으로만 옛 조직이 남아있을 뿐이다.

구분	불광지구	역촌지구
지구지정	1961. 1. 11.	1966. 7. 1.
면적(㎢)	2	4.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공공용지율(%)	28.3	35.2
감보율(%)	24.8	34.4



은평구 도시형태분석도

문화재

지도표시	문화재명	구분	위치
01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보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지문길 1-38 (홍은동, 옥천암)
02	서울 영은문 주초	사적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941번지
03	서울 연세대학교 스팀슨관	사적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945번지
04	서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사적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신촌동)
05	서울 연세대학교 아펜젤러관	사적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신촌동)
06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사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현저동, 독립공원)
07	홍지문 및 탕춘대성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산 4-4
08	화산군 이연 신도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75-122
09	양호거사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남가좌동)
10	환희사 목불좌상(아미타불)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환희사(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4길 72-27) 대웅전
11	봉원사 범종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산 1 봉원사
12	반야암 목조관음보살좌상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06 (봉원동)
13	반야암 석조보살좌상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06 (봉원동)
14	무악산동봉수대터	서울특별시 기념물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산1번지
15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파이퍼 홀	국가등록문화재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대현동)
16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선교교육원	국가등록문화재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55 (충정로2가)
17	서울 구 신촌역사	국가등록문화재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74-12번지 , 74-21
18	러들로 흉판	국가등록문화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250-00
19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	국가등록문화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20	서울 연세대학교 핀슨관	국가등록문화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핀슨관
21	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	사적	서울 마포구 토정로 6 (합정동)
22	망원정 터	서울특별시 기념물	서울 마포구 동교로8안길 23 (합정동)
23	용강동정구중가옥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서울 마포구 큰우물로2길 22 (용강동)
24	서울 창전동 공민왕 사당	국가등록문화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21길 13 (창전동, 공민왕사당)
25	서울 서교동 최규하 가옥	국가등록문화재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7-5번지
26	서울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	보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산51번지
27	서울 인조별서 유기비	보물	서울 은평구 역촌동 8-12번지
28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보물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23길 8-5, 수국사 (구산동)
29	서울 금성당	국가민속문화재	서울 은평구 진관동 175-836번지
30	금암기적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서울 은평구 진관동 45-5
31	사현사 석불좌상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서울 은평구 진관동 479-3번지
32	진관사 소 십육나한상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73 (진관동, 진관사 나한전)
33	진관동 석 보살입상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산 100-35
34	화의군이영묘역	서울특별시 기념물	서울 은평구 연서로48길 22
35	숙용심씨묘표	서울특별시 기념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26
36	영산군이전묘역	서울특별시 기념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산 39, 산103-1
37	경천군 이해룡 사패지 송금비	서울특별시 기념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산25
38	진관사 석불좌상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서울 은평구 진관4로 107 (진관동)
39	진관사독성전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73 (진관동, 진관사)
40	진관동 석 아미타불좌상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진관동 산100-35

* 문화재목록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heritage.go.kr/heri/cul/culRegionSuView.do?pageNo=1_1_3_1)에서 제공하는 목록 중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정 장소 및 공간을 특정할 수 없는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것이다.
* 발굴유적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2016년 발간된 『서울지역 유적 발굴조사 총서』 중 서북권역에 해당하는 지역만 목록화 한 것이다.

● 발굴유적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1354. 마포구 불당	1385. 화산군 신도비	1425. 북한산성	1465. 영산군 이전 묘	1502. 해주최씨 묘역
1355. 마포종점	1386. 백련사	1426. 전주이씨 화릉군 묘역	1466. 진관외동 마고정마을 산신제	1503. 불광동 산신제
1366. 토정터	1387. 보호수 (서13-4)	1427. 진관내동 여기소마을 완산 이씨 묘역	1467. 진관외동 마고성마을 산신제	1504. 향림사지
1357. 공덕리 금표	1388. 보호수 (서13-6)	1428. 경주이씨 경천군 묘역	1468. 보호수 (서12-1) / 보호수 (서12-2)	1505. 김새신 묘
1358. 아소정터	1389. 양호거사비	1429. 전주이씨 묘역	1469. 보호수 (서12-11)	1506. 영주고씨 묘역
1359. 당인동 당인리 부군당제	1390. 홍제원터	1430. 진관내동 유물산포지2	1470. 보호수 (서12-12)	1507. 조유 묘
1360. 보호수 (서14-11)	1391. 홍제교터	1431. 진관내동 사신성황당	1471. 진관사	1508. 증산동 반홍산 산신제
1361. 합정동 외국인묘지 / 양화진터	1392. 보도각 백불	1432. 진관내동 유물산포지4	1472. 진관사 나한전 소조석가삼존불상	1509. 보호수 (서12-8) / 보호수 (서12-10)
1362. 보호수 (서14-13)	1393. 옥천암	1433. 영천이씨 묘역	1473. 진관사 나한전 소조십육나한상	1510. 고미국해군대위서위렴이세전사기념비
1363. 양화나루 / 잠두봉 유적	1394. 이화여대 내 근대건축	1434. 이린 묘	1474. 진관사 나한전 영산회상도	1511. 불광동 도기요지
1364. 보호수 (서14-1)	1395. 파이퍼홀	1435. 이선 묘	1475. 진관사 십육나한도	
1365. 보호수 (서14-2)	1396. 신촌역사	1436. 우봉김씨 묘역	1476. 진관사 칠성각 칠성도	
1366. 공세청터	1397. 봉원사	1437. 진관내동 상림골 산신제	1477. 진관사 칠성각 영정	
1367. 점검청터	1398. 보호수 (서13-1)	1438. 금암기적비	1478. 진관사 독성각 산신도	
1368. 보호수 (서14-4)	1399. 보호수 (서13-2)	1439. 은언군 신도비	1479. 보호수 (서12-3)	
1369. 보호수 (서14-10)	1400. 보호수 (서13-3)	1440. 은언군 묘소 석물	1480. 보호수 (서12-4) / 보호수 (서12-5)	
1370. 보호수 (서14-12)	1401. 보호수 (서13-5)	1441. 구파발터	1481. 진관내동 내시 묘역	
1371. 서강역사	1402. 보호수 (서13-7)	1442. 진관내동 유물산포지5	1482. 김성휘 묘	
1372. 용강동 정구중가	1403. 안산 유물산포지	1443. 진관내동 유물산포지6	1483. 진관내동 유물산포지1	
1373. 동막큰우물터	1404. 봉원동 유물산포지	1444. 진관내동 석조관음보살입상	1484. 보호수 (서12-13)	
1374. 창전동 공민왕 사당제	1405. 홍제동 유물산포지	1445. 진관내동 석탑재 및 석불	1485. 진관내동 삼천리골사지1	
1375. 창전동 밤섬 부군당굿	1406. 무악 동봉수대터	1446. 진관외동 탑골 산신제	1486. 은언군 사패금표비	
1376. 광흥창터	1407. 무악 서봉수대터	1447. 순흥안씨 묘역	1487. 진관내동 유물산포지3	
1377. 보호수 (서14-3)	1408. 연세대학교 내 근대건축	1448. 사현사 석조여래좌상	1488.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	
1378. 보호수 (서14-5)	1409. 연세대학교 스팀슨관	1449. 불광동 박석고개 성황제	1489. 진관내동 삼천리골사지2	
1379. 보호수 (서14-6) / 보호수 (서14-7)	1410. 연세대학교 아펜젤러관	1450. 불광동 유물산포지3	1490. 삼천사지	
1380. 보호수 (서14-8) / 보호수 (서14-9)	1411.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1451. 해주오씨 벽성군파 묘역	1491. 대지국사탑비	
1381. 망원정터	1412. 수경원터	1452. 벽성군 오치운 묘	1492. 수국사	
1382. 정언옹 묘	1413. 연희궁터	1453. 이팽수 묘	1493. 서릉군 이섬 묘	
1383. 서활인서터	1414. 해병 104고지전적비	1454. 이만산 남사면 내시 / 상궁 묘	1494. 연은군 이응호 묘	
1384. 마포구의 나루터	1415. 금화초등학교 강당	1455. 은언군 묘역터	1495. 인조별서유기비	
	1416. 서지터 / 청수관터	1456. 진관외동 유물산포지3	1496. 역촌1동 역말도당제	
	1417. 감리회 석교교회	1457. 진관내동 이만산 완산이씨 묘역	1497. 연서역터	
	1418. 독립회관터	1458. 해주최씨 / 남양홍씨 묘역	1498. 6.25피학살현장추모비	
	1419. 서묘터	1459. 최효원 묘	1499. 불광동 유물산포지1	
	1420.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원	1460. 진관외동 제각말 산신제	1500. 불광동 유물산포지2	
	1421. 구 서울구치소	1461. 진관외동 금성당	1501. 보호수 (서12-6) / 보호수 (서12-7)	
	1422. 독립문	1462. 전주이씨 화의군 이영 묘역		
	1423. 영은문 주초	1463. 진관외동 유물산포지2		
	1424. 의령원터	1464. 전주이씨 영산군파 묘역		

서울 미래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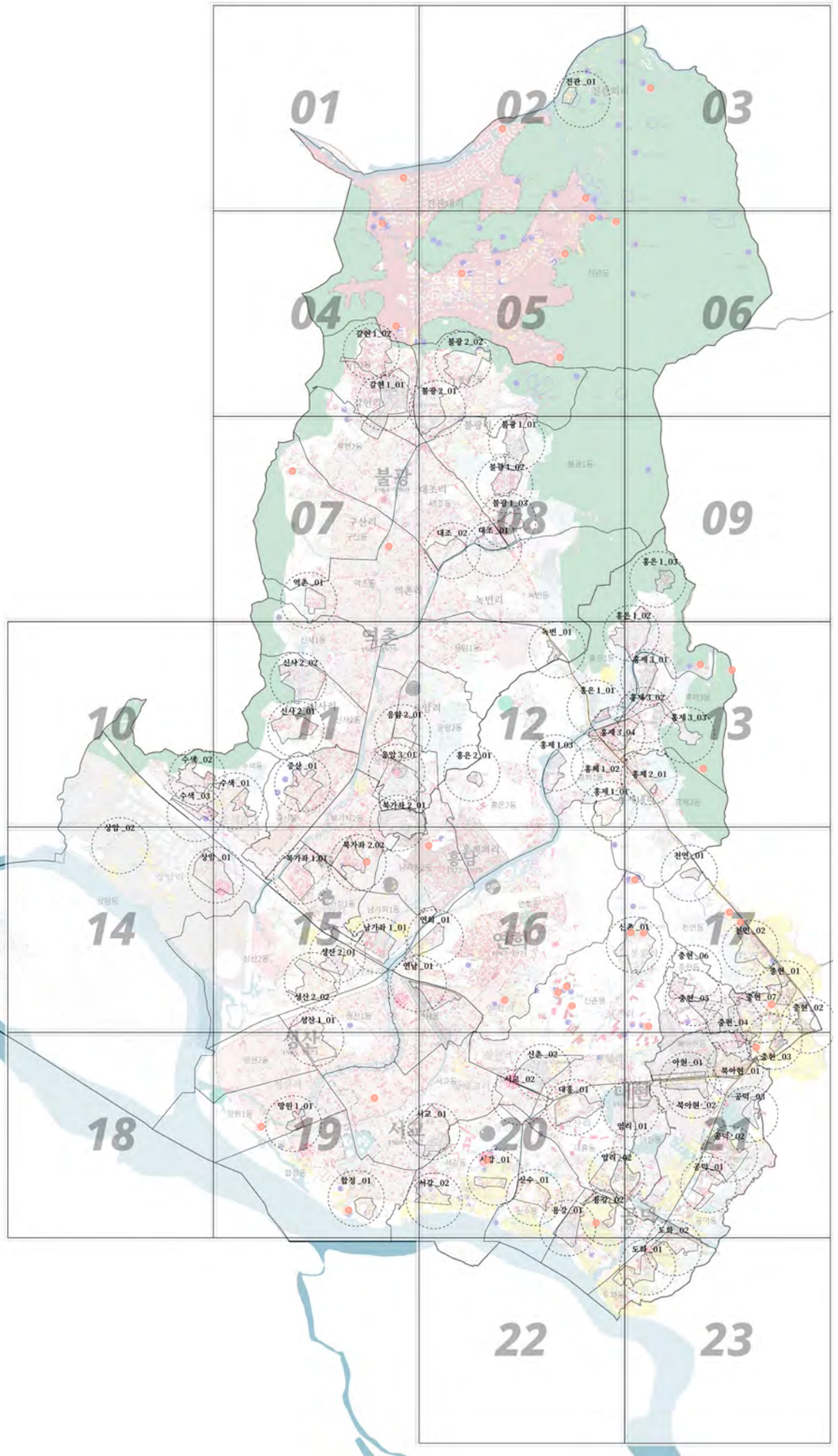
지도표시	미래유산명	위치	선정사유
01	상암동 일본군 관사	마포구 가양대로 189	1930년대 일제강점기 일본군 경성사단이 중국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세운 일본군 장교용관사이며 시대의 아픔을 간직한 네거티브 유산
02	연희 104고지 전적지	서대문구 성산로13길 35-1	한국전쟁 당시 서울 수복의 교두보를 마련했던 장소
03	마포 석유비축기지	마포구 증산로 (매봉산 일대)	서울지역의 안정적인 유류 공급을 위해 1978년 건립된 석유비축시설로 2017년 '문화비축기지'라는 이름의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함
04	서울화력발전소(당인리발전소)	마포구 당인동	1930년 설립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화력발전소로써 수도권 전력보급과 근대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서울의 대표적인 상징물
05	선통물천(마포하수터널)	마포구 숭문길 96 (염리시장일대)	현재까지 하수 및 우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일제강점기에 만든 인공하천
06	공씨책방	서대문구 신촌로 51	1972년경 개업하여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헌책방
07	마포진짜원조최대포	마포구 마포대로 112-4	1956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돼지갈비 전문 식당
08	불광대장간	은평구 통일로69길 15	1963년경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철물점(대장간)
09	성미산마을	마포구 성미산로 3나길 6	공동육아 및 대안학교 등 자녀양육의 문제를 주민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성미산 마을극장, 공방, 마을축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주체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는 마을
10	성우이용원	마포구 효창원로 97길 4-1	1927년경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이발소
11	역전회관	마포구 토정로37길 47	1962년 개업하여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바싹불고기 전문식당
12	연남서식당	마포구 백범로2길 32	1953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소갈비 전문식당
13	영천시장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38일대	1960년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떡 도매시장
14	홍익문고	서대문구 연세로 2	1960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서점
15	독수리다방	서대문구 연세로 36	1971년 개업하여 2005년 휴업 후 2013년 같은 장소에서 재개업하여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있는 커피전문점
16	마포옥	마포구 토정로 312	1949년경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음식점
17	미네르바	서대문구 명물길 18	1975년 신촌 일대에서 처음으로 개업한 원두커피 전문점으로, 70년대 신촌 대학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추억의 장소
18	복지탁구장	서대문구 연세로 8	1962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탁구장
19	청기와양복점	은평구 통일로 697	1973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맞춤형 양복점
20	형제대장간	은평구 수색로 249	1976년 개업이후 일정기간 폐업을 했지만 1997년 다시 운영되고 있는 대장간
21	독일빵집	서대문구 연희로 11길 22	1952년 개업하여 4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제과점
22	연남동 기사식당거리	마포구 연남파출소 기준 좌측 연남로 400m	1970년대 후반부터 자연스럽게 택시기사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30년 가까이 택시기사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식당들이 분포

23	통술집	서대문구 통일로 107-4	1963년부터 서대문 근처에서 운영해온 돼지갈비 집으로 55년째 영업중임
24	불광동 성당	은평구 통일로 786	1986년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종교건축물로 한국 근현대 건축문화사를 대표하는 건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
25	산새마을	은평구 가좌로 11나길	재개발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해체를 극복하기 위해 두꺼비하우징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가 실시된 지역. 텃밭 가꾸기, 마을방법활동 등의 마을 활동이 확산되고 있음.
26	석교감리교회	서대문구 독립문로 35	1916년 지어진 강당식 평면형식을 가진 고딕양식의 교회건축물로 첨두아치(Pointed Arch) 등에서 우수한 조적디테일을 보여주는 건축물
27	양화대교	마포구 양화로 ~ 선유로	광복 후 한국 기술진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교량
28	월드컵공원(노을공원, 하늘공원)	마포구 월드컵로 251일대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를 친환경적 공간으로 재생한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 중 하나
29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1956년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지어진 건축물로 당시 서울의 대표적인 공연장의 하나로 사용. 튜터풍의 고딕양식 외관, 첨두형 아치의 고딕장식 등 건립당시의 모습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음
30	이화여자대학교 진선미관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1935년 지어진 석조 기숙사 건축물로 건립 당시의 모습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있어 건축사 및 교육사적인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
31	한국정교회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마포구 마포대로18길 43	1968년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비잔틴 양식의 그리스십자형 교회건축물. 내부의 벽화(icon화) 장식 등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는 국내 유일의 정교회 성당이자 건축가 조창한의 작품
32	홍대 앞 서교 365	마포구 홍익로3길 1	용산에서 당인리발전소를 연결하는 철로를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상점가. 도시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만나 진귀한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는 곳으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누적된 도시의 역사가 형성되어 있는 장소
33	서강대학교 본관	마포구 신수동 1-1	건축가 김중업의 초기 대표작 중 하나로 1950년대부터 서강대 본관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건물로서 보존가치가 있음
34	하늘가족교회 구 예배당	마포구 독막로28길 46	1958년 지어진 석조 교회 건물로 보전가치 있음
35	경의선 숲길 공원	용산구, 마포구 일대	경의선 철도가 지하화되면서 기존 지상철도구간에 조성된 공원으로 일제강점기 시절의 주요물자 이동선 역할과 서울역 개통 이후의 교외선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기억을 안고 재생된 도시의 숲길 공원
36	장용학가옥	은평구 연서로 183-10	현대의 비인간적 상황을 관념적인 문장으로 서술하여 관념소설이라는 새로운 계보를 만들어 낸 작가로 평가받고 있는 소설가 장용학이 1970년부터 1999년 타계 시까지 거주했던 가옥

* 서울미래유산은 2013년부터 서울시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서울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가치가 있는 자산을 발굴하여 보전하는 프로젝트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미래유산의 선정과정에 동참한다. 선정대상은 서울을 대표하는 유산 중 국가·서울시 지정·등록문화재로 등재되지 않은 유·무형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본 리스트는 2021년 공개된 서울미래유산 목록 중 무형자산을 제외한 것이다.

2

도시형태분석도 확대부분도



조사구역별 색인

연번	조사구역	구역별 부분도	현장조사 자료집
A01	은평·녹번 01 • 구릉지 무허가주거지 • 산골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2	138p
A02	은평·갈현1 01 • 1964, 1965년 갈현동 국민주택단지 • 12평 P.C주택(갈현동 424-11) • 갈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04	142p
A03	은평·갈현1 02 • 1960년대 주택단지 • 선형무허가주거지 • 갈현제1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04	146p
A04	은평·대조 01 • 1957,1958년 대조동 재건·국민주택단지 • 제일시장 • 녹번천 1978년 복개	08	150p
A05	은평·대조 02 • 대조리 옛마을조직 • 1950년대 말~1960년대 주택집단 • 옛물길자리 무허가주택	08	154p
A06	은평·응암2 01 • 1960년대 주택집단 • 응암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11	158p
A07	은평·응암3 01 • 수재민정착지(응암동 프로젝트) • 2호연립(건축물대장 1962년 등재) • 대림시장 • 응암4-2 주택재개발정비지구	11	162p
A08	은평·신사2 01 • 신사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12평 PC주택(갈현동 424-11) • 갈현	11	166p
A09	은평·신사2 02 • 이주정착지 • 산새마을-산새둥지, 공동텃밭	11	170p
A10	은평·증산 01 • 증산리 옛마을 • 경기도 농가주택 • 역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1	174p
A11	은평·수색 01 • 수색이 옛마을-자연발생적 주거지 • 수색발전소-1937년 건설 • 대규모 무허가주거지 (1960년대 도동판자집철거 이동) • 수색아파트 • 수색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수색2-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수색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수색7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수색·증산 재개발촉진지구	11	178p
A12	은평·수색 02 • 철도관사-1940년 추정 • 수색역(서울-신의주) -1902년 기공, 1908년 운행 • 수색4 재정비촉진구역 • 수색6 재정비촉진구역 • 수색7 재정비촉진구역 • 수색13 재정비촉진구역-철거완료	10	182p
A13	은평·수색 03 • 철길앞 오래된 상업가로 • 철길옆 주거지 • 형제대장관-서울시미래유산 • 모래내대장관	10	186p
A14	은평·진관 01 • 애기소(우물) • 경기도 농가주택	01	190p
A15	은평·불광1 01 • 1959년 불광동 국민주택단지 • 불광3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리구역	08	194p
A16	은평·불광1 02 • 1960년대 주택의 다양한 유형 • 1965년 단독주택 원형 집단 (불광로5길) • 1966년 9,10호 연립주택2동 (불광로5가길 12-15) • 불광5구역 주택재개발	08	198p
A17	은평·불광1 03 • 1957년 재건주택단지-9,12평 • 불광동 먹자골목 • 중앙로터리	08	202p
A18	은평·불광2 01 • 1962,63년 국민주택단지 -10,15,17평 • 1964~1969년 불광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불광리 옛마을 • 연서시장	05	206p
A19	은평·불광2 02 • 1970년대 주거지 • 옛농가주택	05	210p

A20 은평·역촌 01 • 1974~1975년 소규모 주택단지 -민간개발 • 역촌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역촌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철거완료,토공사중 • 은평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07	214p
B01 마포·용강 01 • 용강동 국민주택 1962년 • 동막상리 • 토정리 • 현석리 • 정구중가옥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 용강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용강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용강3 주택재개발정비구역	20	218p
B02 마포·용강 02 • 동막하리 • 염리 • 용강동 국민주택 1962년 • 마루보시주택 • 정구중가옥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 대흥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용강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경의선	20	222p
B03 마포·대흥 01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노고산리	20	226p
B04 마포·염리 01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대현리 • 북아현리 •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 아현2 재정비촉진지구 • 염리3 주택재개발사업지구 •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1	230p
B05 마포·염리 02 • 마루보시주택 • 신수철리 • 염리 • 동막상리 • 아소정토-대원군별장 • 공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대흥 제3주택재개발구역 • 경의선	20	234p
B06 마포·신수 01 • 현석리 • 하늘가족교회-서울시 미래유산 • 신수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현석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20	238p
B07 마포·서교 01 • 서교동 국민주택단지-1962, 1963년서교365 • 옛 철길 • 서세교리 • 서교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0	242p
B08 마포·서교 02 • 서교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창전동 재건·희망주택단지1954, 1955년 • 경의선	20	246p
B09 마포·합정 01 • 무허가주거지 • 서교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당인리발전소 •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 • 절두산 순교성지	19	250p
B10 마포·망원1 01 • 성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서교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물길 위 무허가주거지	19	254p
B11 마포·연남 01 • 연희동 대지조성 1969년 • 연남아파트 • 연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경의선 • 성산단지 1973년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15	258p
B12 마포·성산1 01 • 성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성산리 • 성미산학교	19	262p
B13 마포·성산2 01 • 남가좌동(중동) 국민주택 1964년 • 성산단지 1973년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15	266p
B14 마포·성산2 02 • 성산단지 1973년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 성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5	270p
B15 마포·상암 01 • 난민정착지 • 서울 상암2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	14	274p
B16 마포·상암 02 • 일본군관사-서울시 미래유산 등재 (상암2택지개발지구에서 이축) • 상암택지개발지구	14	278p
B17 마포·도화 01 • 공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마포리 • 도화리 • 마포아파트	23	282p
B18 마포·도화 02 • 공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마포아파트 • 도화1주택재개발정비구역 • 난민정착지	21	286p

B19 마포·서강 01 • 상수일리 • 밤섬 이주정착지 • 창전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상수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	290p
B20 마포·서강 02 • 당인리발전소 • 당인리 • 서교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당인리부군당	20	294p
B21 마포·공덕 01 • 공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공덕리 • 마포시장 • 공덕시장(구 한흥시장) • 공덕1주택재건축정비구역	21	298p
B22 마포·공덕 02 • 공덕동 국민주택 1962년 • 서울성니콜라스 대성당 • 만리재고개 • (구) 경성감옥 • 공덕1구역 재건축정비구역	21	302p
B23 마포·공덕 03 • 무허가주거지 • 아현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아현1-3 재개발정비구역 • 아현4구역 재개발정리구역	21	306p
B24 마포·아현 01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북아현리 • 아현3 주택재개발사업구역 • 아현2 재정비촉진지구 • 북아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 아현시장	21	310p

C01 서대문·천연 01 • 구릉지 무허가주거지 -현저동[현저2 주거환경개선지구]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17	314p
C02 서대문·천연 02 • 옛 모화관(독립회관 자리) -서대문영천 반도유보라아파트 (예정) • 영천시장 • 한옥지구 • 석교교회 • 만초전-석교 • 서지-금화초등학교 • 청수관-동명여중 • 서묘-재생원맹아부 • 나운규 거처 유적지, 사적지 (서대문구 독립문로3길 13)	17	318p
C03 서대문·홍제1 01 • 홍제단지-1978 태진건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 홍제시민아파트-1970 건설, 2001 아파트 7동 철거-공원조성	12	322p

C04 서대문·홍제1 02 • 홍제아파트-1965 대한주택공사, 홍제동 소형아파트 • 홍제맨숀아파트 1971 • 서울맨숀아파트 1972	12	326p
C05 서대문·홍제1 03 • 홍제철우주택단지	12	330p
C06 서대문·홍제2 01 • 인왕아파트 1968 • 안산맨숀아파트 1972	13	334p
C07 서대문·홍제3 01 • 문화촌-홍제동 부흥주택 1957, 국민주택 1958, 희망주택 1960 • 1960~1961 단독주택 골목 (산호대로 4길) • 천변무허가주거지 • 홍은4 주택재개발정비지구 • 홍은4-1 주택재개발정비지구	13	338p
C08 서대문·홍제3 02 • 문화촌 -홍제동 부흥,국민,희망주택 • 홍제천 지류 옛 물길 위 1950~1960년대 추정 주택지 (1947 항공사진에 조성 전 상태) • 홍제원 화장터 • 홍제13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홍제 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13	342p
C09 서대문·홍제3 03 • 홍제동 개미마을 무허가주거지 • 개미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13	346p
C10 서대문·홍제3 04 • 유진맨숀상가 1969 • 제일주택 1980 • 한옥골목 • 홍제내리 옛 마을조직 옛길	12	350p
C11 서대문·홍은1 01 • 홍제외리 옛 마을조직 (가로형 조직) • 1940 ~ 1960년대 주택골목 (세검정로1길) • 홍제2 재정비촉진지구 • 홍은4 주택재개발정비지구 • 홍은1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홍은 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12	354p
C12 서대문·홍은1 02 • 홍은동 구릉지 무허가주거 • 홍은2-2 주거환경개선지구 • 홍은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홍은 제3주택재건축정비구역 • 홍은 제8주택재개발정비사업	09	358p
C13 서대문·홍은1 03 • 홍은동 국민주택단지 1963	09	362p
C14 서대문·홍은2 01 • 백련사 아랫마을 • 홍은 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	12	36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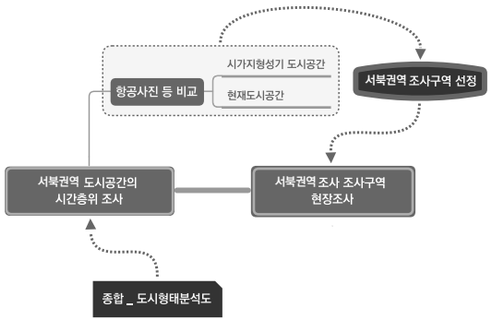
C15 서대문·남가좌1 01 • 좌원상가아파트 1966 • 모래내 시장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 남가좌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15	370p
C16 서대문·북가좌1 01 • 역촌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967~1979 • 1970년대 중반(1974~1977년) 주택과 골목들 • 신촌연립 합동맨숀 1982 단지형 연립주택-필지 분할하여 동단위로 지어진 것으로 보임 •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가재울3 주택재개발사업	15	374p
C17 서대문·북가좌2 01 • 북가좌동 국민주택단지 1959, 1963	15	378p
C18 서대문·북가좌2 02 • 역촌토지구획정비사업지구 1967~1979 • 1969년 2층 단독주택군들과 골목길 • 1972~1974년 단독주택군들과 골목길 • 옛마을 조식 • 가재울뉴타운 2구역	15	382p
C19 서대문·충현 01 • 1930년대 대규모 단독주택군 (충정로11길) • 1930~1934년 건물들 • 1955~1962 도시한옥군 • 2층 한옥 (충정로2가 202) • 서대문밖 옛 도시조직 • 서지 • 천연정 • 금화원	17	386p
C20 서대문·충현 02 • 1933~1949 미근동 한옥군과 골목 (충정로6길 35-13) • 서대문밖 미근동일대 옛 도시조직 • 서소문아파트 1970 • 서소문고가도로 -1966. 6. 25 개통	17	390p
C21 서대문·충현 03 • 충정아파트 • 충정각 • 프랑스 대사관 1959 • 1932~1937 한옥군과 골목 • 서대문-서소문-남대문밖 길들이 만나는 옛길과 옛 도시조직 •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7	394p
C22 서대문·충현 04 • 무허가주거지-금화산 구릉 능선 • 충정맨숀 1979 • 금화장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7	398p
C23 서대문·충현 05 • 북아현동 1930년대 한옥군, 2층 한옥군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의령원 의소세손묘-중앙여자고등학교	17	402p
C24 서대문·충현 06 • 연희장 일제강점기 교외주택지	17	406p
C25 서대문·충현 07 • 금화장 • 금화원	17	410p
C26 서대문·북아현 01 • 서대문-서소문-남대문밖 길이 모였다 대현방향 아현방향으로 나뉘어지는 부분의 옛 도시조직 • 옛 길-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서 큰 길이 나게되어 원형상태로 남을 수 있게된 옛길	21	414p
C27 서대문·북아현 02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194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규칙적인 도시조직 내 한옥군 • 대현 옛 길과 옛 도시조직 • 화빈묘-한성중학교 • 아현2 재정비촉진지구 • 아현3 주택재개발사업구역	21	418p
C28 서대문·신촌 01 • 봉원사, 봉원사 아랫마을	17	422p
C29 서대문·신촌 02 • 창천동 재건주택단지 1954, 희망주택단지 1955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신촌리 옛 마을조직 옛 길	20	426p
C30 서대문·연희 01 • 1960년대 모래내 천변 주거지역, 1960년대 단독주택군 • 연희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홍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가재울4 재정비촉진지구 • 모래내(홍제천)	16	430p

3 74개 도시공간들

구역선정

조사구역은 도시공간·도시형태 분석 결과와 조사권역 전체에 대한 시가지 형성기와 현재 항공사진 비교를 통하여 현재 도시공간에 내재된 시간층위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하여야 할 조사구역을 선정한다.

서북권역에서는 서대문구 30개 구역, 마포구 24개 구역, 은평구 20개 구역으로 총 74개 조사구역이 선정되었다. 이 구역들은 도시계획 및 공영주택, 각종 주택단지 건설사업에 의해 조성된 계획지구, 계획단지 외에도 특별한 의미와 장소성을 갖는 공간 등이 포함되며, 주로 개별 건축물이 아닌 개발의 단위별로 검토된 결과다.



서북권역 74 조사구역 조사구역 선정방법

연번	행정동	구역코드	위치	조사구역별 특징	조사일시
A01	녹번동	**은평·녹번 01**	통일로 579-14	구릉지 무허가 주거지	2021. 10. 16.
A02	갈현동	**은평·갈현1 01**	통일로89길 19-4	갈현동 국민주택단지	2021. 10. 27.
A03		**은평·갈현1 02**	갈현로41길 36-25	1960년대 주택단지, 계곡 무허가주거지	2021. 8. 11.
A04	대조동	**은평·대조 01**	통일로 731	대조동 재건·국민주택, 1960년대 대조, 제일시장	2021. 8. 03.
A05		**은평·대조 02**	불광로 3-1	여러시기 주택혼합	2021. 8. 03.
A06	응암제2동	**은평·응암2 01**	응암로16길 8-19	응암리 옛 마을조직	2021. 7. 19.
A07	응암제3동	**은평·응암3 01**	응암로4길 31	수재민 정착지	2021. 7. 19.
A08	신사제2동	**은평·신사2 01**	은평터널로 146-28	신사리 옛 마을조직, 1970년대 주거지	2021. 7. 26.
A09		**은평·신사2 02**	가좌로11가길 29-12	신사동 이주정착지	2021. 7. 26.
A10	증산동	**은평·증산 01**	증산로5길 32	증산리 옛 마을조직	2021. 8. 30.
A11	수색동	**은평·수색 01**	은평터널로2길 9-7	수색리 옛 마을조직, 수색아파트	2021. 7. 23.
A12		**은평·수색 02**	-	철도관사	2021. 7. 23.
A13		**은평·수색 03**	수색로 273-1	철길 옆 주거지	2021. 7. 23.
A14	진관동	**은평·진관 01**	북한산로 256-5	1960년대 경기도주택	2021. 10. 27.
A15	불광제1동	**은평·불광1 01**	불광로9가길 5	불광동 국민주택단지	2021. 8. 5.
A16		**은평·불광1 02**	불광로5가길 12-18	1960년대 주거지, 1966년 9,10호 연립주택	2021. 8. 5.
A17		**은평·불광1 03**	진흥로15길 18-7	불광동 재건주택단지	2021. 8. 3.
A18	불광제2동	**은평·불광2 01**	통일로82길 18-13	불광동 국민주택단지	2021. 8. 9.
A19		**은평·불광2 02**	연서로43가길 5	1970년대 주거지	2021. 8. 9.
A20	역촌동	**은평·역촌 01**	갈현로7가길 24-6	1974년 주택단지	2021. 8. 30.
B01	용강동	**마포·용강 01**	대흥로6길 6-14	용강동 국민주택단지	2021. 7. 15.
B02		**마포·용강 02**	큰우물로 41	동막하리 옛 도시조직	2021. 7. 15.
B03	대흥동	**마포·대흥 01**	고산3길 15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구릉지무허가주거지	2021. 10. 18.
B04	염리동	**마포·염리 01**	대흥로28길 13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여러시기 주택혼합	2021. 10. 18.
B05		**마포·염리 02**	백범로26길 6	염리,신수철리 옛도시조직, 마루보시주택	2021. 8. 26.
B06	신수동	**마포·신수 01**	토정로 15안길 11-9	현석리 옛 도시조직	2021. 8. 26.
B07	서교동	**마포·서교 01**	잔다리로 8-6	서교동 국민주택단지, 서교365	2021. 8. 23.
B08		**마포·서교 02**	와우산로32길 38-2	철길 옆 무허가주거지	2021. 9. 2.

B09	합정동	**마포·합정 01**	토정로4안길 13-5	합정리 옛 마을조직, 당인리 발전소 언덕 무허가주거지	2021. 8. 30.
B10	망원동	**마포·망원1 01**	회우정로10길 16	성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외 물길복개무허가주거지	2021. 8. 23.
B11	연남동	**마포·연남 01**	성미산로27길 67	철길 옆 1960년대 주거지, 연남아파트, 연희동 대지조성	2021. 10. 13.
B12	성산제1동	**마포·성산1 01**	월드컵로30길 16	성산리 옛 마을조직, 성미산마을	2021. 8. 13.
B13	성산제2동	**마포·성산2 01**	성암로5길 35	남가좌동 국민주택단지	2021. 8. 13.
B14		**마포·성산2 02**	새터산14길 24-14	성산단지	2021. 8. 13.
B15	상암동	**마포·상암 01**	성암로15길 69-2	난민정착지	2021. 7. 20.
B16		**마포·상암 02**	가양대로 179	일본군(육군)관사	2021. 7. 23.
B17	도화동	**마포·도화 01**	도화길 22-3	도화리, 마포리 옛 도시조직	2021. 8. 8.
B18		**마포·도화 02**	도화길 48-13	공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한옥잔존지역	2021. 8. 9.
B19	서강동	**마포·서강 01**	독막로 154-11	상수일리 옛 도시조직	2021. 8. 6.
B20		**마포·서강 02**	토정로 105	당인리 옛 마을조직	2021. 8. 30.
B21	공덕동	**마포·공덕 01**	마포대로12길 36	한옥잔존지역	2021. 8. 9.
B22		**마포·공덕 02**	만리재로7길 18-8	공덕동 국민주택단지, 한옥잔존지역	2021. 8. 27.
B23		**마포·공덕 03**	환인7안길 8	구릉지 무허가주거지	2021. 8. 27.
B24	아현동	**마포·아현 01**	신촌로34길 33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한옥잔존지역	2021. 9. 14.

C01	천연동	**서대문·천연 01**	통일로 287-33	구릉지 무허가주거지	2021. 10. 16.
C02		**서대문·천연 02**	독립문로1길 3-14	옛 모화관자리, 한옥잔존지역, 영천시장	2021. 10. 16.
C03	홍제제1동	**서대문·홍제1 01**	모래내로24나길 5	홍제단지	2021. 8. 31.
C04		**서대문·홍제1 02**	통일로 39길 38-17	홍제동 소형아파트	2021. 8. 17.
C05		**서대문·홍제1 03**	홍제내2길 50-5	홍제동 철우주택단지	2021. 8. 31.
C06	홍제제2동	**서대문·홍제2 01**	간호대로4길 16-3	홍제동 인왕아파트	2021. 8. 19.
C07	홍제제3동	**서대문·홍제3 01**	세검정로 45	홍제동 문화촌 (부흥 ·국민 ·희망주택)	2021. 8. 19.
C08		**서대문·홍제3 02**	세검정로4길 129-90	홍제동 문화촌, 천 복개위 여러시기 주택 혼합	2021. 8. 19.
C09		**서대문·홍제3 03**	-	구릉지 무허가주거지	2021. 8. 17.
C10		**서대문·홍제3 04**	통일로32길 3	유진맨숀 상가아파트	2021. 8. 20.
C11	홍은제1동	**서대문·홍은1 01**	세검정로1길 11-1	구릉지 무허가주거지	2021. 8. 17.
C12		**서대문·홍은1 02**	홍은중앙로9가길 20	구릉지 무허가주거지	2021. 8. 20.
C13		**서대문·홍은1 03**	홍은중앙로 172-13	홍은동 국민주택단지	2021. 8. 20.
C14	홍은제2동	**서대문·홍은2 01**	백련사길 188-9	백련사 아랫마을	2021. 10. 16.
C15	남가좌제1동	**서대문·남가좌1 01**	수색로 42	좌원상가아파트,모래내시장	2021. 10. 8.
C16	북가좌제1동	**서대문·북가좌1 01**	수색로8가길 27	역촌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021. 8. 30.
C17		**서대문·북가좌2 01**	증가로24다길 27-6	북가좌동 국민주택단지	2021. 7. 19.
C18	북가좌제2동	**서대문·북가좌2 02**	거북골로16길 37-9	1973년 주택단지	2021. 7. 20.
C19	충현동	**서대문·충현 01**	충정로 67-3	서대문밖 옛 도시조직	2021. 10. 5.
C20		**서대문·충현 02**	충정로6길 31-10	서대문밖 옛 도시조직, 서소문아파트	2021. 10. 5.
C21		**서대문·충현 03**	충정로2길 14	서대문밖 옛 도시조직, 충정아파트	2021. 10. 5.
C22		**서대문·충현 04**	북아현로10길 41-18	구릉지 무허가주거지	2021. 10. 1.
C23		**서대문·충현 05**	북아현로20길 27-3	한옥잔존지역	2021. 9. 15.
C24		**서대문·충현 06**	북아현로22마길 11-6	연희장	2021. 9. 15
C25		**서대문·충현 07**	경기대로7길 34-20	금화장	2021. 10. 1.
C26	북아현동	**서대문·북아현 01**	신촌로37길 48	북아현리 옛 도시조직, 한옥잔존지역	2021. 9. 14.
C27		**서대문·북아현 02**	신촌로31안길 16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한옥잔존지역	2021. 9. 14.
C28	신촌동	**서대문·신촌 01**	봉원사길 96-11	봉원사 아랫마을	2021. 10. 16.
C29		**서대문·신촌 02**	연세로7안길 47	창천동 재건, 희망주택단지	2021. 9. 2.
C30	연희동	**서대문·연희 01**	홍제천로 54-26	1960년대 천변주거지	2021. 10.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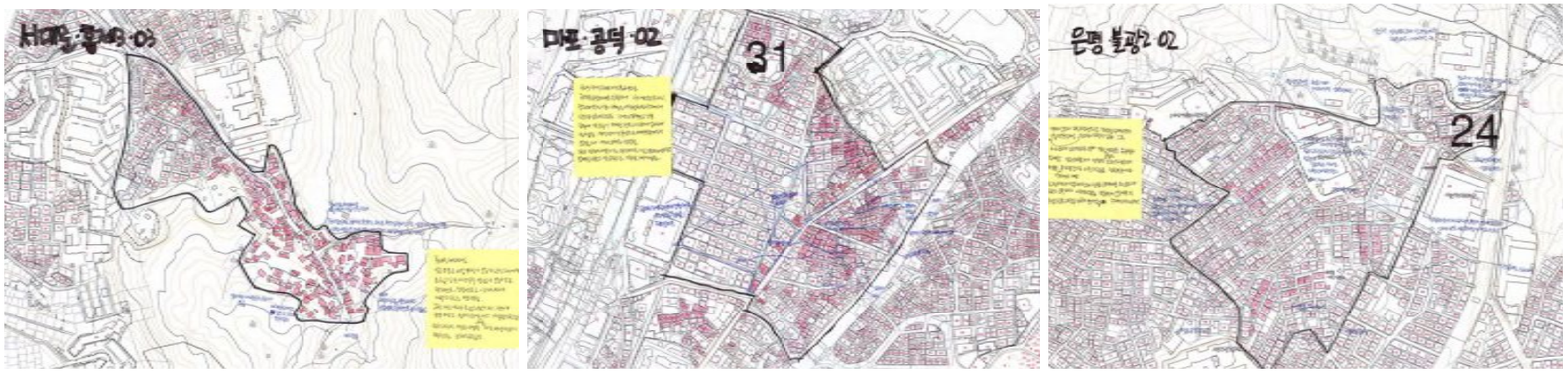


서북권역 74개 조사구역

현장조사

현장조사시트

모든 구역에 대해서는 현장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에서는 A3용지에 조사구역이 포함된 베이스맵 위에 현장 상황을 수기로 기록한 현장조사도면이 작성되었다. 현장조사에서는 대부분 형성기의 도시조직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길의 형상, 골목의 폭, 계획단지의 구조 등을 확인하였다. 건물은 1950~1970년대 사이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물의 현 상황과 용도를 기록하고, 어떤 변형이 있었는지, 그 상태는 어떠한지를 기록하였다.
현장조사 시트를 기본으로 옛 길과 옛 마을의 위치 등 도시공간의 층위를 드러낼 수 있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더해 상세 조사분석도를 작성하였다.



현장조사시트

사진 촬영 및 데이터 관리

현장조사에서 축적한 데이터는 A3 크기의 현장조사시트를 스캔한 디지털 이미지 파일과 사진 파일, 동영상 파일이다. 구역별로 폴더를 생성하고 다시 조사날짜를 기준으로 그룹핑하여 분류하였다. 사진 파일의 번호체계는 '날짜, 순서_구역코드_촬영자 000'로 예를 들어 2021년 7월 20일 조사된 서대문구 북가좌 제2동의 02번 조사구역은 '20210720B_서대문_북가좌2_02-L001'부터 '20210720B_서대문_북가좌2_02-L206'로 정리되며 그 폴더 안에는 총 206장의 사진이 있다. 사진 파일에는 위치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사진 촬영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서북권역 조사구역별 특징

서북권역은 그 조직유형별 특징에 따라 크게 13개의 항목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대부터 유지되어왔을 옛길과, 옛 도시조직은 주로 서대문-서소문 밖 아현·대현 일대, 남대문밖 만리재 일대, 한강변 경강포구가 있던 마포·서강 일대를 비롯하여 합정리, 성산리, 수색리, 응암리 등 고양군 연희면과 용강면, 은평면, 신도면의 크고 작은 경기도 농촌마을들이 있었다. 현재는 은평구와 종로구의 산자락에 부분적으로나마 옛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미근동과 북아현동에서 옛 골목과 조직이 일부 남아있는 상태다.
주로 평지를 중심으로 외곽의 대규모 시가지 개발 방식이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30년대 말 일제강점기의 대현지구에 속했던 아현, 북아현동, 대흥동 일대에서 균질한 크기의 조직이 일부 남아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한국전쟁 직후 도심에 집중되다가 1960년대부터 다시 외곽을 중심으로 지구가 지정되었는데 당시 마포 너머 서교와 홍제 너머 불광지구가 먼저 지정되고 이와 바로 면한 평지인 연희, 성산지구와 갈현지구가 지정되어 대규모 택지개발이 있었다. 이 지구들은 1960~1970년대 외곽의 신흥 주거지로써 1,2층의 정연한 고급 단독주택들이 조성되었으며 그 조직들은 현재 서교, 연남, 북가좌동, 갈현동, 대조동 등지에서 유지되고 있다.
대한주택영단의 공영주택은 주로 서대문 밖 의주로를 따라 무악재 고개를 넘어 홍제, 홍은동 골짜기와 대조동, 갈현동 일대에서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국민주택과 재건주택단지로 조성되었다. 특히 서북권역에서는 충정아파트, 수색아파트, 서서울아파트, 홍제아파트와 지금은 사라진 개명아파트, 마포아파트 등을 비롯한 공영아파트와 다양한 형태의 주상복합의 전신인 상가아파트의 연대기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밖에 홍제·홍은동 골짜기와 한강으로 흐르는 불광천, 홍제천의 지류, 또 서북권역 곳곳에 솟아있는 구릉과 산자락에는 무허가 주거지로 형성된 주거지와 그 조직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대표적으로 현저동과 홍제동 개미마을이 있다.
또 서북권역에서는 1958년 응암동 프로젝트로 첫 수재민 정착지가 계획되고 조성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 남가좌동, 북가좌동, 응암동, 수색 일대를 중심으로 수재민 정착지 등이 집중적으로 지정되어 정착지를 기점으로 시가화되기 시작했고, 상암동과 도화동 일대에 1950년대 말 조성된 50가구 규모의 소규모 전재민을 위한 난민정착지의 흔적이 남아있다.

서북권에는 수색역 앞 철도관사(재개발), 상암동 육군관사(재개발로 철거될 당시 2동을 보존하고 이축)와 모래내시장, 대조시장, 9·10호 연립주택, P.C 주택 등 독특한 지형적 특성과 지역성이 반영된 다양한 조직이 분포하고 있다.

01. 옛길, 옛 도시조직

한양도성 서대문-서소문밖 아현, 대현일대 서대문·충현_07
한양도성 남대문밖 만리재 일대 마포·공덕 02
경강포구 마포 서강 일대 마포·도화 01
역원 홍제원, 역촌동
경기도 농촌마을 _합정리, 성산리, 수색리, 응암리, 신사리, 증산리

02. 일제시대 교외주택지

1930년대 금화장 서대문·충현 07
1930년대 연희장 서대문·충현 06

03. 토지구획정리사업

1937-1964년 대현지구 마포·아현 01, 마포·염리 01, 마포·대흥 01, 서대문·북아현 02
1939-1965년 공덕지구 마포·도화 02
1965-1973년 성산지구 마포·망원1 01
1967-1971년 연희지구
1967-1979년 역촌지구 서대문·북가좌1 01
1964-1969년 불광지구 은평·갈현1 01
1972-1975년 흥남지구

04. 관사

1930년대 상암동 일본육군 관사 은평·수색 02
1940년대 수색 철도관사 마포·상암 02

05. 국민주택 등

1962년 공덕동 국민주택 서대문·충현 06
1962년 용강동 국민주택 마포·용강 01
1962년 서교동 국민주택 마포·서교 01
1954,55년 창천동 재건·희망주택 서대문·신촌 02
1957,58,60년 홍제동 부흥·국민·희망주택 (문화촌) 서대문·홍제3 01,02

1963년 홍은동 국민주택 서대문·홍은1 03
1959, 1963년 북가좌동 국민주택 서대문·북가좌2 01
1964년 남가좌동 국민주택 마포·성산2 01
1964, 1965년 갈현동 국민주택 은평·갈현1 01

1957, 1958년 대조동 재건·국민주택 은평·대조 01
1956년 불광동 재건주택 은평·불광1 01
1959, 1962, 1963년 불광동 국민주택 은평·불광2 01

06.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1973년 성산단지 마포·성산2 02
1972년 홍제단지 서대문·홍제1 01

07. 아파트

1932년 충정아파트 서대문·충현 03
1965년 홍제아파트 서대문·홍제1 02
1966년 좌원상가아파트 서대문·남가좌1 01
1968년 인왕아파트 서대문·홍제2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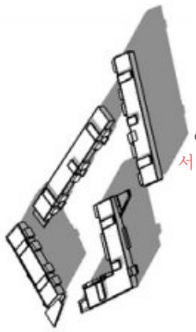
단독형아파트 - 단지형아파트

1932년
충정아파트
서대문·충현 03

1965년
홍제아파트
서대문·홍제1 02

1959년 개명아파트
1962, 1964년 마포아파트

1968년
수색아파트
은평·수색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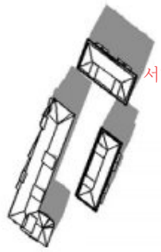


1968년
인왕아파트
서대문·홍제2 01

1970년
연남아파트
마포·연남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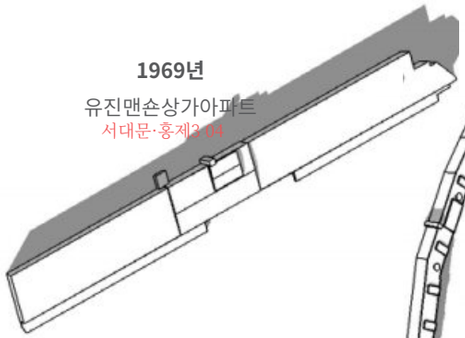
1980년
제일주택
서대문·홍제2 01



상가아파트



1966년
좌원상가아파트
서대문·남가좌1 01



1969년
유진맨숀상가아파트
서대문·홍제2 04



1970년
서소문아파트
서대문·충현 02



1972년
안산맨숀
서대문·홍제2 01

1959년 개명아파트(철거)
1962, 1964년 마포아파트(철거)

1968년 수색아파트 은평·수색 01
1969년 유진맨숀상가아파트 서대문·홍제3 04
1970년 서소문아파트 서대문·충현 02
1970년 연남아파트 마포·연남 01

08. 도시한옥

영천동 서대문·천연 02, 서대문·충현 01
북아현동 서대문·북아현 01
미근동 서대문·충현 03

09. 무허가정착지

영천/ 현저동 서대문·천연 01
홍제/ 홍은동 서대문·홍제3 03

10. 기타 주거지

1959년 상암동 난민주택 마포·상암 01
1972년 신사동 이주정착지 (산새마을) 은평·신사2 02
마루보시주택 마포·염리 02

11. 주요장소 흔적

모화관-독립회관 일대 서대문·천연 02
모래내 종점 서대문·남가좌1 01

12. 물길, 철길 흔적 위 도시조직

성산동 선형 도시조직 (홍제천 흔적) 마포·망원1 01
서교365 (철길흔적) 마포·서교 01

13. 시장

영천시장 서대문·천연 02
모래내시장 서대문·남가좌1 01
제일시장 (대조동 1961) 은평·대조 01
마포,공덕시장 마포·공덕 01

4 영역별 상세도

(1) 서대문밖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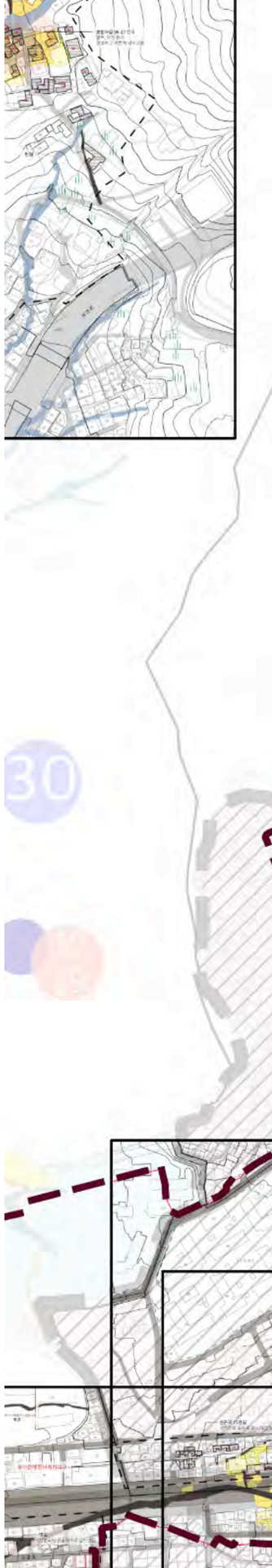
서대문은 조선의 수도인 한양의 4대문중 서쪽 대문으로 1396년 건립되고 일제강점기인 1915년 철거되어 사라질 때까지 520년간 도성의 안팎을 구분짓는 경계로 도성으로부터의 전국을 잇는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오랜 기간 중요한 자리를 이어왔다. 특히나 중국으로 통하던 중요한 도로인 의주로(현 통일로)가 바로 연결되고, 대현 너머 신촌 방면과 마포 방면으로 통하는 갈림길이자 서대문, 서소문, 남대문밖 길들이 한데 모이는 길목으로써 일찍이 시가화되었고, 끊임없는 변화에 다양한 시간 층위가 누적된 곳이다. 이 영역에는 12개의 조사구역이 몰려있지만 크게 4개의 영역으로 소분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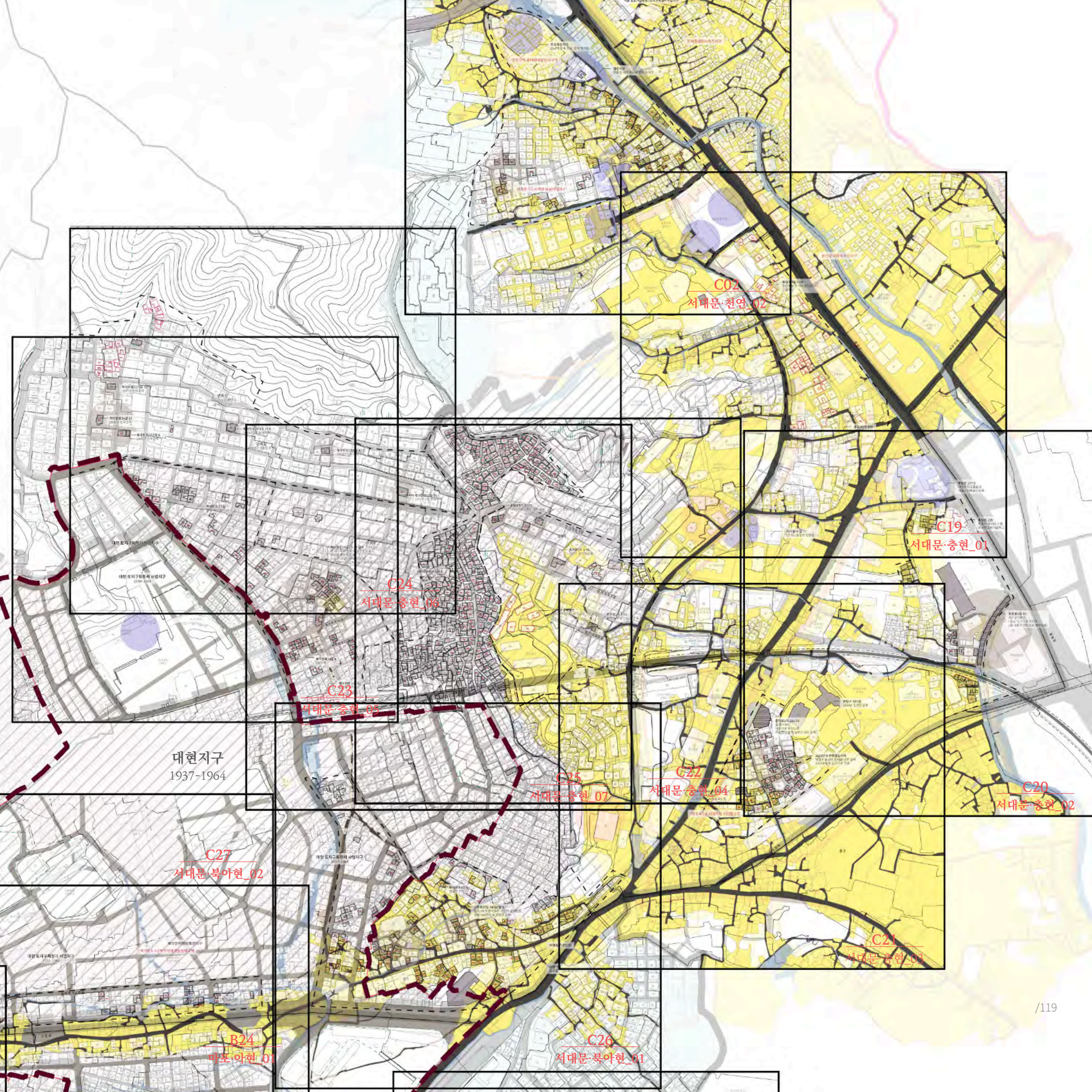
첫 번째는 서대문 천연01, 02번 조사구역과 같이 서대문을 나와 북서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의주로 좌측의 도시조직이다. 특히 천연01 구역에는 옛 모화관 자리, 서지 자리 등 조선시대 중요시설의 자리도 특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건물은 사라졌지만 골목의 형상에서 옛 도시조직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곳은 또한 상당 부분이 현대적 건물로 변화되었지만 20세기 초 주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두터운 시간 층위를 가지고 실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금화산자락의 도시조직이다. 금화산은 안산에서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으로 수려한 풍광을 자랑했던 곳으로 조선시대 왕가의 어소(御所)가 있었던 곳이다. 당시 서민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가 일제강점기 때 주택지로 개발되었다. 이곳에는 경성의 대표적인 문화주택지인 연희장, 금화장이 조성되었다. 또 일제강점기 아현토막 수용지가 있던 곳이며, 이어 한국전쟁 전후로 같은 곳에 대규모의 구릉지 무허가주거지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다.

세 번째는 미근동의 현 충정로와 서소문로 사이다. 이곳은 의주로와 함께 서대문밖, 서소문밖으로 이어지는 세 개의 큰 가로로 둘러싸여 만들어진 삼각형태 블록에 형성된 오래된 도시조직이 남아있는 곳이다. 현재 복개되었지만 동쪽에는 만초천이 흐르고 있었으며, 블록을 가로질러 경의선이 지난다. 이 영역의 북서쪽은 크게 변했지만, 남서쪽으로는 옛 도시조직이 그대로 남아있다. 20세기 초 한옥도 큰 변형 없이 그대로 남아있다. 또한 옛 만초천 위에 건설된 서소문아파트도 특기할만하다.

네 번째는 아현-대현에서 신촌으로 이어지는 도시조직이다. 신촌로를 중심으로 남북의 도시조직은 1937년 지구 지정 후 1938년 실제적인 공사에 착공한 대현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속한다. 당시 아현정, 대현정, 신촌 일대를 포함한 48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었으며, 일제강점기 도시개발로 정비된 조직이다. 현재 이곳은 아현 재정비 촉진지구로 2003년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해서 옛 조직이 많이 파괴되었고, 신촌로변으로만 선형의 조직이 남아있는 상태다. 반면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경계지점의 현 아현 가구거리의 뒷골목의 도시조직은 옛 도시조직이 그대로 남아있어 다양한 시간의 층위가 압축되어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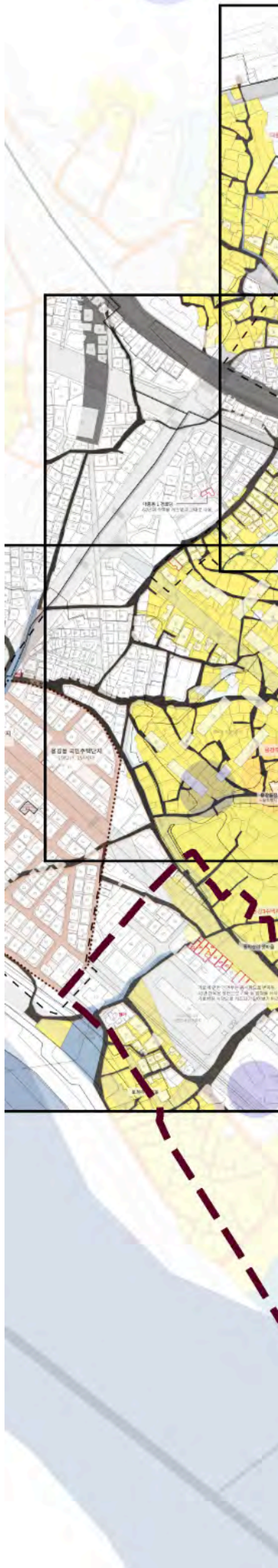

C02
서대문_천연_02
C19
서대문_충현_01
C24
서대문_충현_06
C23
서대문_충현_05
대현지구
1937-1964
C25
서대문_충현_07
C22
서대문_충현_04
C20
서대문_충현_02
C27
서대문_북아현_02
C21
서대문_충현_03
B24
마포_아현_01
C26
서대문_북아현_01

(2) 공덕·마포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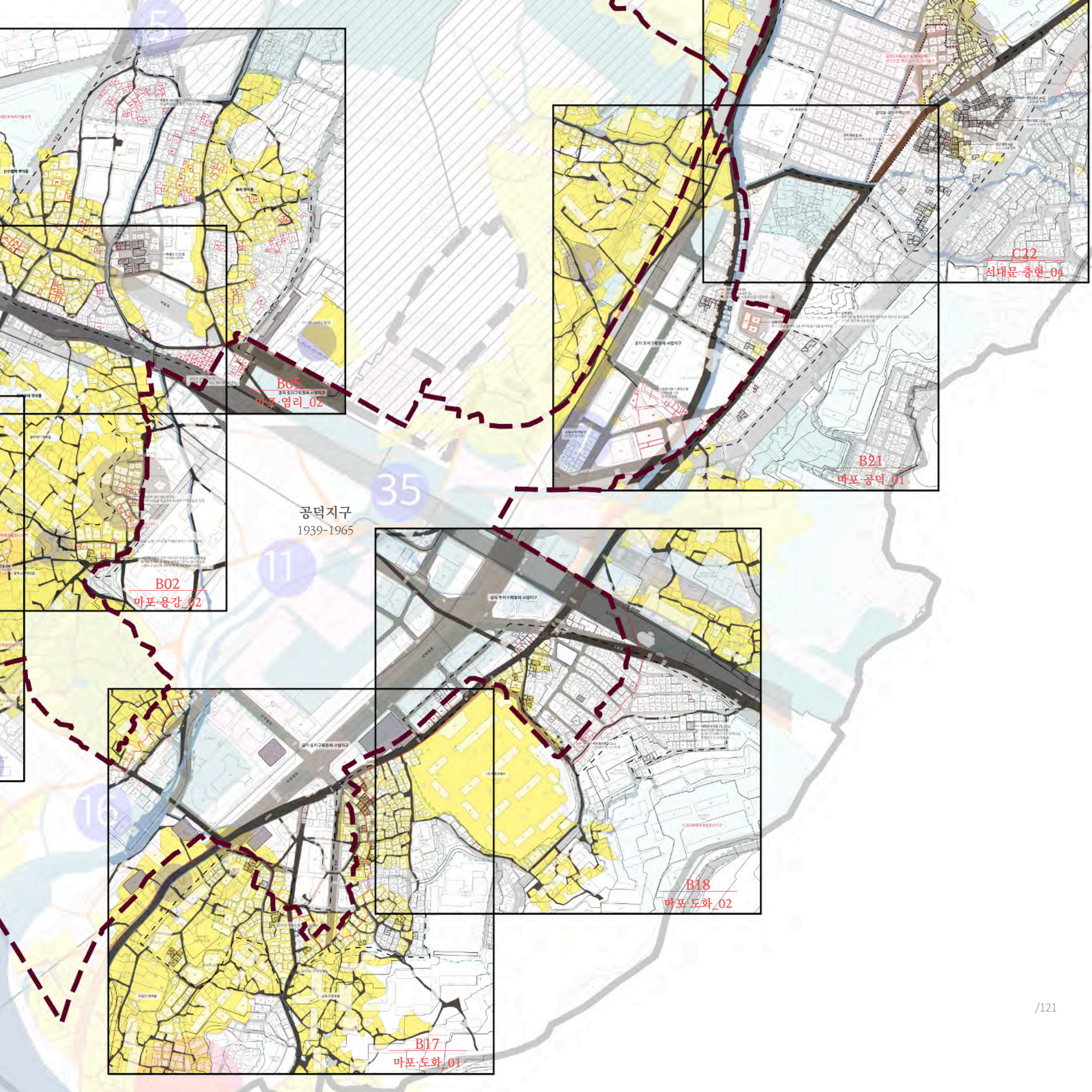
조선시대 한양으로 들어오는 배들은 대게 용산, 마포, 서강이 최종 정박지였다. 이곳은 현재 복개되었지만 마포천, 창천이 유입되는 곳이기도 했다. 마포-서강은 황해, 전라, 충청, 경기도 하류의 조세곡 수송선이 모두 모이는 곳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서강 나루터에는 선박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두는 공세청이 있었다. 또한 서강으로 배가 들어오고 창천의 물길을 이용하여 서강 인근에 만든 창고가 바로 광흥창이다. 광흥창은 관리들의 녹봉을 보관하던 곳이었다.[1]

일찍부터 물자와 사람의 왕래가 빈번했던 이 일대는 도화리, 마포리, 토정리, 동막상리, 동막하리, 신수철리, 공덕리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마을들이 있었고, 현 용강동 일대의 동막하리, 동막상리, 토정리가 있던 곳은 재개발되기 이전에 목구조의 오래된 창고들이 많이 있었다고 전한다. 현재 경강과 관련된 조직은 남아있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고, 파편적으로만 일부 한옥이 남아있는 정도다. 또 이 영역에는 일제강점기 경성감옥, 마포 연와제조소와 같은 근대 시설들이 위치해있었으며, 마포 연와제조소 자리는 이후 마포아파트, 현재는 삼성아파트가 되어 건축물은 바뀌어 왔지만 영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중림동에서 공덕으로 연결되는 고갯길인 만리재로는 원래 길이 만리재옛길로 남아있고, 남동쪽으로 약 120m 떨어진 곳에 고개를 깎아 만리재로를 신설하면서 그 사이 옛 조직이 살아남아있는 일부 구간이 있다. 그마저도 일부는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변형 없이 남아있는 옛 조직을 살펴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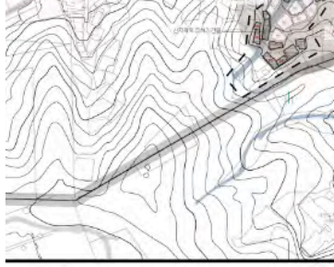


1 서울역사박물관(2017),『경강 : 광나루에서 양화진까지 』, 51~54쪽.


B05
공덕 도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마포·염리_02
C22
서대문·충현_04
B21
마포·공덕_01
공덕지구
1939-1965
B02
마포·용강_02
B18
마포·도화_02
B17
마포·도화_01

(3) 홍제천변 홍제·홍은 영역

이 영역은 안산과 인왕산 사이에 의주로에서 무악재를 너머 도달하게 되는 북한산 자락에 둘러싸인 분지다. 홍제천이 굽이쳐 흐르며 그 주변으로 일부 평탄지를 제외하고는 시가화되기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이곳에는 일제강점기 건립된 홍제동 화장터가 있었기 때문에 주거지로써는 꺼려지던 곳이었으며 북한산 자락과 홍제천변을 따라 대규모의 무허가 주거지가 형성되어있었다. 하지만 도심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이를 탈피하고자 홍제동 화장터를 이전하고, 또 각종 공영주택단지가 속속들 이 건설되었으며, 문화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영역에서는 홍제동 부흥주택, 국민주택, 희망주택, 홍제동 철우주택을 비롯한 공영주택단지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진 학교법인 한양학원의 성산단지가 있다. 또 1970년대 초반 하천의 중류에 해당하는 유진상가 부근을 처음 복개하고 도로를 확보한 뒤 그 위에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유진상가아파트가 지어졌고, 인근에 홍제동 소형아파트, 인왕아파트, 문화촌아파트 등 단독형에서 단지형으로 변화되는 과도기의 1960년대 아파트들이 지어졌고 또 남아있다.






A01
은평·녹번_01
C07
서대문·홍제3_01
C08
서대문·홍제3_02
C11
서대문·홍은1_01
C09
서대문·홍제3_03
C10
서대문·홍제3_04
C04
서대문·홍제1_02
C05
서대문·홍제1_03
C03
서대문·홍제1_01
C06
서대문·홍제2_01

(4) 수색역 일대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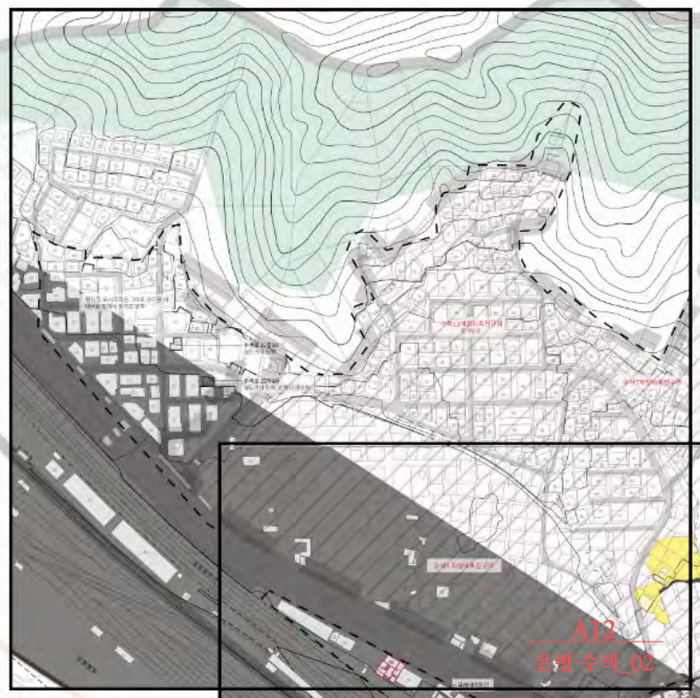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의 역 중 하나인 수색역은 1902년 기공되어 1908년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경의선 개통 당시부터 정착역으로 건설되었으며, 일제강점기 때 조차장이 건설되면서 그 규모가 더욱 커졌다. 수색역 앞에는 철도 관련 노동자가 거주했던 1940년대 철도관사 단지가 있었고, 상암동에는 1930년대 초 지어진 일본 육군 관사단지가 있었다. 일본 육군 관사는 2006년 SH가 실시한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소멸될 위기에 있었으나 전체 20개동 중 2개동의 관사와 방공호 1개동을 이축·복원하여 남게 되었다. 반면 수색역전의 철도관사는 현재 남아있는 건물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마저 변형이 심해 그 원형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또 최근에는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돼 재개발되어 사라졌다.

이 영역은 수색역과 관사단지를 제외하고 상암택지개발이 실시되기 전까지 시가화가 늦게 이루어졌으며 1950~1960년대 전재민과 수재민들이 이주한 정착지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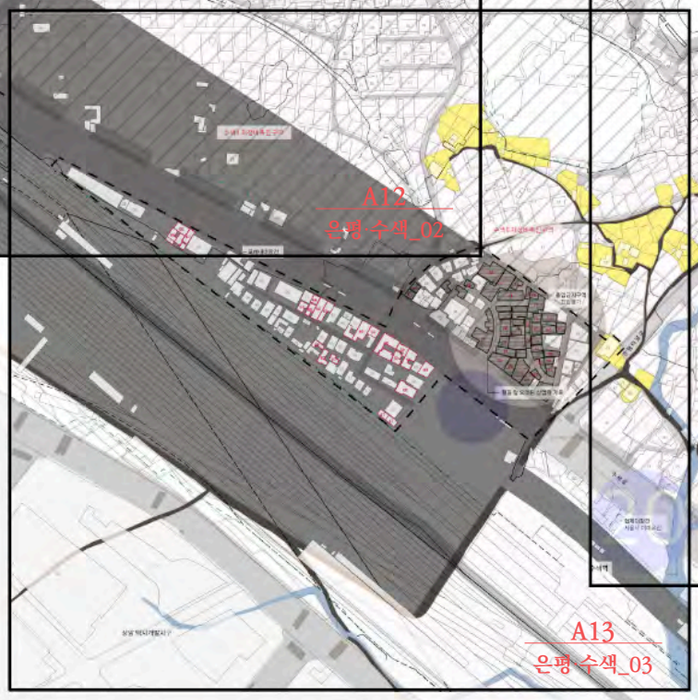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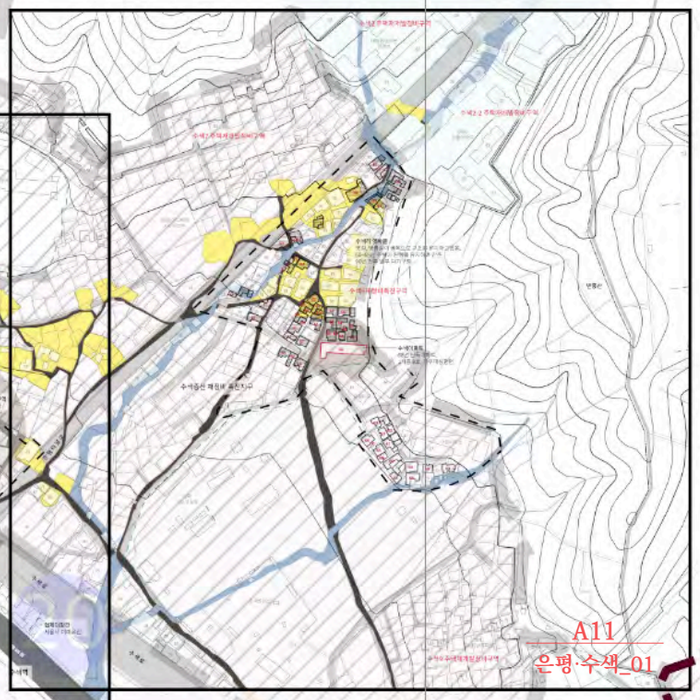
B16
마포·상암_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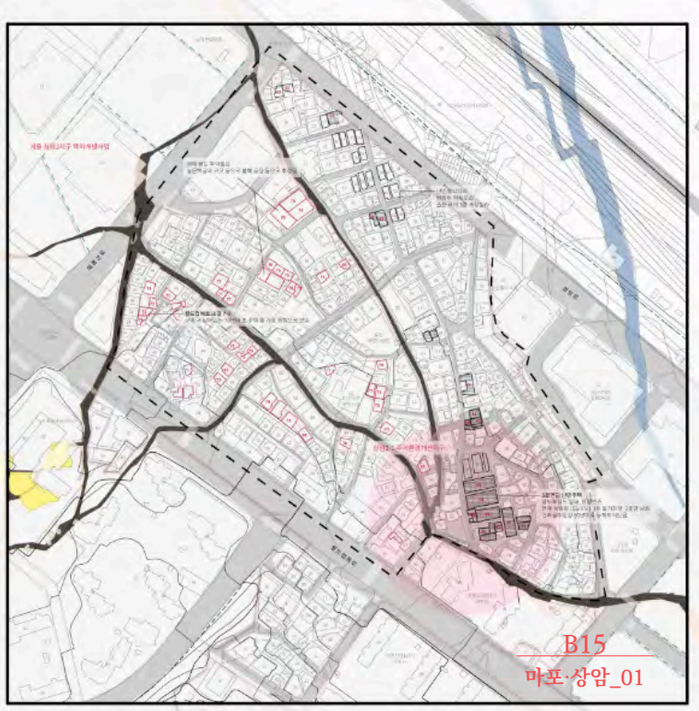
A12
은평 수색_02



A13
은평 수색_03



A11
은평·수색_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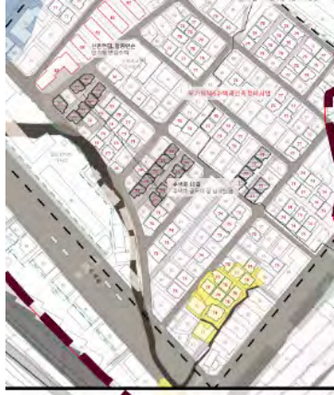


B15
마포·상암_01

역촌지구
1967-1979

(5) 모래내 일대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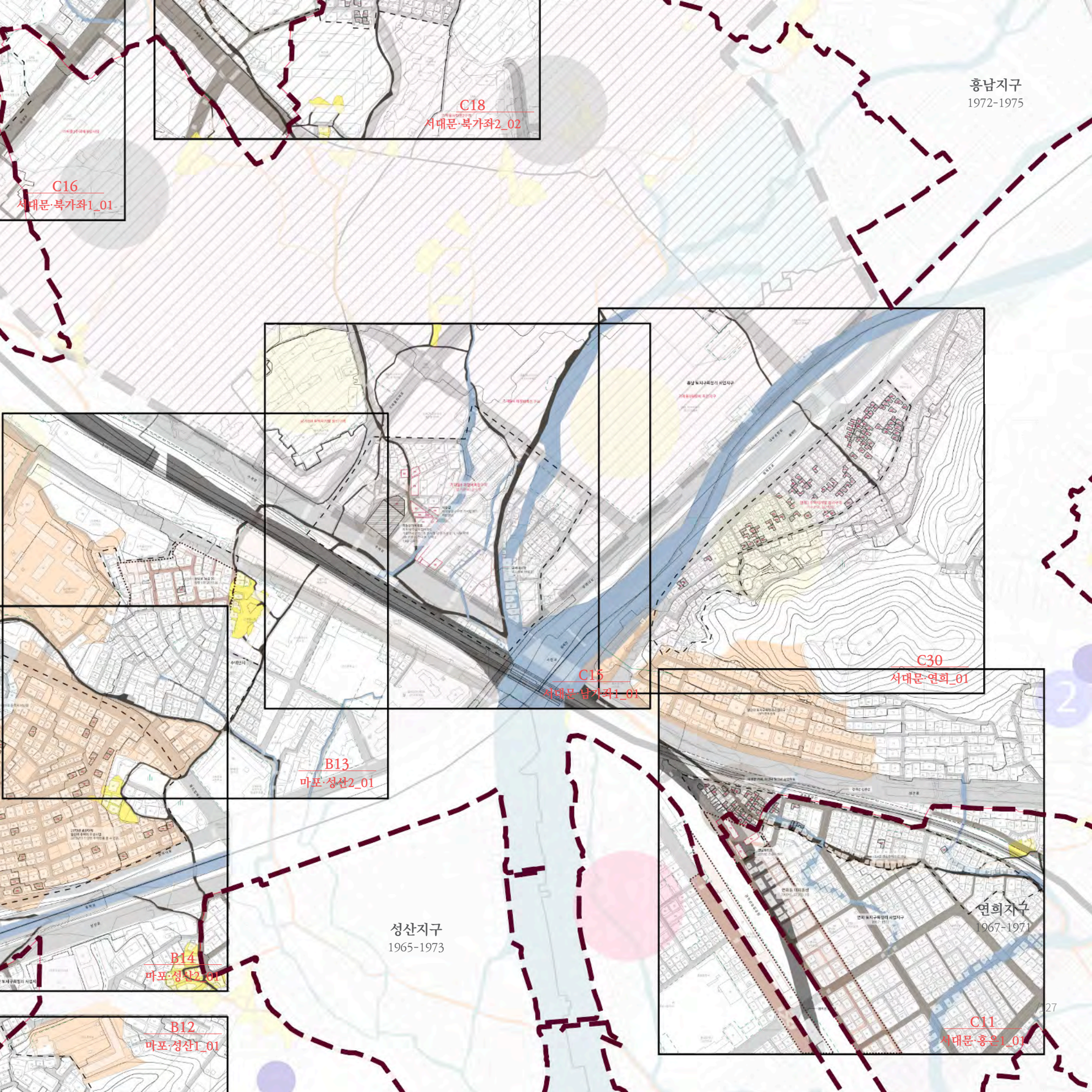
모래내는 홍제천의 하류로 하천에 모래가 많이 쌓여 늘 모래밭으로 물이 스며들어 상시 모래뿐인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사천(沙川)이라고도 부른다. 홍제천은 1977년부터 197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사천교 하류의 복개공사가 이루어졌고, 1991년 추가 복개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유로에 이른다.
모래내에는 서울 외곽의 큰 시장이 있었다. 논과 밭으로 이루어져 있던 곳에, 1950년대 말부터 수재민과 철거민 등이 이주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작은 장이 서면서 상권이 형성되었다.[1] 하지만 이 일대는 2차 뉴타운사업으로 시장일대인 남가좌동 일원이 서대문구 가재울 지구로 지정되면서 대부분 재개발이 완료되고 시장일대 블록만 남은 상태다. 현재 남은 일부구역마저 철거가 시작되어 펜스가 설치되었으며, 최초의 주상복합건물로 알려져있는 좌원상가마저 철거될 예정이다.
길 건너에는 경의선의 용산선과 신촌선이 합하는 가좌역이 있다. 현재 철선은 모두 지하화되고 지상은 공원화되어 공덕까지 연결된다.
사천교 교차로를 건너면 연희, 성산 서교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와 연결된다. 성산지구의 경우 홍제천이 구획정리 면적에서 제외되면서 구불구불한 형태의 구역만 남게 되었는데, 천을 따라 무허가주택이 형성되었다. 현재 물길은 모두 복개되고 주택이 들어섰으나 전체적으로 물길이었음을 알수있는 형태는 도시조직으로 살아있다.
또 이곳은 1970년대 초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개발된 성산단지, 연희단지가 있다. 반듯하고 넓은 도로에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이 단지들은 필지와 가로조직은 그대로 인채 건물만 변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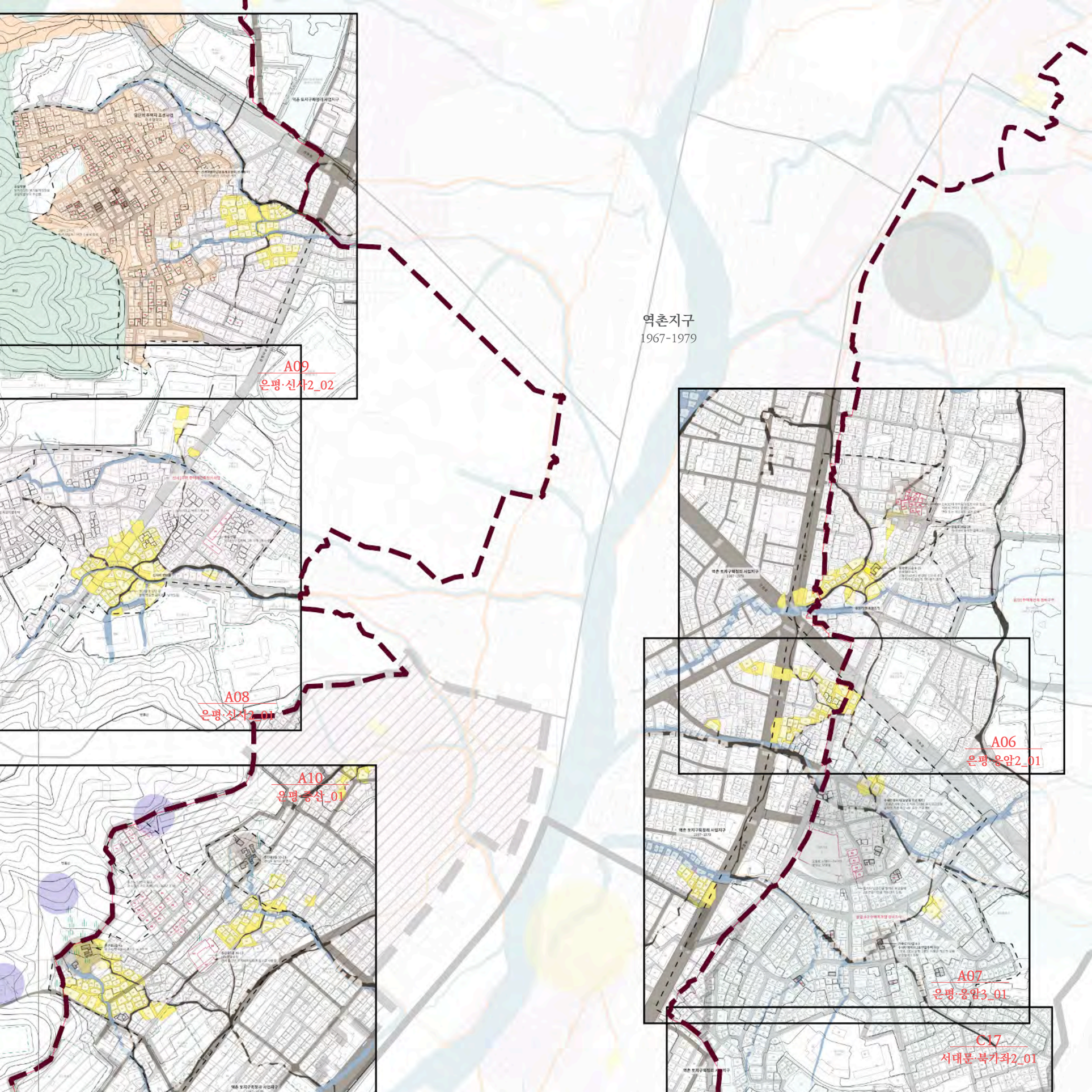
1 서울역사박물관(2008), 『가재울, 그리운 가재울』, 83쪽.


C16
서대문·북가좌1_01
C18
서대문·북가좌2_02
홍남지구
1972-1975
C15
서대문·남가좌1_01
C30
서대문·연희_01
B13
마포·성선2_01
B14
마포·성산2_01
성산지구
1965-1973
연희지구
1967-1971
B12
마포·성산1_01
C11
서대문·홍은1_01

(6) 응암·신사 영역

1958년 1,200여 가구의 수재민이 응암동으로 이주했다. 응암동 프로젝트라고 불린 이 사업은 갑작스러운 홍수로 발생한 이재민을 위해 서울시 정착사업으로 조성된 것이다. 마스터플랜을 통해 건설에만 약 2년 남짓 소요되었다. 응암동 프로젝트가 시행된 곳은 현재 응암동의 대림시장 일대를 시작으로 부채꼴 형태의 3만여 평의 면적이다. 조성 초기 지어진 주택은 대부분 재건축되어 사라졌지만 가로 및 필지 조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응암동과 신사동 일대는 특히 수재민 정착지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유입되면서 상권이 형성되고 시가화가 시작되었다.
1958년 응암동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응암동과 북가좌동 일대에 한강변 수재민과 용산 서부이촌동 수재민, 서빙고 수재민 등이 이주하였으며, 산자락을 중심으로 정착지가 자리 잡았다. 산새마을로 잘 알려진 은평구 신사동 역시 1972년 이주정착지로 조성된 곳이다.
불광천을 중심으로 좌우 평평한 지역은 역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되었다. 반듯하고 균질적인 크기와 형태의 1970년대 단독주택지로 당시 서울 외곽 신흥 주거지로 각광받았다.




역촌지구
1967-1979
A09
은평·신사2_02
A08
은평·신사2_01
A10
은평·증산_01
A06
은평·응암2_01
A07
은평·응암3_01
C17
서대문·북가좌2_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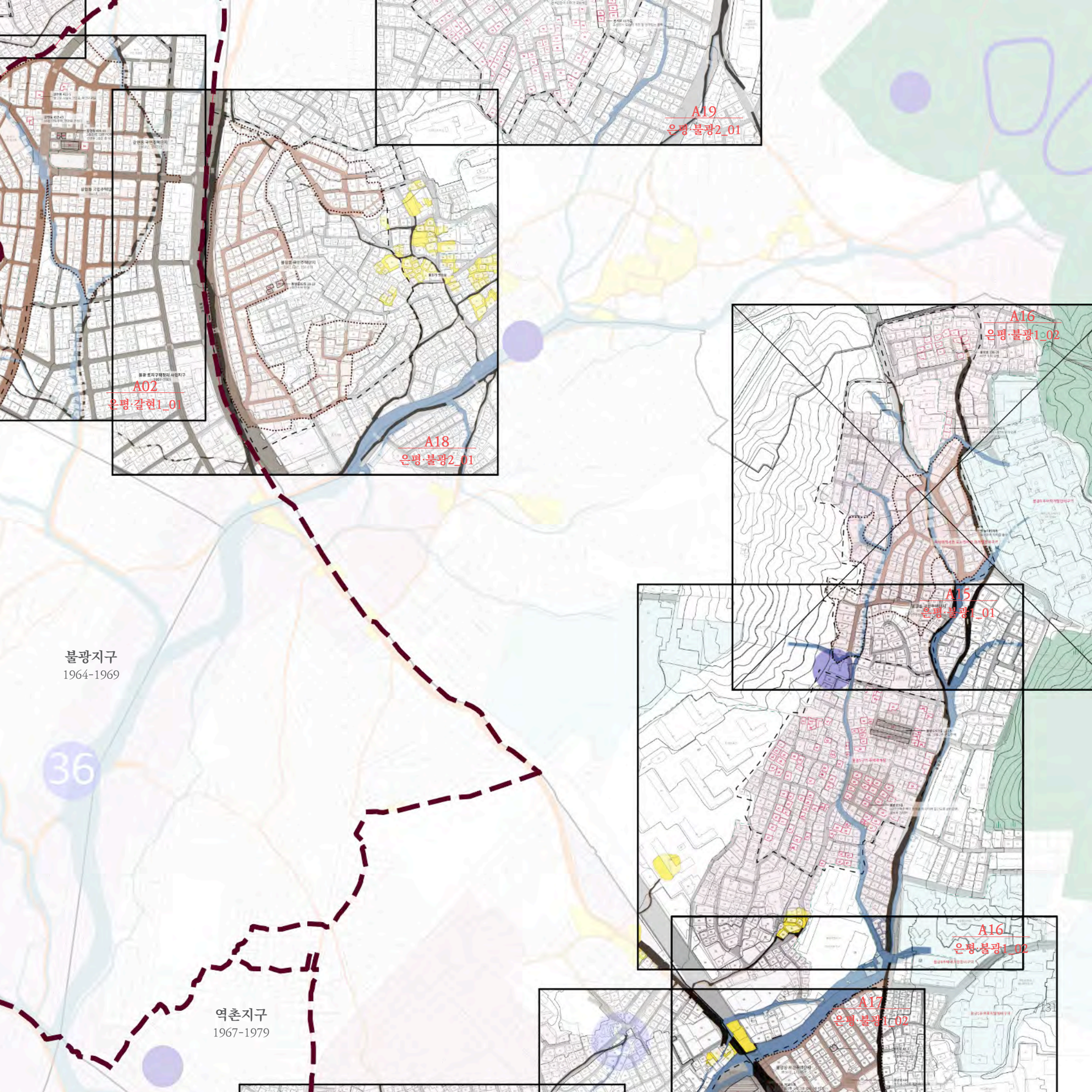
(7) 불광·갈현 영역

이 일대는 불광천과 녹번천이 합류하기 전 구간이다. 녹번천은 현재 전 구간이 복개된 상태로 옛 물길의 형태가 도로로 남아있는 정도에 그친다. 옛 지명으로 녹번리, 대조리, 역촌리, 불광리, 갈현리, 구산리였으며, 서대문을 나와 서북방향으로 무악재와 홍제천을 지나 녹번이 고개를 건너면 비로소 다다르는 곳이다. 시내로부터 직선거리는 가까우나 지세가 험해 가로변을 중심으로만 일부 시가지가 형성되어있다가 196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가화되었다.

이 일대는 갈현지구, 불광지구와 같은 재건주택, 희망주택, 국민주택단지 등의 공영주택단지가 먼저 조성된 후 불광천을 중심으로 대규모 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되었다.
주택단지들이 조성될 시점에는 교통편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으나, 공영주택단지를 기점으로 서울시 외곽 개발에 속도가 가해진 것이다.[1]
특히 갈현동 국민주택단지의 조립식 P.C 주택이 특기할 만하다. 1964년 건설된 이 주택은 최초의 조립식 집단주택으로 실패로 평가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구간에서 원형이 확인된다.



1 대한주택공사(1979), 『대한주택공사 20년사』, 216쪽.


A19
은평·불광2_01
A02
은평·갈현1_01
A18
은평·불광2_01
A16
은평·불광1_02
A15
은평·불광1_01
A16
은평·불광1_02
A17
은평·불광1_02
불광지구
1964-1969
역촌지구
1967-1979
36

IV

서북권역 도시공간 현장조사

1 현장조사 자료집 읽기

2 상세조사 분석도

A 서대문구

B 마포구

C 은평구

1 현장조사자료집 읽기

조사구역의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적인 전체상이 파악되고 기록된다. 현장조사시트와 함께 작성된 상세조사분석도, 영상기록 및 현황분석을 포괄하는 현장조사자료집은 서울 도시공간 기록화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전체적 기록자료이다.
자료집은 앞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된 서북권역 74개 구역의 조사기록을 엮은 것이다. 각 구역별로 해당하는 범위의 상세조사분석도면을 작성하고, 도시조직 형성기의 항공사진과 현재 항공사진의 비교,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파악된 현황 및 기본적인 구역에 관한 설명, 현장사진을 기본으로 페이지를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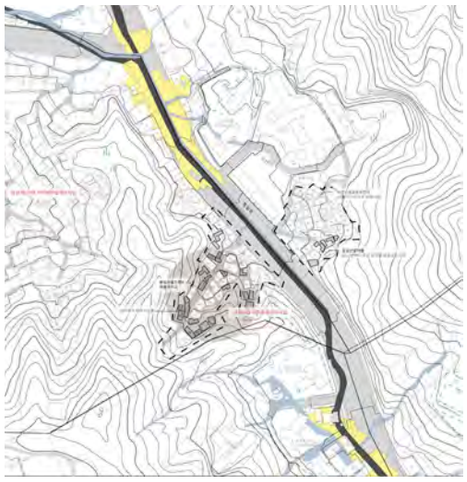
코드번호

자료집의 순서는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순으로 정리되었다. 편의상 이를 알파벳 순서에 따라 A, B, C 순으로 간략하게 표기하기로 한다. 또한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나열된 조사구역 전체에 연번을 붙여 정리하였다.
조사구역은 통계청에서 작성한 행정구역 코드를 활용하여 순서를 정하였다. 행정구역 코드는 전국의 행정구역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부호화한 7자리 숫자로 대분류(2자리), 중분류(3자리), 소분류(2자리)로 구성되는데, 서울시는 대분류 코드가 11이며, 구를 나타내는 중분류인 3,4,5번째 숫자 중 서북권역에 해당하는 은평구가 120, 서대문구 130, 마포구 140이다. 마지막 6, 7번째 자리의 숫자는 각 구에 속한 동별 고유코드로서 이에 따라 나열한 뒤, 각 동별로 속해있는 조사구역 번호를 맨 뒤에 01, 02로 더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즉, A01은 은평구 전체 20개의 조사구역 중 첫 번째 조사구역을 뜻하는 편의상 기호이며, 그 뒤의 은평·녹번_01이 고유한 조사구역코드로, 은평구, 녹번동의 1번 조사구역이라는 뜻이다. 이를 다시 행정동코드를 이용한 숫자로 치환한 것이 1113052_01인 것이다.



상세조사분석도

각 구역은 임의의 조사범위를 정한 뒤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조사범위를 포함한 주변 지형 및 도시공간의 맥락을 함께 고려해 지역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상세조사분석도는 지적도와 최신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1/3000 축척의 정북방 베이스맵을 만들고, 그 위에 옛길과 옛 물길, 옛 마을공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같은 집단적으로 개발된 계획단지 및 지



상세조사분석도

구, 변화된 사항을 시각화하여 지도 위에 표기한 도면이다. 건물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형성연도의 끝자리 두 개의 숫자를 표기하여, 건물의 연식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구역 내에서 시기가 오래된 건물이 군집해 있는 곳과 도시조직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또 현장조사시 이러한 곳을 중심으로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기록하여, 도시공간의 층위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도면, 문헌 등을 통해 도시조직의 형성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획단지 및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 도면과 현재도시공간을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하였으며, 도시조직 형성당시 초기 건물이 어디에 또 얼만큼 잔존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 밖에도 주목할 만한 공간 및 건축물을 굵은 선 또는 원형의 경계선으로 추가로 별도 표기하고, 현장조사시 작성된 짧은 메모 및 공간의 특징을 적어넣었다.



항공사진 비교(1972-2021)

항공사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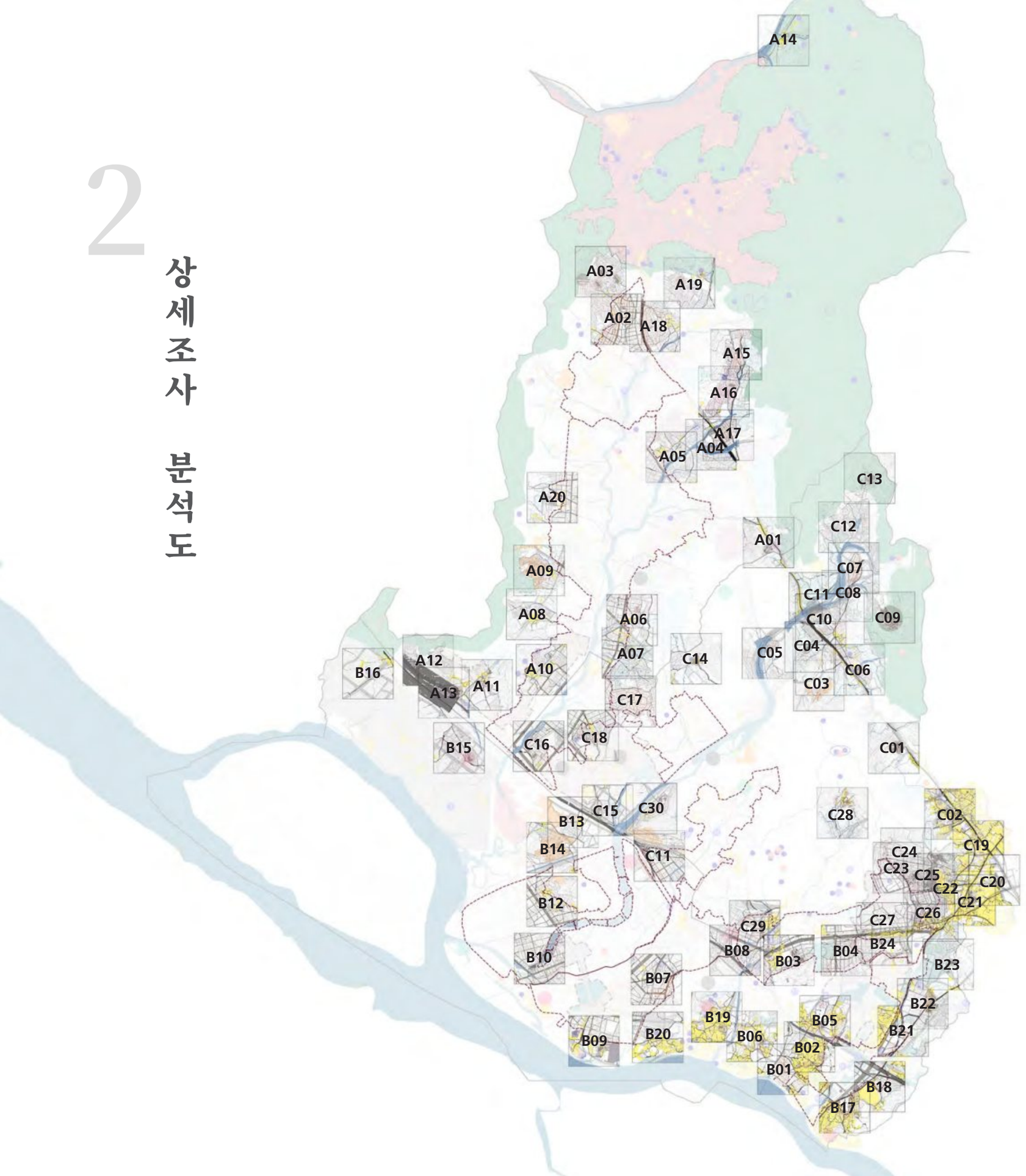
각 구역별로 가능한 이른 시기의 항공사진과 현재 항공사진을 비교하였다. 일부구역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조직이 대부분 파괴되어 그 변화모습이 확연히 두드러지기도 하지만 간선도로 및 남아있는 원조직의 원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본자료다.

현황사진

현장조사시 모든 구역에 대해 사진을 촬영했다. 주요장소에 대해 전경을 촬영하고, 주목할 만한 공간에 대해서는 일정한 동선으로 사진을 촬영해 주변의 입지와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했다.
74개 구역의 현장조사으로 촬영된 사진은 15,930장이다. 이중 상세조사분석도에서 중요하게 기록된 장소를 중심으로 양 페이지에 걸쳐 최대 18장의 사진을 자유롭게 배치하였다. 이미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몇개 구역에 대하여는 사진촬영을 하지 못했으며, 이때는 구역의 주변경관을 위주로 촬영했다.

2

상세조사 분석도


A14
A03
A19
A02
A18
A15
A16
A17
A04
A05
C13
A20
C12
A01
A09
C07
C11
C08
C09
A08
A06
C10
C04
C05
A12
A07
C14
A10
C06
B16
A11
A13
C03
C17
C18
C16
B15
C01
C15
C30
C28
C02
B13
C19
B14
C11
C24
C23
C25
C20
C22
B12
C21
C26
C27
C29
B24
B08
B04
B03
B10
B23
B07
B22
B19
B05
B21
B20
B06
B09
B02
B01
B18
B17

연번	조사구역 코드		조사구역 특징	페이지
A01	은평·녹번 01	1112051_01	구릉지 무허가 주거지	138
A02	은평·갈현1 01	1112055_01	갈현동 국민주택단지	142
A03	은평·갈현1 02	1112055_02	1960년대 주택단지, 계곡 무허가주거지	146
A04	은평·대조 01	1112058_01	대조동 재건·국민주택, 1960년대 대조, 제일시장	150
A05	은평·대조 02	1112058_02	여러시기 주택혼합	154
A06	은평·응암2 01	1112060_01	응암리 옛 마을조직	158
A07	은평·응암3 01	1112073_01	수재민 정착지	162
A08	은평·신사2 01	1112066_01	신사리 옛 마을조직, 1970년대 주거지	166
A09	은평·신사2 02	1112066_02	신사동 이주정착지	170
A10	은평·증산 01	1112067_01	증산리 옛 마을조직	174
A11	은평·수색 01	1112068_01	수색리 옛 마을조직, 수색아파트	178
A12	은평·수색 02	1112068_02	철도관사	182
A13	은평·수색 03	1112068_03	철길 옆 주거지	186
A14	은평·진관 01	1112071_01	1960년대 경기도주택	190
A15	은평·불광1 01	1112052_01	불광동 국민주택단지	194
A16	은평·불광1 02	1112052_02	1960년대 주거지, 1966년 9,10호 연립주택	198
A17	은평·불광1 03	1112052_03	불광동 재건주택단지	202
A18	은평·불광2 01	1112072_01	불광동 국민주택단지	206
A19	은평·불광2 02	1112072_02	1970년대 주거지	210
A20	은평·역촌 01	1112074_01	1974년 주택단지	214
B01	마포·용강 01	1114059_01	용강동 국민주택단지	218
B02	마포·용강 02	1114059_02	동막하리 옛 도시조직	222
B03	마포·대흥 01	1114060_01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구릉지무허가주거지	226
B04	마포·염리 01	1114061_01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여러시기 주택혼합	230
B05	마포·염리 02	1114061_02	염리,신수철리 옛도시조직, 마루보시주택	234
B06	마포·신수 01	1114063_01	현석리 옛 도시조직	238
B07	마포·서교 01	1114066_01	서교동 국민주택단지, 서교365	242
B08	마포·서교 02	1114066_02	철길 옆 무허가주거지	246
B09	마포·합정 01	1114068_01	합정리 옛 마을조직, 당인리 발전소 언덕 무허가주거지	250
B10	마포·망원1 01	1114069_01	성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외 물길복개무허가주거지	254
B11	마포·연남 01	1114071_01	철길 옆 1960년대 주거지, 연남아파트, 연희동 대지조성	258
B12	마포·성산1 01	1114072_01	성산리 옛 마을조직, 성미산마을	262
B13	마포·성산2 01	1114073_01	남가좌동 국민주택단지	266
B14	마포·성산2 02	1114073_02	성산단지	270
B15	마포·상암 01	1114074_01	난민정착지	274
B16	마포·상암 02	1114074_02	일본군(육군)관사	278
B17	마포·도화 01	1114075_01	도화리, 마포리 옛도시조직	282

연번	조사구역 코드		조사구역 특징	페이지
B18	마포·도화 02	1114075_02	공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한옥잔존지역	286
B19	마포·서강 01	1114076_01	상수일리 옛 도시조직	290
B20	마포·서강 02	1114076_02	당인리 옛 마을조직	294
B21	마포·공덕 01	1114077_01	한옥잔존지역	298
B22	마포·공덕 02	1114077_02	공덕동 국민주택단지, 한옥잔존지역	302
B23	마포·공덕 03	1114077_03	구릉지 무허가주거지	306
B24	마포·아현 01	1114078_01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한옥잔존지역	310
C01	서대문·천연 01	1113052_01	구릉지 무허가주거지	314
C02	서대문·천연 02	1113052_02	옛 모화관자리, 한옥잔존지역, 영천시장	318
C03	서대문·홍제1 01	1113062_01	홍제단지	322
C04	서대문·홍제1 02	1113062_02	홍제동 소형아파트	326
C05	서대문·홍제1 03	1113062_03	홍제동 철우주택단지	330
C06	서대문·홍제2 01	1113065_01	홍제동 인왕아파트	334
C07	서대문·홍제3 01	1113064_01	홍제동 문화촌 (부흥 ·국민 ·희망주택)	338
C08	서대문·홍제3 02	1113064_02	홍제동 문화촌, 천 복개위 여러시기 주택혼합	342
C09	서대문·홍제3 03	1113064_03	구릉지 무허가주거지	346
C10	서대문·홍제3 04	1113064_04	유진맨숀 상가아파트	350
C11	서대문·홍은1 01	1113066_01	구릉지 무허가주거지	354
C12	서대문·홍은1 02	1113066_02	구릉지 무허가주거지	358
C13	서대문·홍은1 03	1113066_03	홍은동 국민주택단지	362
C14	서대문·홍은2 01	1113068_01	백련사 아랫마을	366
C15	서대문·남가좌101	1113069_01	좌원상가아파트,모래내시장	370
C16	서대문·북가좌101	1113071_01	역촌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374
C17	서대문·북가좌201	1113072_01	북가좌동 국민주택단지	378
C18	서대문·북가좌202	1113072_02	1973년 주택단지	382
C19	서대문·충현 01	1113073_01	서대문밖 옛 도시조직	386
C20	서대문·충현 02	1113073_02	서대문밖 옛 도시조직, 서소문아파트	390
C21	서대문·충현 03	1113073_03	서대문밖 옛 도시조직, 충정아파트	394
C22	서대문·충현 04	1113073_04	구릉지 무허가주거지	398
C23	서대문·충현 05	1113073_05	한옥잔존지역	402
C24	서대문·충현 06	1113073_06	연희장	406
C25	서대문·충현 07	1113073_07	금화장	410
C26	서대문·북아현01	1113074_01	북아현리 옛 도시조직, 한옥잔존지역	414
C27	서대문·북아현02	1113074_02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한옥잔존지역	418
C28	서대문·신촌 01	1113075_01	봉원사 아랫마을	422
C29	서대문·신촌 02	1113075_02	창천동 재건, 희망주택단지	426
C30	서대문·연희 01	1113076_01	1960년대 천변주거지	430

C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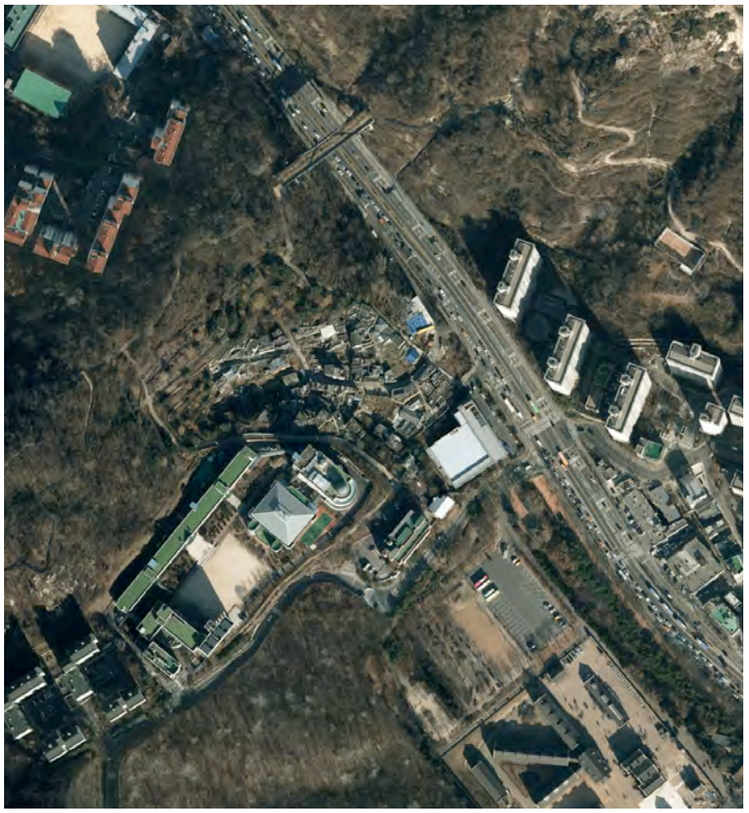
서대문 • 천연_01

서대문구 천연동 _1113052_01

구릉지 무허가주거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87-33(현저동 1-399) 일대





- 독립문 사거리에서 의주로를 따라 무악재고개를 넘어가는 좌우측의 안산과 인왕산자락에는 일찍부터 무허가주거지가 형성되었다. 이 구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주거지 중 하나로 꼽히는 곳으로 한국전쟁 이후인 195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대의 대부분 주택은 철거되어 사라졌으나 그중에서 한성과학고와 면해 일부만 남은 곳이다.

- 현재 건물의 70~80%가량이 공가 상태다. 방치된 지는 시간이 꽤 경과한 것으로 보이며, 곳곳에 축대 및 건물 벽이 허물어져 무너진 곳이 있다. 주택만 있는 것은 아니며, 공장 같이 보이는 건물도 있다. 동네를 관통하는 통일로 17길의 끝자락에는 남겨진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평상이 있는 동네슈퍼가 있다.


현저1가로주택정비사업
70~80% 공가상태임.
방치된지 오래된 것으로 보임
현저2주거환경개선지구
인왕산
안산
서울인산초등학교
홍제삼성래미안아파트
독립문파크힐아파트
인왕산아이파크1차아파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한성과학고등학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시대문독립공원

























C02

서대문 • 천연_02

서대문구 천연동 _1113052_02

옛 모화관자리, 한옥잔존지역, 영천시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1길 3-14(영천동 69-152)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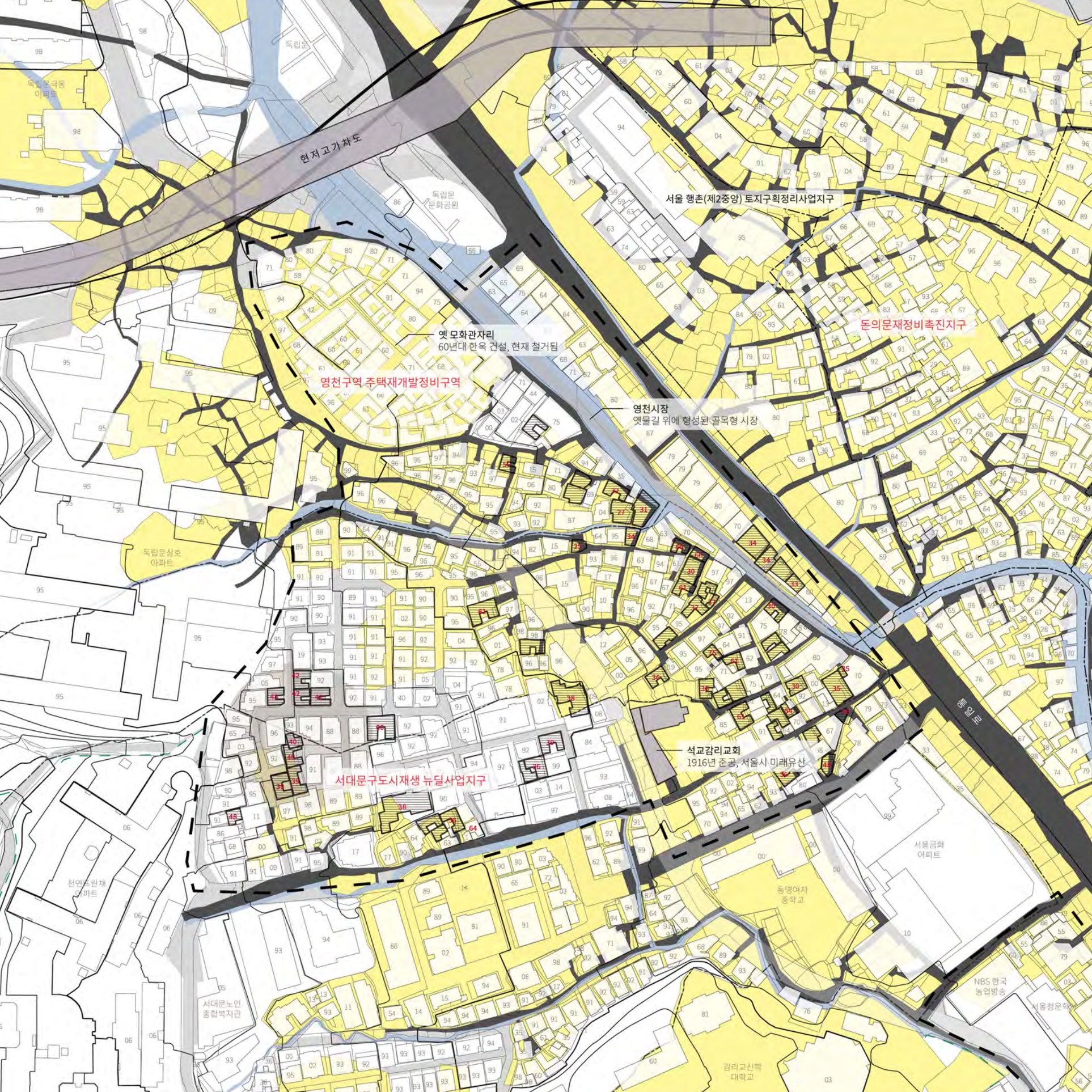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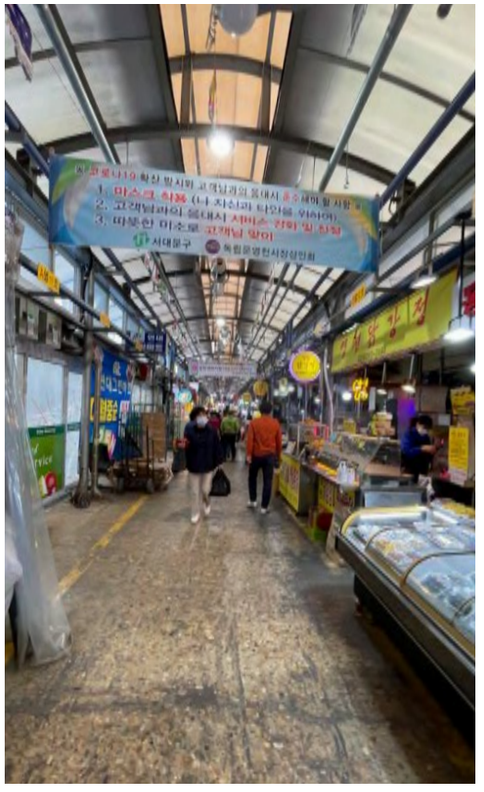
• 이 구역은 종로구 행천동과 서대문구 현저동을 잇는 현저고가차도 아래의 의주로 서측 동네다. 이곳에는 조선시대 명나라와 청나라의 사신을 영접하던 정면 6칸, 측면 4칸 팔작지붕 구조의 모화관이 있었다. 구한말에 서재필이 방치되어 있던 모화관에 독립협회를 세우고 독립관이라 개칭하였으나 얼마 안가 일본에 의해 철거되었다. 이후 1989년 서대문 독립공원 조성을 계획할 당시 독립관을 복원하고, 현재 서대문구 의주로 247에 재건한 것이, 현재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볼 수 있는 독립관이다. 반면 원래 모화관이 있던 자리인 독립문로1길 3-18 일대에는 1960년대 초 한옥이 집단으로 들어섰다. 'ㄷ'자 한옥이 필지를 따라 둘러싸고, 한켜 안쪽으로 '一'자형 건물이 다시 'ㅁ'자를 만들고 있으며, 한 가운데 정사각형의 땅은 똑같은 형태의 'ㄷ'자 한옥 4채가 지어졌다. 현재 이곳은 영천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속해 철거가 진행되고 있으며, 영천시장과 인접해 펜스가 모두 설치되어 있다.

• 의주로는 통일로라고 불린다. 의주로에서 서측으로 한 블록 들어가면 옛 물길이 흐르던 자리가 있다. 천은 구불구불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골목형 시장이 되었는데, 다양한 식자재 뿐만 아니라 헌책방과 가게들이 즐비하며 찾는 사람이 많다. 정확한 형성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서울 장안의 물품과 경기 서북의 농산품 및 땔감이 교환되던 문밖의 큰 시장이었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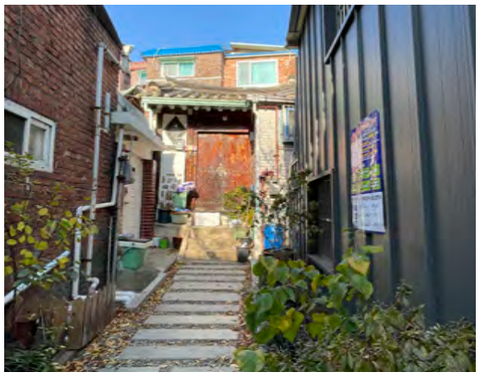
• 시장의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1916년 준공된 석조교회가 하나 있는데, 석교감리교회다. 흐르던 동네를 가로질러 흐르던 영천에 있던 돌다리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그 일대에 1930년대 말~1940년대 초 지어진 한옥들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현저고가차도
독립문
독립문 문화공원
독립문극동 아파트
독립문삼호 아파트
서울 행촌(제2중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옛 모화관자리
60년대 한옥 건설, 현재 철거됨
영천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영천시장
옛물길 위에 형성된 골목형 시장
석교감리교회
1916년 준공, 서울시 미래유산
서대문구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
서울금화 아파트
동명여자 중학교
NBS 한국 농업방송
서울청운학교
감리교신학 대학교
서대문노인 종합복지관
천연초원채 아파트















나리
미용실





C04

서대문 • 홍제1_02

서대문구 홍제1동 _1113062_02

홍제동 소형아파트 196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39길 38-17(홍제동 312-35) 일대





- 이 구역에는 1965년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한 홍제아파트가 있다. 공식명칭은 홍제동 소형아파트지만 홍제아파트라고 부른다. 건물 외관에는 아직도 대한주택공사의 옛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있다. 홍제아파트는 총 81세대의 7평짜리 3층 중복도아파트로 각 세대마다 베란다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모든 세대의 베란다는 막힌 상태이며 내부공간으로 사용한다. 아파트는 '—'자형 1동짜리로 그 길이는 거의 70m에 이른다. 건물의 가운데 메인출입구가 있고, 2층에서는 철제계단을 이용해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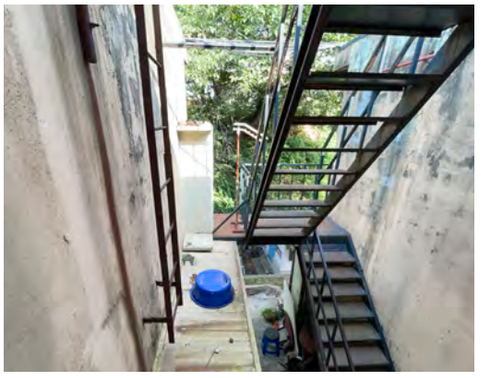
- 건물은 연식에 비해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며 관리사무소도 있었다. 거주자의 말에 따르면 집이 엄청 튼튼해서 벽에 못도 안들어갈 정도로 잘 지은 건물이라고 칭찬한다. 홍제아파트는 지속적으로 재개발이 논의되고 있으며, 철거가 진행되기 전 상세히 기록해 둘 만한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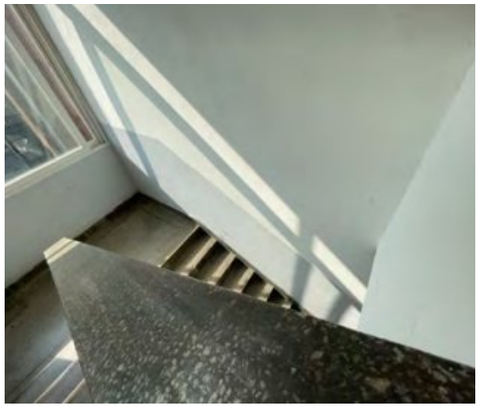
- 이 구역에는 홍제아파트 외에 1970년대 초 건설된 맨숀아파트가 더 있다. 1971년 홍제맨숀아파트와 1972년 서울맨숀아파트인데 각각 6층과 5층으로 지어졌다.


홍제1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통일로39길 38-17
홍제아파트
1965년. 7평, 중복도아파트
통일로39길 23
6층, 홍제맨숀아파트
통일로37길 30
5층, 서울맨숀아파트
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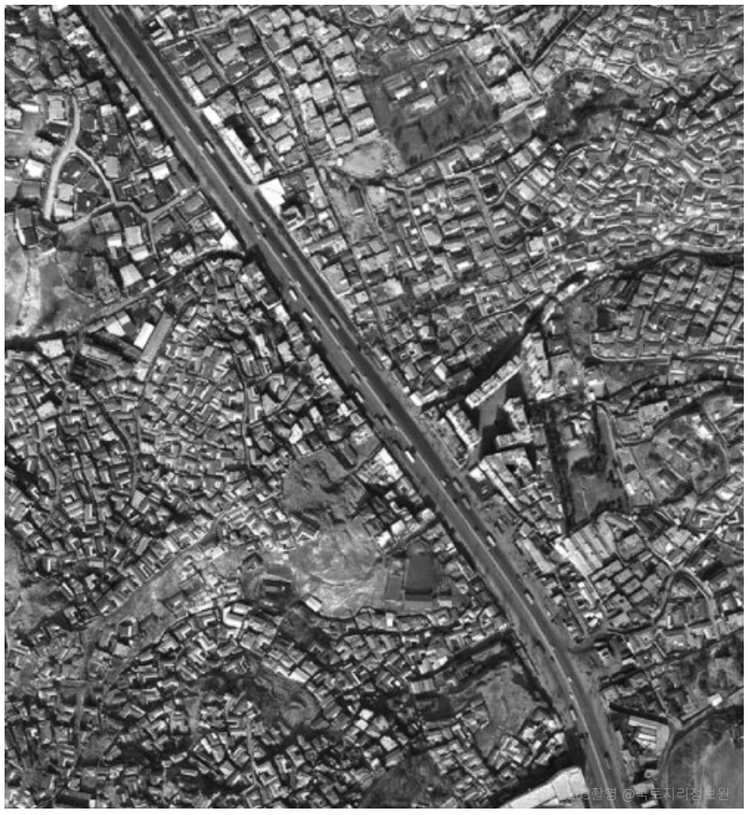
C06

서대문 • 홍제2_01

서대문구 홍제2동 _1113065_01

홍제동 인왕아파트 196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홍제동 104-4)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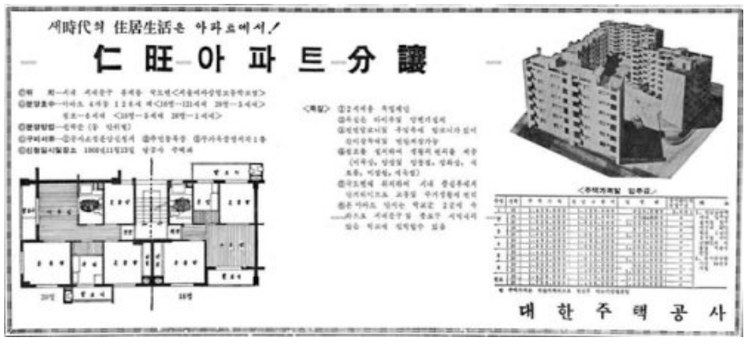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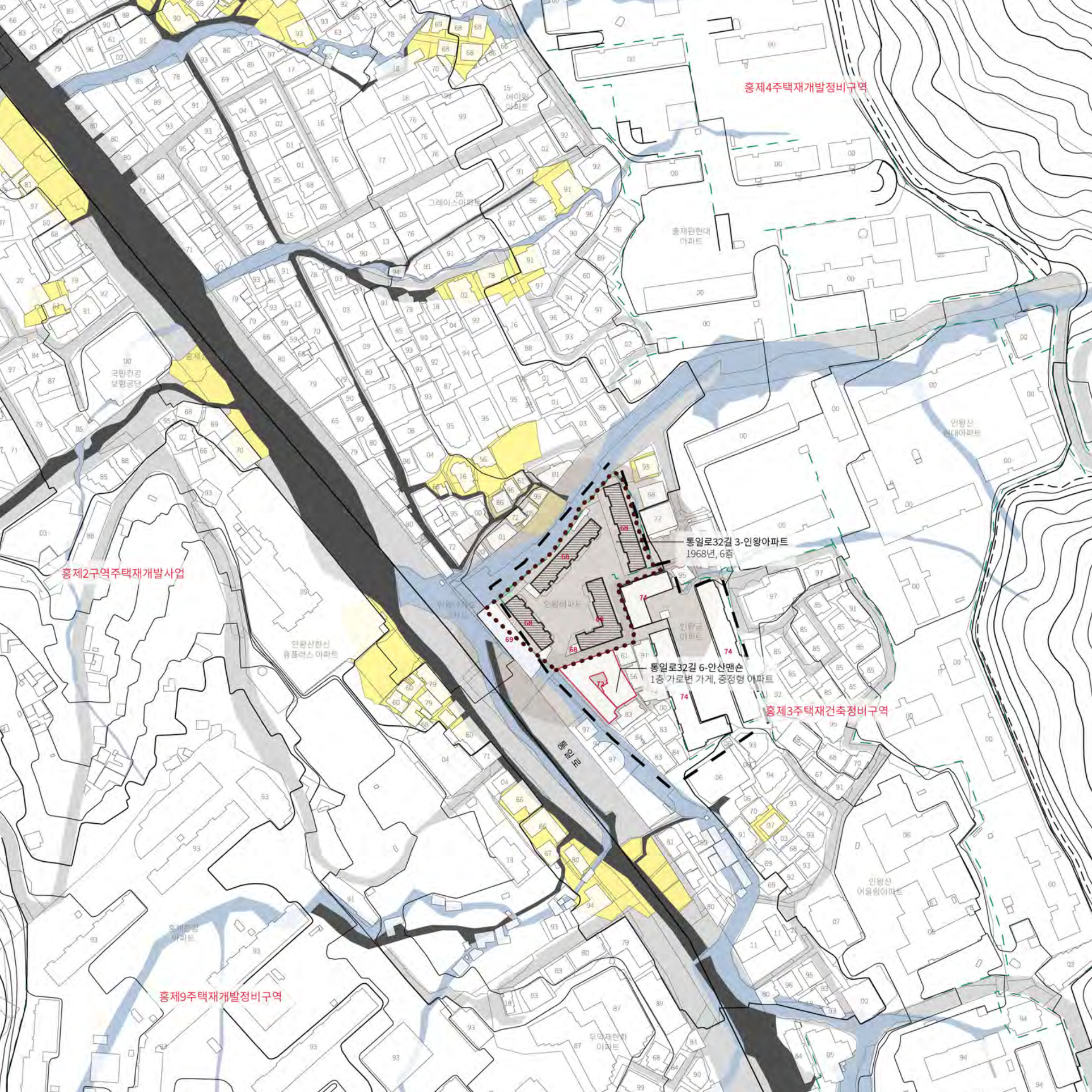
- 홍제동 인왕아파트가 건설되던 1968년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아파트 건설에 치중하던 해였다. 같은 해 동부이촌동의 공무원아파트, 화곡동의 민영주택아파트가 건설되었고, 그 일환으로 함께 건설된 것이다.

- 인왕아파트는 총 126세대를 수용하는 4개동의 단지아파트다. 12~20평형의 6층 규모이며, 단지는 현재까지 잘 관리되어 정비된 모습이다.

- 인왕아파트 바로 앞에는 1972년 건설된 안산 맨숀아파트가 있다. 가로에 면한 1층은 목욕탕과 상가이며, 외부에 굴뚝이 있고 중앙 입구를 통해 내부로 들어가면 각 세대로 진입할 수 있다. 한 가운데 중정이 뚫려 있고, 중정을 둘러싼 복도형 아파트로 그 형태가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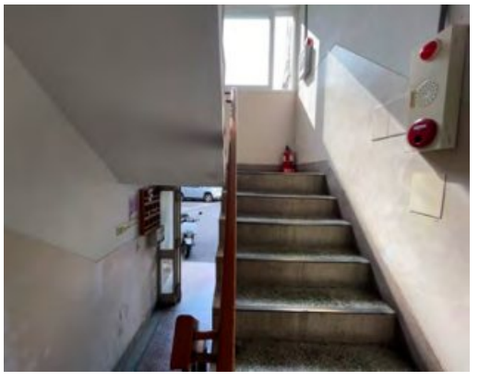


1968년 11월 9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인왕아파트 분양광고


홍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홍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
홍제3주택재건축정비구역
홍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통일로32길 3-인왕아파트
1968년, 6층
통일로32길 6-안산맨숀
1층 가로변 가게, 중정형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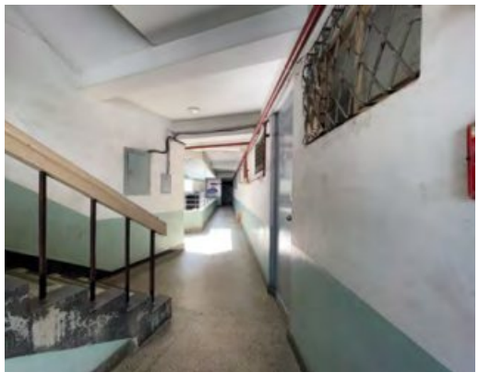




안산맨숀아파트

인왕
2
계 층 목 욕 소







C09

서대문 • 홍제3_03

서대문구 홍제3동 _1113064_03

구릉지 무허가주거지 개미마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4길 129-90(홍제동 9-83)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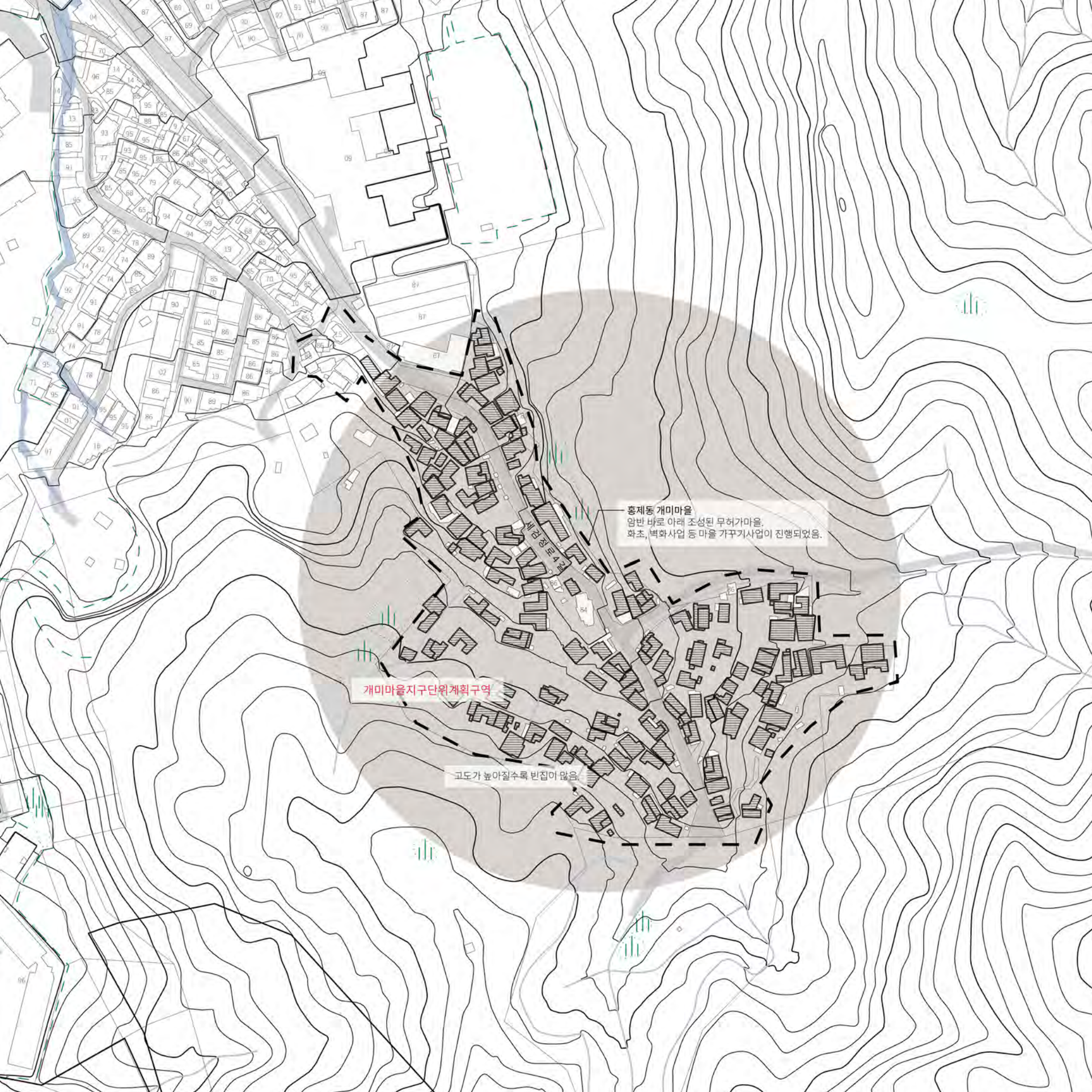


- 홍제동 개미마을은 인왕산자락에 형성된 무허가 주거지다. 계곡에 능선을 따라 점차 무허가주택이 확산되어 갔으며 1972년과 1973년 고도가 높은 지역은 시방침에 따라 일부 철거되었다. 동네의 필지는 현재까지도 불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동지분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건물은 관리번호와 건물번호로 관리되다가 현재는 새주소도로를 이용한다. 산과 붙어있어 암반이 바로 보이며 경치가 좋다.

- 마을의 한 가운데 중심가로인 세검정로4길은 현재 정비되어 마을버스가 마을어귀부터 가장 경사가 높은 곳까지 수시로 운행되고 있으며, 화초가꾸기, 벽화사업 등 마을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고도가 낮은 마을 진입 부분의 건물은 지붕개량 및 보수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지만, 고도가 높아질 수록 빈집이 많다.

- 이 구역은 2009년 서울시 고시 제 2009-91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같은 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 2014년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에서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발전방향 기초조사를 통해 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다.


홍제동 개미마을
암반 바로 아래 조성된 무허가마을.
화초, 벽화사업 등 마을 가꾸기사업이 진행되었음.
개미마을지구단위계획구역
고도가 높아질수록 빈집이 많음.


개미마을 약도

주차금지














리번호
3번

C10

서대문 • 홍제3_04

서대문구 홍제3동 _1113064_04

유진맨숀 상가아파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홍제동 294-46)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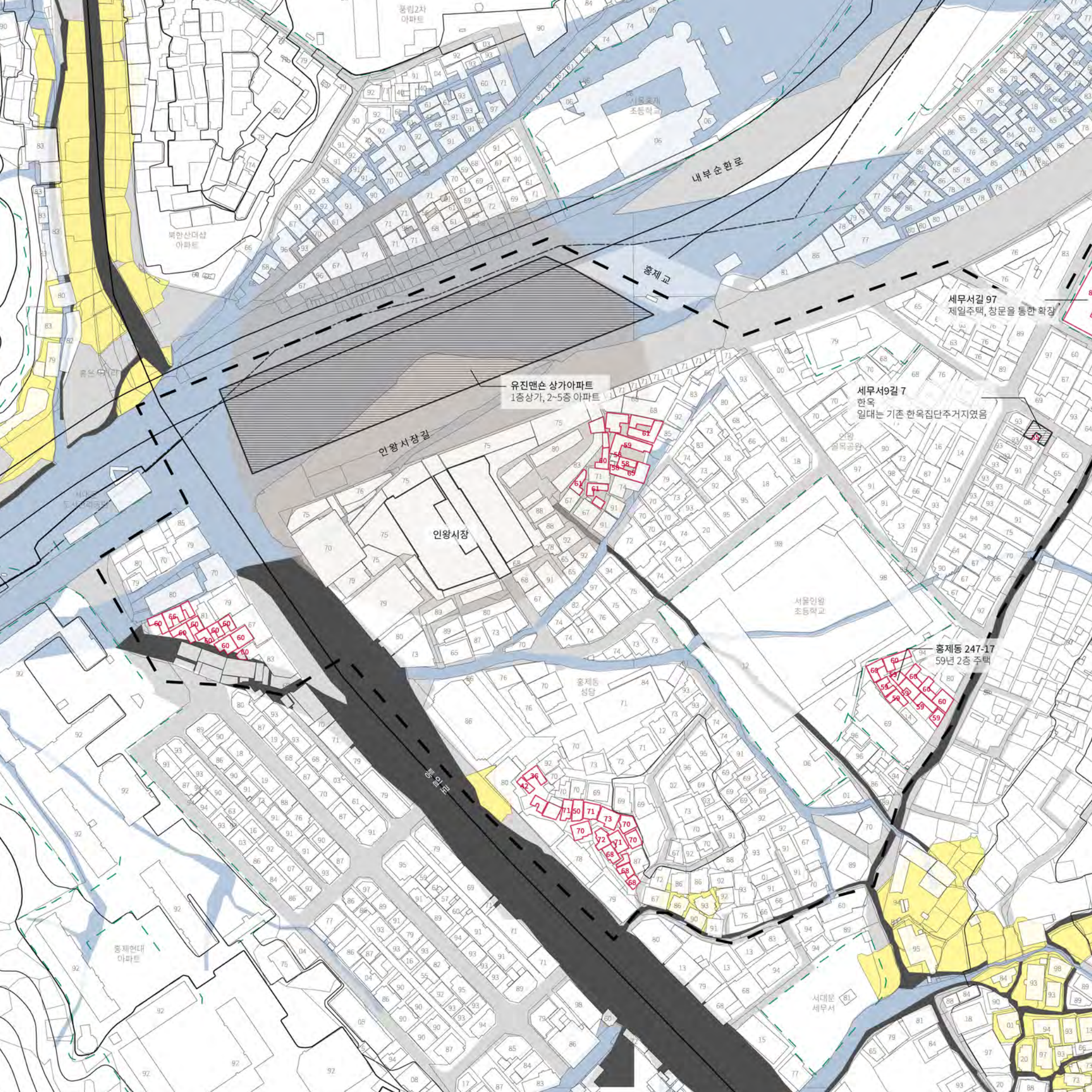


- 유진맨숀 상가아파트는 1969년 서울시로부터 하천부지 점용을 포함한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지역은 당시 홍제천변과 구릉지에 빼곡이 무허가 주택이 형성되어 있었던 대표적인 불량지구로 천을 정비하고 아파트를 건설하여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유사시 탱크 등을 배치하여 수도방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건축된 것으로 후에 밝혀졌다. (1985년 유진맨숀 시공사 신성이 서울시에 제기한 하천사용료 관련 소송(84누343) 판결문)

- 유진맨숀 상가아파트는 A·B동 2개동이 마주보고 있다. 지상 1층은 상가, 지상 2층부터 5층은 아파트로 사용되는 주상복합형 건물이다. 1층 상가에는 청과물가게가 많고, 길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왕시장과 바로 연결된다. 아파트는 1993년 내부순환도로건설로 B동의 4~5층이 철거되고 1~3층은 존치된 상태로 남겨져 있는데, 건설 초기에는 당대 최신아파트로 군장성 등 상류층 거주지로 유명했다고 전한다. (「한국아파트 60년 아파트를 방호기지로... 탱크도 들어가는 유진맨숀의 필로티」, 『조선일보』, 2021년 6월 17일.)

- 인왕시장을 건너 서울 인왕초등학교 주변은 기존 한옥집단주거지였다. 현재 세무서9길 7에 1채가 원형이 남아있으며 세무서길 43-8은 1959년에 지어진 2층건물이다.

- 또한 구역의 북동쪽에는 제일주택이라고 불리는 4층짜리 아파트가 3개동 있다. 가동과 나동은 동일한 형태 '一'자형 건물이고, 다동은 'ㄱ'형이다. 창밖으로 철제를 덧달아 공간을 만들어내는 확장방식이 독특하고 인상적이다.


내부순환로
홍제교
인왕시장길
인왕시장
유진맨숀 상가아파트
1층상가, 2~5층 아파트
세무서길 97
제일주택, 창문을 통한 확장
세무서9길 7
한옥
일대는 기존 한옥집단주거지였음
홍제동 247-17
59년 2층 주택
홍제천
풍림2차 아파트
북한산더샵 아파트
홍제현대 아파트
서울인왕 초등학교
홍제동 성당
서대문 세무서














유진샌숀

인 왕 시 장








C15

서대문 • 남가좌1_01 서대문구 남가좌1동 _1113069_01

좌원상가아파트, 모래내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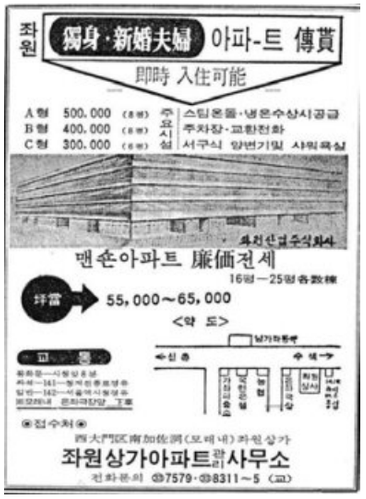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42(남가좌동 295-5) 일대





- 좌원상가아파트는 1966년 지어진 4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다. 1967년 세운상가아파트, 1969년 낙원상가아파트와 유진맨숀상가아파트보다도 먼저 지어진 최초의 주상복합이라고 알려져있다. 현재 좌원상가아파트의 1층은 가로에 면한 부분만 음식점과 유흥업소 등 상업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안쪽은 쪽방으로 보인다. 1층은 가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데 1970년 확장된 2층짜리 건물과 바로 통하며, 빛이 들지 않고 긴 복도가 이어져있어 어둡고 음침하다. 2층은 전면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고, 각 실은 문방구와 한의원, 인력소 등으로 몇 개 호실을 통합하여 사용하는 곳도 있다. 3~4층은 좌, 우측의 2개의 계단실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으며 주거공간이다.
- 1970년대 초 좌원상가아파트의 분양광고를 보면, 6평, 8평은 독신형 아파트로, 16, 25평은 고급형 아파트로 구분되어 평형이 구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아파트의 옥상은 개방되어 있고, 가건물이 1개동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며, 주민들의 소규모 텃밭이 가꾸어져 있다. 좌원상가아파트는 2020년 주요 부재의 결함 및 내력부족으로 구조안전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었다. 또한 이 일대는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에 지정되어 재개발이 한창이며, 좌원상가아파트 역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 이 일대는 가재울 또는 모래내라고 불린다. 1950년대 말부터 수재민과 철거민들의 이주정착지가 일대에 형성되면서부터 시가화되었다. 1966년 형성된 모래내시장은 서울의 4대시장으로 꼽힐 만큼 활기를 띠었으며, 현재 일대 재개발공사로 축소된 상태이긴 하나 공사장 가벽 앞까지 좌판이 형성되어 있다.


좌원 獨身·新婚夫婦 아파-트 傳貰
即時 入住可能
A형 500.000 (8평) 주요시설 스팀온돌·냉온수상시공급
B형 400.000 (8평) 주차장·교환전화
C형 300.000 (8평) 서구식 양변기및 사워욕실
좌원산업주식회사
맨숀아파트 廉価전세
16평—25평各数種
坪當 55,000~65,000
<약 도>
교통 노선
수색
좌원상가아파트관리사무소
전화문의 ☎7579·☎8311~5 (교)

1971년 9월 26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좌원상가아파트 분양광고


남가좌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철거완료, 공사중
시장길
재개발공사구역 가벽앞까지
좌판형성
좌원상가아파트
최초의 주상복합아파트
가로변과 면한 1층 음식점 및 옷가게 상가, 내부 쪽방
2층 문방구, 한의원, 인력소
3,4층 아파트
모래내시장
먹자골목(옛물길)
가좌
사거리
DMC파크뷰자이
5단지아파트
DMC파크뷰자이
1단지아파트
DMC파크뷰자이
4단지아파트
가재울미래로
수색로
모래내로
홍제천
사천교
서울가좌
행복주택
경의중앙
가좌역
성사중학교
성사중일1차
아파트






가 좌 인 력
010-0910-4874
미 용
창 인 구 이 김
2이발관
오복상회
가 좌 인 력
가 좌 인 력
한복·이불
2F
이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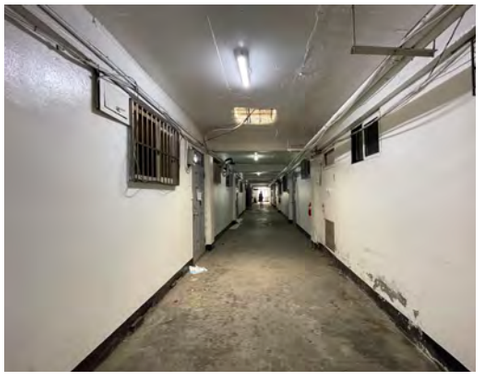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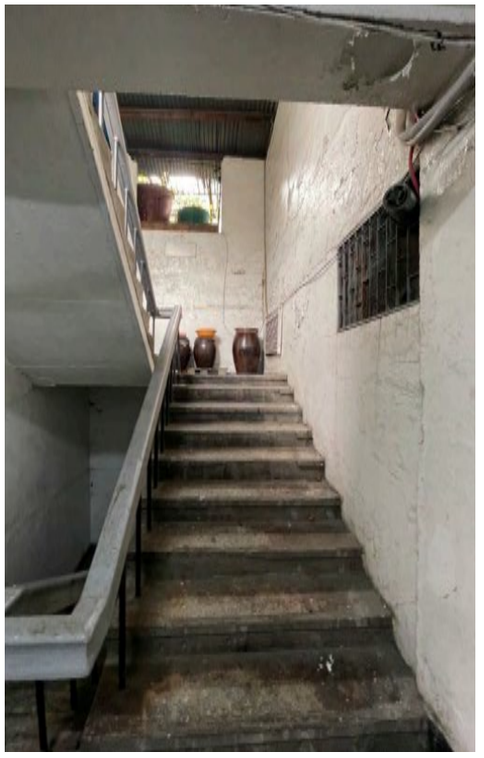



한양문구센터
은좌기원
골덴양복점
북경한의원
종로주단
374-9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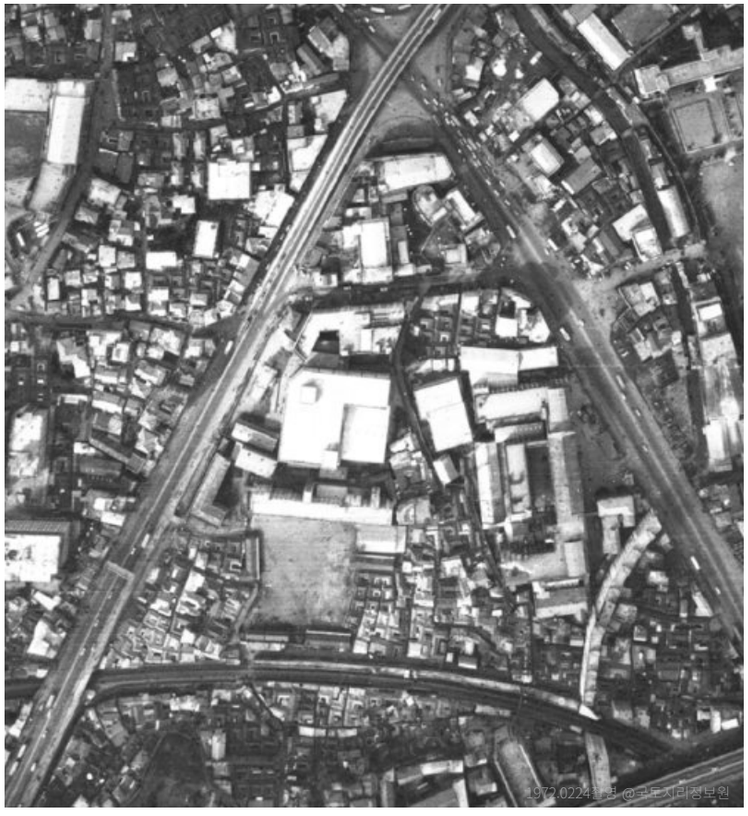
C20

서대문 • 충현_02

서대문구 충현동 _1113073_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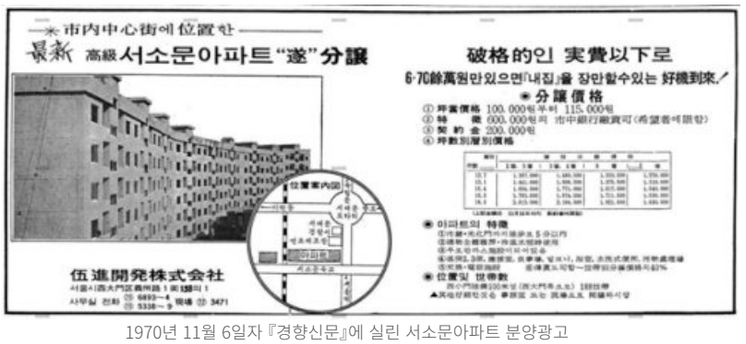
서대문밖 옛 도시조직, 서소문아파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6길 31-10(미근동 60-12) 일대





- 이 구역은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남측으로 서소문로, 통일로, 충정로에 면한 삼각형 모양의 블록이다. 구역의 동측인 경찰청 뒷편에는 선형의 7층짜리 건물이 장벽처럼 서있는데, 1970년 준공된 서소문아파트다. 서소문아파트는 1동부터 9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은 상가이고, 2층부터 7층까지는 아파트다. 만초천을 복개하고 그 위에 지어진 것으로 아파트 형태는 그 물길을 따르는 것이다. 서소문아파트는 1970년부터 분양되었으며, 당시 최신 고급아파트로 연예인 및 유명인사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이곳은 현재 국토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다. 현재도 하천부지로 공공용지이기때문에 재건축은 불가하며, 철거 후 공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라 한다.



1970년 11월 6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서소문아파트 분양광고

- 구역의 남측으로는 경의선 철길이 지나간다. 그 바로 앞으로 가로와 면해 식당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한 켜만 골목으로 들어가면 1930년대 한옥이 집단으로 남아있다.


통일로 107-6
서대문원조통술집
서울시미래유산등록
통일로 105
독특한 형태의 건물
무궁화고등기술학교
(구)서울의 집
미군레스토랑이 있었음.
충정로6길 59
서소문아파트
1층상가, 2~7층 아파트
1동~9동이 선형으로 붙어있음.
충정로6길 35-13
1930년대 한옥 집단으로 잔존
골목은 폭이 900~1970mm 으로 다양함
서소문로
서소문고가
KT&G
서대문타워
미동초등학교
87
퍼어리스
아파트
충정로SK뷰
아파트
프랑스
대사관
SK리쳄블
충정로
대우디오빌
NH농협생명
93
사조빌딩
신라스테이




일품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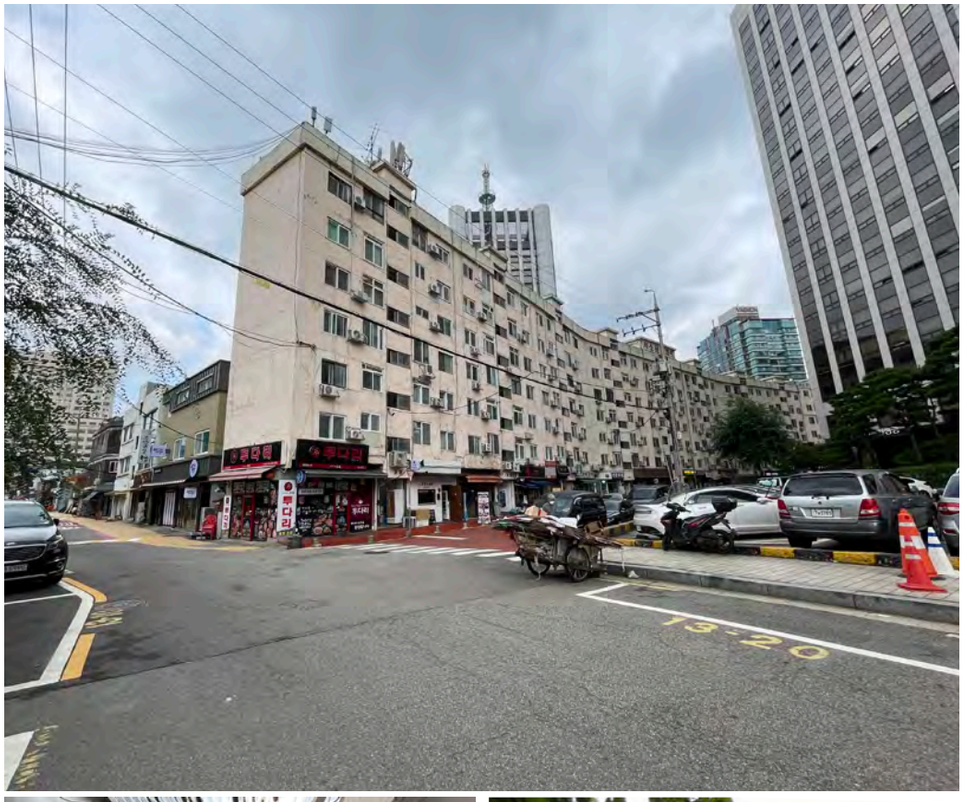





49-21






13-20


신진유리




BLACK
BOTTLE
PIZZA PUB
WINE POCHA

C26

서대문 • 북아현_01

서대문구 북아현동 _1113074_01

북아현리 옛 도시조직, 한옥잔존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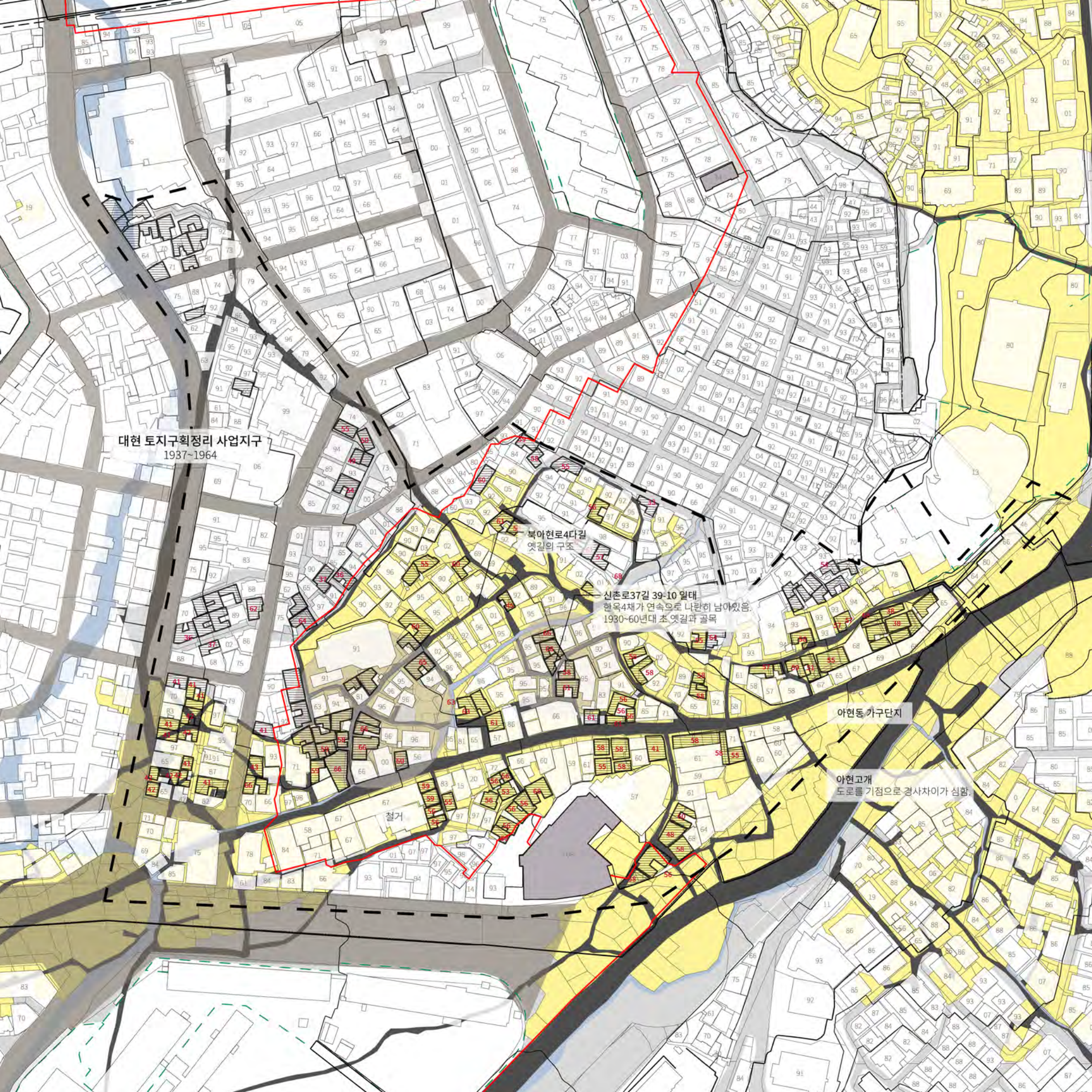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27길 48(북아현동 956) 일대





- 신촌로에서 한 켜 뒷골목인 아현동 가구단지의 중심길인 신촌로 37길은 서대문에서 신촌방향으로 향하는 옛길의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다. 신촌로와 서소문로, 마포대로가 만나는 아현교차로에서 한켜 안쪽으로 큰 대로가 신설되면서 가로 이면에 옛길이 갇혀있는 형태다.

- 특히 이 구역에서는 그 길의 형태와 함께 파생된 골목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구역은 대현 토지구획정리지구와 면해 있으며 구역의 서쪽 일부는 사업지구에 속한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형성된 조직으로 193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 건축된 한옥들이 다수 남아있다. 특히 북아현로 4다길과 북아현로 4바길은 옛길로서 건물과 함께 기록해 둘 가치가 있다.


대현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1937~1964
북아현로4다길
옛길의 구조
신촌로37길 39-10 일대
한옥4채가 연속으로 나란히 남아있음.
1930~60년대 초 옛길과 골목
아현동 가구단지
아현고개
도로를 기점으로 경사차이가 심함.
철거



나노실버침대










19-6







서울 도시공간
권역별(서북권) 기록화사업
2021년 11월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발행처 서울특별시
주 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 화 02-739-2974